

〈參考資料〉

北韓의 經濟와 貿易의 展望

1992. 12

統一院
交流協力局

본 자료는 일본무역진흥회(JETRO) 해외경제정보
센터에서 92년 9월 발간한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
망」중 일부분을 번역한 것으로서 남북경제협력 업무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한 것입니다.

목 차

I. 1991년의 북한경제	3
II. 1991년의 북한무역	27
III. 일본·북한 경제관계	91
IV. 북한의 합영사업 전개에 관하여	111

I. 1991년의 북한경제

玉城 素

머리말—궁지에 빠진 1991년 경제

1991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경제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는 90년대 이후의 혁명적 경제건설 노선의 역사적 결과이지만, 동시에 구소련과의 무역·결제 관계가 기본적으로 변경된 데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종래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해도 주로 구소련의 비호(庇護)아래서 이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무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구소련의 원조로 불균형을 메꾸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90년 9월에 북한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 구소련외상의 통보와 같은 해 11월에 체결된 신 협정에 의해 구소련·북한간의 무역은 경화에 의한 결제와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거래로 변경 되었으며, '91년 초부터 조·소무역은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북한무역의 주요 상대국으로서 총무역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대소련 무역이 근년에 이르러서 종래의 10분의 1로 격감했다고 한다. 특히 구소련으로부터의 수입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원유·석유제품·석탄·피탄등 연료와 에너지원의 수입도 10분의 1로 감소하였다면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91년 북한에는 연료부족으로 인해 공장이 동물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선박, 자동차 등의 운행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은 중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으며, 수출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발전소 건설과 탄광의 증설을 통한 연료·에너지원의 확보에 노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80년대에 강행된 기념비적 대건축물 건설과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방식이 초래한 생산·수송설비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국토의 노후화, 황폐화가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최고 지도층 내부에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인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1. 「신년사」에 반영된 경제과탄과 건설중점의 변화

1992년 1월 1일에 발표된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91년 경제를 어떻게 총괄하여 '92년 과제를 설정하였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92년 「신년사」에서 “1991년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험한 시련의 1년, 자랑스러운 투쟁의 1년, 영광된 승리의 1년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경제건설면에서는 “작년, 공화국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강철같은 신념과 의지를 갖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과시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라고 개괄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에도 의연하게 경제발전에 관한 숫자 하나도 열거하지 못하고 “조국의 만년대계와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대건설전투에 일어난 영웅적 노동자 계급과 인민군 군인을 비롯한 건설 일꾼들은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여 수도 건설과 전국의 건설장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습니다”라고 하여 한결같이 건설전투에 모든 성과를 집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열거된 성과는 다음의 네가지이다.

- ①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시설확장공사(완공)
- ②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설비대형화, 근대화 공사(단기간내 종료예정)
- ③ 2.8비탈론연합기업소 산소분리기직장 1단계건설(단기간내 종료예정)
- ④ 전국의 밭에 객토사업을 실시하여 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자연개조사업
(추진중)

이러한 건설 성과는 전년도 「신년사」에서 당의 건설집중화방침의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① 사리원칼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 ② 10월9일 강철총합공장 건설, ③ 발전소 건설의 3가지 목표와는 완전히 어긋나 있다. 또 기본 경제과제로 제기한 “채굴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하게 우선시키고, 금속공업발전에 커다란 힘을 쏟는다”.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공장을 완전가동시켜 농업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기에 공급하고, 경공업공장에 화학섬유와 각종

원료를 원만하게 공급한다”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어긋나 있다.

이와같은 「신년사」에서 설정되었던 과제와 총괄된 성과 사이의 극단적인 어긋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경제의 기본적인 개선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계획한 방침들이 결정적으로 좌절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소 무역의 격감이라는 외부요인에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국내 경제구조가 의외로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립경제건설’이라는 공식적인 기본 방침이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대외 의존 구조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건설집중화’도 중도에 좌절되고, 건설 중점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전년도 초의 3대중점 과제가 모두 신규건설이었던 것에 비해 금년의 「신년사」에서 성과로 내세운 네 가지는 모두 기존 기업소·기존 경지의 확장·개량사업으로 변화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은 '91년 후반에 김일성이 각지를 현지지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과제들일 뿐이다. 이것은 91년 중반이후부터 경제 건설 방침에 하나의 전환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와같은 전환의 의미는 매우 크다. 김정일의 주도로 80년대부터 수행되어온 기념비적 대 건축물 건설과 대규모 신규 생산설비 건설 방침이 이제와서 점차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 김일성 주도의 기존설비 확장·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92년 「신년사」에서는 금년의 경제과제를 “그 정당성이 실증되고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철저히 관철하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여 생활우선의 기본방침하에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했다.

(1)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문제

전력과 석탄을 증산하여 철도운수를 발전시킨다.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하게 우선시킨다(전년도는 채굴·전력·철도·운수 우선).

① 전력공업부문-발전설비의 정비보강과 완전가동, 새로운 수력·화력발전소의 건설

② 석탄공업부문-탄광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새로운 탄광의 개발로 생산량의 결정적 증대

③ 철도수송부문-물자와 기술적 토대를 근대화하여 수송조직 편성

(2) 식·의·주 문제

“모든 인민이 콩이 흰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기와집에서 살려는 공화국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당면하여 우리들이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

① 농업의 획기적 증산-금년을 ‘대농의 해’로 정하고, 농업경영의 수리화(水利化), 전화(電化)수준을 향상시키고,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적으로 실현

② 경공업 부문-“옷감을 비롯한 각종 양질의 인민 소비재를 증산하여 상점에 상품이 넘치게 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년도 「신년사」의 방침을 그대로 연장한 것이지만 특히 인민의 식의주 문제를 강조한 점이 새롭다. 더욱이 ‘백미, 고깃국, 비단옷, 기와집’등을 ‘세기적 염원’으로 제기하여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에의 당면한 중요한 목표’라고 한 것은 이제까지 완전히 뒤떨어져 악화 일로를 걸어온 인민의 생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당면한 중요문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적 결함과 실패를 자인한 것이고, 김정일의 경제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否定)과도 연관된다.

또 이번 「신년사」에서 거론된 금년도 과제 중에는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사리원칼리비료연합기업소, 10월9일강철총합공장, 30헥타르의 간척사업 등과 같은 신규의 대규모 건설과제는 일절 들어있지 않고, 평양의 수도 대건설 사업에 대한 언급도 없다. 아울러서 앞으로 2년을 남겨두고 있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수행

에 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이와같은 사실은 경제정책의 완전실패를 점차적으로 인정하여, 김일성의 지도하에서 경제건설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실패를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없다는 점에 북한 권력체제의 중대한 문제점(내부모순)이 있다.

2. 1991년의 경제정책의 전개와 미묘한 도중전환

1991년을 통해 볼때, 92년의 「신년사」에서 나타나는 건설중점의 변경, 인민생활 중시로의 궤도 수정은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연초의 수개월 동안은 「신년사」의 완수과제와 그해의 신규건설 과제가 대대적으로 계속 발표되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평양 광복거리관계 건설 및 새로운 발전소 건설과 주택 건설등이 눈에 띄고 있다. 연초에는 그해의 건설계획이 거듭 보도되었다.

(1)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중요건설대상(1월 18일)

① 사리원칼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칼리비료와 알미늄을 각 수십만톤, 시멘트 1,000톤 생산)－빠른 시일안에 회전로 1기로부터 시작하여 칼리비료 생산을 위한 건설공사를 앞당겨 종료.

② 10월9일강철총합공장(200만톤 생산능력)－연내완공

③ 동평양화력발전소, 12월화력발전소등 10여개의 대규모 수력·화력발전소와 수백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진행(9월 9일 보도에서는 해주화력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사리원칼리비료연합기업소부설화력발전소도 건설중).

이외에도 ‘대규모의 대자연개조사업’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1월 21일자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

(2) 공장·기업소의 개조확장 추진(1월 22일)

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연간 1,100만톤의 철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공사.

② 대흥청년탄광총합기업소－생산능력을 세배로 높이는 공사가 완공단계.

③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연간 수백만톤을 채광할 수 있는 노천탄광 개발을 위한 기술준비 마무리 단계.

- ④ 10월9일강철총합공장(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연내에 24건설대상의 조기 완공
- ⑤ 청진제강소(김책제철연합기업소)-제련용 석탄가공 광로 1개, 용광로 2기 증설.
- ⑥ 평북정련소-제2유산생산공정과 산소분리직장의 건설 마무리 단계.
- ⑦ 회천공작기계총합공장-12건설대상을 상반기에 종료목표.
- ⑧ 용성공작기계공장-최신 공작기계 생산기지(연 28,000여㎡) 건설공사를 앞당겨 완공하고, 설비조립 진행중.
- ⑨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길주밸브공장을 비롯하여 중요 화학공장의 개조확장.
- ⑩ 흥남비료연합기업소-메타놀 생산계통완성에 이어 비료·유산 생산능력 향상 공사 종료, 공사계획을 1.2배 이상 수행중.
- ⑪ 경공업 부문에서는 평양총합방적공장, 회령곡물가공공장, 사리원제화공장등에서 개조 확장공사.

(3) 평양시 수도건설

- ① 통일거리 건설-학교, 유원지, 탁아소를 비롯하여 공공건물을 빠른 속도로 건설중. 입체교, 화력발전소, 수원지등 관련공사 진행중(2월 12일).
 - ② 금년중에 50여만㎡의 공공건물 완공목표(2월 12일).
 - ③ 평양에 건설중인 삼대혁명전시관은 중공업관을 비롯한 6동의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종료. 지하시설 공사도 최종단계. 총서관, 중공업관, 신기술혁신관, 농업관, 삼대혁명기념탑의 건설도 빠른 속도로 진행중(3월 25일).
- 이러한 진행중이거나 연간 건설목표를 크게 올린 것외에, 2월이후에는 새로이 건설일정에 올라온 사업과 착공보도가 계속되었다.

- ① 금년에 90여개의 저수지가 건설된다(대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에 건설)(2월 1일).

- ② 신의주시에 가성소다공장(면적 25,000여㎡, 연산수백만톤 능력) 착공식(2월 10일).
- ③ 2.8비날론연합기업소(함흥)에 또하나의 산소분리기직장 건설 예정(2월 21일).
- ④ 평양시 대동강에 능라대교(길이 780m, 폭 28.5m의 현수교) 건설중(2월 22일).
- ⑤ 청수화학공장(압록강연안)에 중광석비료생산공정(연 3만여㎡) 건설 예정(3월 1일).
- ⑥ 평안남도에 금년 1만세대주택(탄광 광부용) 건설 예정(3월 8일).
- ⑦ 평양통일거리에 민예품상점(1,700여㎡)과 전시관(5,000여㎡) 건설 예정(5월 4일).
- ⑧ 평양통일거리에 면 전문식당(17,500㎡, 500석) 건설 예정(5월 8일).
- ⑨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영구재처리장 건설 예정(7월 10일).
- ⑩ 평양시 노면 전차부석 2단계공사 착공(2개노선 계 26km)(7월 12일).
- ⑪ 평양 대동강에 대형 야외풀장(길이 500m, 폭 50m) 건설 예정(7월 23일).

이상 11개의 보도중 6개 보도가 평양시내의 도시건설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건설과제의 팽창에 따라서 노동력 수급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군인의 건설부문 투입이 시작되었다. 3월 21일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당의 인민군 투입방침에 따라 최근 10여일 사이에 1만여명의 인민군이 경제 각부문의 사회주의 대건설장에 진출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주, 순천, 덕천지구의 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중요한 탄광에 배치된 제대군인들은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하여 석탄 생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일으킨 결의에 넘쳐 있다.”라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광에 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긴급대책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후의 속보는 없지만 아마도 이 10여일간을 시초로 일정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군인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4월 10일~13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회의에서는 90년도 예산집행 결산과 91년도 예산이 보고·채택되고 있다. 이 재정보고는 91년 「신년사」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음 몇가지 점에서 좀더 구체적이다.

(1) 90년도 결산

지출총액(전년도대비 6.4%증가)중에서 인민경제에의 자금지출(6.6%증가), 국가 기본건설 투자(7.2%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간공업부문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 주택건설에 힘을 쏟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① 기간공업 건설-전력·채굴·금속공업부문 투자(8.1%증가).

• 위원발전소, 태천강5호발전소 건설완성, 남강발전소, 12월화력발전소, 동평양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화력·수력발전소 건설 추진.

• 안주지구탄광·무산광산·점덕광업의 각 연합기업소, 대흥청년광업총합기업소의 생산능력확장공사와 양강도지구광산의 개조·확장공사·강력추진.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새로운 용광로건설과 10월9일강철총합공장 건설추진. 청진제강소 산화제련 용광로 생산공정 완성.

• 공작기계공장·채굴기계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장의 능력 확장공사와 신전자제품 및 전자재료 생산기지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조선컴퓨터센터 건설.

② 화학공업기지의 확대강화(6.5%증가)

• 사리원칼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제2단계공사, 기존 화학공장의 화학섬유와 화학비료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강화 추진.

③ 교통운수 부문

• 80여km 구간의 위원-못가, 덕원-봉창-한령간 철도 전기화공사 완성.

• 철도의 증량화 적극추진.

• 평양-개성, 평양-회천간 고속도로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

④ 농업 부문(6%)

• 800km 수로건설로 대동강과 예성강, 압록강과 재령강을 하나의 대 관개망

으로 연결.

- 최신농업기계, 화학비료, 농약을 농촌에 대량공급.

⑤ 경공업 부문

• 기존 방적공장, 식료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공장을 더욱더 근대화하여 소비재 생산의 토대를 강화.

⑥ 주택건설과 도시경영 사업(5%증가)

- 평양시에만도 3만세대의 근대적 고층주택 건설.

⑦ 사회문화시책비와 인민시책비(6%증가), 보건사업비(5.2%증가), 문화사업비용·체육 사업비(현저히 증가).

(2) 91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4%, 세출에서 4.5%증가라는 최근 몇년간에 비해서는 최저수준의 증가율을 설정하고 있다. 지출내역에서는 ‘인민경제지출’을 4.6%증가시켰지만, 전년도 결산에서 제시된 바 있었던 ‘국가 기본건설 투자’에 관해서는 숫자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부분을 기간공업부문의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건설대상에 투자된다”라고만 하고 있다.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인 것은 채굴·전력공업의 6.5% 뿐이고, 그 외에는 사회문화 시설비를 4%(평균이하) 증가시키는 데에 그쳤다. 여기에서 이미 전년도의 기본건설 우선방침에서 벗어나 ‘기술적 토대의 강화’로 목표를 변경하고, 건설대상도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의 열쇠가 되는 대상으로 한정하려는 ‘한정화’방침이 보여진다.

① 채굴공업과 전력공업을 확고하게 선행시킨다(6.5%증가).

- 탄광, 광산, 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벌임.

② 금속공업, 기계, 전자·자동화공업 부문(많은 자금을 배정한다).

- 금속공업 부문-기존 제철·제강소의 설비보강을 통한 생산력 증대. 10월9

일강철총합공장 건설의 강력한 추진.

• 기계, 전자·자동화공업 부문—채굴기계, 농업기계 생산공장을 비롯한 각종 기계공장의 생산능력 확장 공사와 현재 진행중인 전자제품 생산기지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생산의 종합적인 기계화와 자동화, 전산화, 로봇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강화.

③ 화학공업(작년보다 증가)

• 사리원칼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에 힘을 집중시키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2단계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설비의 근대화·대형화,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재확장공사를 추진하고, 기초화학제품 생산기지를 대대적으로 강화시킨다.

④ 농업 부문(5.6%증가)

•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 곡물, 야채를 비롯한 농산물 증산.

⑤ 경공업 부문

• 경공업공장의 근대화 촉진, 모든 경공업공장을 완전가동시켜 8월3일인민소비품자 생산운동을 강력실시, 옷감을 비롯한 다양한 양질의 소비품자를 획기적으로 증산.

⑥ 주택건설(더욱더 투자)

• 평양시에 웅대한 통일거리건설을 비롯하여 5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건설사업과 노면전차화공사를 강력실시.

⑦ 사회문화 시책비(4%증가)

• 다양한 인민 시책비, 과학사업비 증가.

• 국가부담에 의한 아동 보육교육과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장과 여러가지 인민적, 공산주의적 시책을 통한 은혜를 베풀.

표1. 재정규모의 추이(1986-92년도)

(단위 : 만원, %)

	세 입		세 출		국 방 비		
		증 감 율		증 감 율		대세출비	증 감 율
86결산	2,853,850	104.0	2,839,610	103.9	397,545	14.0	100.1
87결산	3,033,720	106.3	3,008,510	105.9	397,123	13.2	99.9
88결산	3,190,580	105.1	3,166,090	105.2	386,263	12.2	100.2
89예산	3,355,070	105.2	3,355,070	106.0	405,963	12.1	105.1
결산	3,368,100	105.3	3,338,294	105.4	405,953	12.0	105.1
90예산	3,565,561	106.1	3,565,561	106.8	431,433	12.1	106.3
결산	3,569,410	106.2	3,551,348	106.4	426,162	12.0	105.0
91예산	3,712,600	104.0	3,712,600	104.5	456,650	12.3	107.2
결산	3,719,484	104.2	3,690,924	103.9	446,602	12.1	104.8
92예산	3,950,092	106.2	3,950,092	107.0	458,211	11.6	102.6

주1) 91년도 결산과 92년도 예산은 92년 4월 8일~10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윤기정 재정부장이 보고하여 채택결정된 것이다.

2) 91년도 예산·결산은 대소련 무역부진을 반영하여 86년도 수준으로까지 증가율의 감소를 초래했다(86년도는 제3차 7개년계획 시작 직전의 해로 계획공백기였음).

3) 92년도 예산은 증가율에서는 전년도를 상회하여 경제가 상승국면으로 바뀐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출면에서 팽창한 '추가적 시책비'(김부자 생일기념 비용을 계상하기 위한 불가피한 증가로 보여진다)(표2의 주3번 참조).

4) 91년도 세입결산에서는 거래수익금 5.8%증가, 국가기업 이익금이 5.7%가 증가되어 세입총액의 4.2%증가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다른 세입과목중에서 격감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떤 부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지방재정수입도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5) 92년도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출액의 11.6%이고, 증가율은 102.6%로 최근 수년간에 최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아직 금액에서 감소에 달한 것은 아니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거 필자가 작성

표2. 재정지출의 비목별 추이(1986~92년도)

	86결산	87결산	88결산	89결산	90결산	91예산	91결산	92예산
인민경제지출	105.6	107.0	106.5	105.8	106.6	104.6	104.4	106.5
공업건설투자	-	199.1	-	-	107.2	-	-	-
생산적기본건설투자	-	-	-	107.0	-	-	-	-
전력공업	-	-	-	-	-	-	-	-
동력기지	-	-	-	108.0	-	106.5	105.2	105.0
채굴공업	-	-	-	-	108.1	-	철도	철도
금속공업	-	-	-	107.0	-	-	-	-
기계공업	-	-	-	-	-	-	-	-
화학공업	240.0	-	140.0	-	106.5	-	-	-
화학·경금속기지	-	150.0	-	-	-	-	-	-
경공업·수산	117.3	-	140.0	-	-	-	-	-
경공업	-	-	-	-	중	-	-	-
수산업	-	-	-	-	-	-	-	-
농업	120.0	108.9	-	106.0	106.0	105.6	104.0	104.5
교통운수	-	-	120.0	담음	-	-	105.4	-
과학기술	130.0	132.0	135.0	-	-	-	-	-
사회문화	102.0	-	105.5	105.2	106.0	104.0	103.5	111.6
교육	-	105.8	105.2	-	-	-	-	-
문화	-	101.0	-	-	-	-	-	-
보건	-	104.3	105.6	-	-	-	-	-
주택건설	-	-	-	-	105.0	-	106.0	-

주1) 가장 선행부문은 90년도 결산부터 묶어서 나타냈다. 91년도 결산에서는 채굴과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문이 5.2% 증가하고, 이와 중복하여 철도운수 부문이 5.4%가 증가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채굴·전력부문의 증가율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92년도 예산에서는 전력과 석탄공업, 철도운수가 5.0% 증가되었고 이것은 전년도 결산보다 낮고, 금년도 예산총액과 인민경제지출총액의 증가율보다도 낮다.

2) 91년도 결산에서 예산과 대비할 수 있는 숫자는 모두 예산계상증가율을 밑돌지만 예산숫자가 없는 철도운수 부문, 주택건설 부문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주택건설은 인민경제의 전체증가율을 상회하는 6.5%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평양의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반영한 것이다.

3) 92년도 예산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사회문화 시책비는 금년에 추가적 시책비를 포함하여 11.6% 증가라는 특이한 증가율로 계상되고 있다. 이것은 92년 2월 13일에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으로 발표된 임금평균 43.4%, 사회보장연금 평균 50.7%, 학생장학금 평균 33%, 쌀 구매가격 26.2%, 옥수수 구매가격 44.8% 인상이라는 은혜적 시책(2월 16일의 김정일 생일에 맞춘 것으로 3월 1일부터 실시)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추산해도 예산총액의 105를 넘는 거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타부문의 증가율은 예산총액과 인민경제지출증가율을 밑돌게 되고, 국방비 증가율도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출처) 표1과 같음.

이와 같은 예산구조를 살펴볼때 91년 「신년사」에서 우선과제로 열거되어 있던 ‘철도수송 부문’이 빠져 있는 것, 또 「신년사」에 작년도의 결산에도 들어있지 않던 ‘기계, 전자·자동화공업’이 언급되어 있는 것, 화학공업에 관해서는 대규모건설 과제들만 열거하고 지출증가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사회문화 시책비가 숫자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저조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다. 단, 그러한 저조함 가운데에서도 은혜적 시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92년에 예정된 김일성의 80회 생일행사를 감안하여 취한 조치일 것이다.

예년의 경우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로부터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까지 2개월 가량이 일종의 축전기간이 되어 인민들이 증정하는 선물의 형태로서 신규건설 보도들이 집중된다. 표3에 보는 바와 같이 91년에 있어서도 탄광, 광산과 경공업공장, 평양시 건설이 특히 이 기간에 집중되었다. 게다가 경공업공장 신설 보도에서는 4월중에 있는 6개 보도중 4개가 합영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4월 13일부터는 조선총련합영제품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어 5년간 재일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동포가 실시한 합영·합작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220여종, 2,140점의 제품을 전시하였다. 이 전시회에는 다수의 재일 상공인도 자재와 설비를 지참하고 참가하여 평양에서는 최초라고 하는 파티식 개막행사와 패션쇼 등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아주 중요한 증산과 신규건설에 관한 보도는 나오지 않고, 때때로 발표되는 증산 보도도 그때마다 대상이 달라지고, 비교기준도 전년도 같은기간대비, 전월대비, 계획대비 등으로 다양하다.

또 4월 5일의 제1/4분기 계획수행 보도는 황해남도 수산관리국, 신의주선박공장, 8월8일광산, 개성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 개성수지일용품공장, 이명수임산사업소를 취급하는데 그치고, 6월 30일의 상반기 계획달성 보도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은률광산의 철정광 생산,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시멘트·석회석·내화벽돌·칼리비료,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 생산, 해운대총국의 3기업소, 1광산, 1총국을 열거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중에는 최고 중점목표인 전력과 석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같은 사태로 인해 7월 이후부터 김일성의 빈번한 지방현지 지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에 있었던 김일성의 현지도는 3월 20일 평양시 삼석구역 협동농장파종, 적지적작(適地適作)·적기적작원칙 등과 4월 13일 평양시 노면전차 건설 제1단계공사의 2회 뿐 이었고, 그것도 평양시내 뿐이었다.

하지만 7월이후의 지방 현지도는 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이하의 괄호안의 숫자는 김일성이 교시를 준 부문이다. 9월에 있는 자강도의 현지도에 관해서는 개시일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1) 7월 10일~8월 5일 함경남도(제1회) 인민경제 각 부문, 부문별 협의회 소집

① 화학, ② 비철금속, ③ 석탄, ④ 전력, ⑤ 수송, ⑥ 농업, ⑦ 수산, ⑧ 도시.

(2) 8월 20일~30일 함경북도 인민경제 각 부문, 부문별협의회 소집

① 철강, ② 석탄, ③ 전력, ④ 목재, ⑤ 화학, ⑥ 채염, ⑦ 일반소비재·식료품.
⑧ 어업, ⑨ 농업.

(3) 8월 31일~9월 6일 함경남도(제2회) 인민경제 각 부문, 각단위 지도

① 기계·전기기기, ② 농업.

(4) 9월 24일까지 자강도 인민경제 각 부문, 당도위원회총회 확대회의 개최

① 전력, ② 화학, ③ 철강, ④ 광업, ⑤ 기계, ⑥ 식료, ⑦ 교통운수, ⑧ 도시,
⑨ 농업.

(5) 11월 27일~12월 7일 함경남도(제3회) 인민경제부문, 부문별 협의회 소집

① 화학, ② 수산, ③ 농업.

이러한 현지도의 특징은 첫째로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의 3개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함경남도에 3차례나 지도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3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기존 공업설비(공장, 기업소)가 다수 존재하고, 70년 이후에는 평양중심의 신규건설, 수도건설의 영향으로 거의 방치되어온 경향이 강한 지역이다. 특히 함경남북도는 일본통치시대의 공업건설의 중심지역으로 그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자강도는 한국전쟁시부터 군수공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현재도 도청소재지인 강계와 희천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군수공업 도시화(군수공장은 대부분 지하에 건설)되어 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현지도 한 것은 신규건설 보다도 기

존공업지역의 재건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경제의 복원을 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둘째는 현지도와 그 교시대상이 지극히 포괄적이고 전부분에 걸쳐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함경북도에서는 타도에 없는 목재와 제염이 들어 있는 반면 도시부분이 없고, 자강도에는 수산부분이 없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전부분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는 함경남도의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용성기계총국, 단천비철금속지구, 함경북도의 무산광산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자강도의 군소·기계공업등의 전국적인 국가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여 각도의 자급자족체제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경제재건의 책임을 각지 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진다.

셋째로, 이번의 현지도가 거의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10월의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김일성이 10월 3일~15일의 약 2주간에 걸쳐서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이후 김일성이 경제지도의 최전선에 서서 경제복원에 몰두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김정일의 현지도는 '10월 31일에 곧 개점예정인 광복백화점 시찰'에서 지시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현지도가 시작된 시기인 8월 26일에는 91년에 제정된 「청년일」 일주년을 기념하는 김정일의 편지 “청년은 당과 지도자에게 한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어떠한 역경에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을 걸어 옹호하는 선봉대, 돌격대가 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 편지에서는 경제문제의 분야에서 “우리당은 지금 웅대한 제3차 7개년 인민경제계획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1990년대에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고봉에 도달하려는 전략을 내걸고, 철도운수 부문을 비롯하여 전력, 채굴, 금속, 화학의 각 공업부문을 망라하는 기간공업기지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대 건설전투를 힘차게 전개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청년이 커다란 역할을 다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속도전 청년돌격대 활동의 강화와 청년작업반 운동의 전개를 호소했다. 이같은 지적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시작할 때에 김일성이 이 계

획의 완수(93년)를 사회주의 완전승리라고 선언한 것을 변경하여 '1990년대'로 그 목표 달성시기를 연기·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또 철도운수 부문을 최선행과제로 지적한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이어서 9월 16일~18일에는 '전국작업반장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전국의 모범적인 작업반장과 공장·기업소기사장, 중앙·지방의 행정경제기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생산과 관리의 기초단위인 작업반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고를 연행목 총리가 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김일성의 교시가 전달되었지만 이대회에 김정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연총리의 보고에서는 "제3차 7개년계획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우리들이 화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공격방향이다. 우리들은 금후 2년간 남아 있는 3차 7개년계획을 완수하여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음 단계인 보다 높은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강고한 토대를 쌓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3차 7개년계획의 1년 8개월 조기달성(92년 4월 15일의 김일성생일까지)을 포기한 것과 계획수행 도중에 이루어진 수도 대건설등 대규모 신규건설로 혼란파탄을 초래한 이 계획의 궤도를 바로 잡는데에 중심목표를 두었다는 것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경제가 파탄에 직면하여 인민생활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여 채용한 궤도수정의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자기비판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노선도 폐기되지 않고 의연하게 남아 있다. 그것은 9월이후에도 재차 건설진도 및 신규건설 착공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 평산-개성-순천간 철도전기화 공사개시(9월 23일).

(2) 평안남도·남포시에 대규모 경기장(38,000㎡, 5만명수용) 건설중(9월 24일).

(3) 평안북도·신의주에서 5,000여세대의 시리카리치트*주택을 연말까지 건설

* 시리카리치트(silikalitst(러)) : 모래와 석탄으로 만든 발포 콘크리트

할 목표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9월 27일).

(4) 함흥에 새로운 소금공장(부지 24,000㎡, 건물연면적 13,000㎡)을 착공(10월 3일).

(5) 서해갑문-은율간 수로공사(200여km) 진행중(12월 10일).

연말에 들어서서 단편적으로 연간계획 달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빈약하다.

(1)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40여생산단위, 평양엘리베이타공장, 신원광산, 운전수산사업소, 함흥벨브공장, 황해북도지질조사측량대, 장연영예군인제화공장, 청진도금공장(11월 6일 보도).

(2) 황해남도수산물관리국 서해선박수리공장, 개성송도식료공장, 평양제1화물자동차사업소, 서해해운사업소(12월 18일 보도).

부문별 성과는 전혀없는 가운데 검덕광업(이것도 전체는 아님)을 제외하고는 주요 공장·기업소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지극히 퇴보적인 단위성과에 그치고 있다.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관해 11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에 따르면 9월의 자강도 현지지도 때에 김일성이 만난 군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11월 22일에 개최된 중앙의 어느 회의에서 김일성은 「영웅중의 영웅」이라고 칭찬하고, “모든 활동가가 그녀의 충실성을 따라 배우라”고 교시했다. 이여성의 공적은 “10년동안 종업원과 함께 수십헥타르의 원료경작지를 만들어서 수십톤의 곡물을 수확하고, 각종 가축을 사육하여 가죽과 고기를 조달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정춘실운동’이 널리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자기조달방식’을 모델화한 것으로 상업 활동가에게 “팔것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라”라는 것이다. 이는 생산성 부진(팔것이 없다)사태와 함께 군상업관리소와 같은 말단 관리기관이 생산→판매의 일관 기업화하는 경향을 촉진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12월 17일~18일에 개최된 ‘전국지방무역부문열성자대회’도 이와같은 연장선상

에 있다. 이 대회는 76년말에 김일성이 실시했던 '지방무역체계를 세우는 획기적 조치'이후 15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총괄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입각하여 새롭고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토의했다. 이것도 지방경제를 자기조달 방식으로 자활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대회의 관련 보도에서 자강도, 평안남도가 "수출품을 대중적으로 탐구동원하는 한편, 각종 금속생산과 농토산물 생산 경작지를 정리하여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수출액을 15년간에 100배이상으로 늘였다"라고 하였으며, 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각도에서 "국경무역, 가공무역, 합영합작 등을 추진하여서 매년 수출액을 늘이고 있다"고 한 것은 그대로 향후의 지방무역 진흥정책을 지시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이 회의와 같은 시기인 12월 18일에 정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화학공업부장을 김환에서 주길본으로,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길송에서 이용무로 경질하여 중요한 경제2부문의 책임자를 바꾸었다.

연말에 있어서 커다란 사건은 12월 13일에 있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서명하고, 같은 달 31일에 있는 핵문제 제3차 남북대표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조인한 것이다.

그동안에 경제정책면에서는 12월 28일에 정무원 결정 제74호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에 관하여」가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① 함경북도의 나진, 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총면적 621km²)를 설치, ② 동 지대내에서 외국인이 합작·합영기업, 외국인기업등을 창설·운영할 수 있고 각종 서비스사업도 할 수 있다. 나진, 선봉항과 인접지역인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③ 동 지대내의 외국인 투자자본·기업운영의 소득은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세·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각종 특혜와 편의를 보장한다. 이것은 84년의 「합영법」제정 이후의 중요한 경제개방 조치이다. 이제까지는 「합영법」에 따라 외부자본이 들어 온다 해도 중국식의 경제특구방식은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단지 이 지역선정을 보면 일본, 중국, 구소련 등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국제개발구상을 타겟에 놓은 것과 함께 북한에서는 정치, 경제중심에서 가

장 멀리 떨어진 변경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체제에의 영향을 극소화하려는 배려가 엿보인다. 또 당결정과 중앙인민위원회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채택하는 법령등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정무원결정이라는 응급조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표3. 1991년의 기본건설 주요실적

구	분	월 일	주 요 실 적
공업부문	채굴공업	3.25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수만톤 능력의 6갱 완공,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약 65만톤 능력의 2채탄구역 개발, 30만톤 능력의 제2채탄장 신설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수십만톤능력의 채탄구역 개발, 개천지구연합기업소에서 4채탄구역, 10채탄장 새로정비
		4. 8	대봉광산(양강도) 조업개시(비철금속), 천마광산제3수직갱(평안북도) 조업개시
		4.13	장림광산, 비류강광산 장상갱 조업
		4.23	평녕광산조업
		10. 8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생산확장공사 완성조업
		11.21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에서 대형 장거리 벨트 콘베이어 수송라인(총연장 2,000km) 완성
		전력공업	10.12
	10.12		양강도 소형발전소연합기업소가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60여 중·소 발전소를 건설
	12.24		동평양화력발전소 제1호 보일러 완성
	금속공업	4.23	727호 정련소(비철금속정련기지) 조업
	기계공업	2.21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최근 7,000마력의 신형 8축 전기기관차 제작
		3.18	6월4일차량총합공장에서 신형 100톤 화차 생산
		4.25	용성기계총국에서 사리원비료연합기업소 건설용 특별주문설비(5만㎡원심통풍기 등) 완성

구	분	월 일	주 요 실 적
공업부문	기계공업	5.25	남포조선연합기업소에서 대형 해상도크(회령 16·23) 완성
		8.31	낙원산소분리공장에서 18,000m ³ 산소분리기 제작 시험 운전 종료
		9.21	함흥지구에 중형전동기 생산거점(6,550㎡) 신설
		10.30	회천공작기계총합공장에서 새로운 플렉시블 생산시스템(FMS) 개발도입(각종공작기계의 상자류 가공시스템)
		11. 1	함북조선연합기업소에서 2만톤급 화물선 진수식
	건재공업	2.14	평양시 남쪽지구에 8월17일부재공장 조업개시(주택건설용 부재 생산)
		2.22	북부지구에서 해산강철공장(건축용 강재 생산), 해산흡관공장, 백암마그네시아지붕판공장 조업개시
		4.23	안변화강암광산 석재가공직장 조업
		7.22	금별합영회사(평양금속건재공장과 제일오사가 상공인) 조업식(각종 금속건재 생산)
		4. 8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화학합영공장(조선용악산무역총회사와 국제트레이딩주식회사의 합영) 조업식(회귀금속 생산)
	경 공 업	4.17	청천강합영회사(인귀무역회사와 조선총련·삼영산업주식회사의 합영) 제2단계공사종료, 조업개시(생사생산)
		4.23	남포유리제품수출공장 조업
		4.23	평양신발공장 제화·양복바지직장 조업
		4.23	통천수출품수산사업소 조업
		4.28	만풍합작회사(조선농산물무역공사와 조일산업주식회사)의 분공장·돛자리짜는 공장 조업개시
8.26		청년제지공장 조업식	
농업부문	1.18	양강도 삼지연에 야채온실농장(총 114,000여㎡) 건설	
	3.18	함경남도에서 8저수지 완성	
	3.22	국제연합개발계획(UNDP)협력에 의한 농업과학원 비육종 근대화와 평양야채과학연구소의 강화대상 완성	
	4.26	평안남도 신정저수지 준공식	

구 분	월 일	주 요 실 적
	11. 6	전국적인 개토작업 실적이 5일 현재 10만 5천헥타르에 달했다.
	12.16	UNDP협력의 축산 근대화설비 완성, 조업식
교통운수부문	8.24	북부철도·백암-유곡간 철도전기화공사 완성, 개통식
	9. 9	동립-동천간(14km)철도개통, 개통식
	3. 1	평양시에서 5개 학교를 기본적완공, 17개 유치원·탁아소 건설완공, 서비스망으로 8개대상건물 시설종료
도시건설부문	3. 2	민족레스토랑 청춘2관 오픈(평양 광복거리, 2개건물, 1, 500석)
	3.15	평양 광복거리에 특색있는 지하도 레스토랑 오픈(지하3층까지 각 600여석)
	4.13	평양시 노면전차 제1단계공사(20km구간) 기본적으로 종료(김일성 현지도)
	7.16	평안남도 대동군 순화강 상류에 순화강 유원지(6만㎡) 완성
	9.27	평안남도 안주, 개천, 순천, 덕천에 4,000여세대 주택신축
	9.30	조선통일지지국제연대행진대운동기념비(평양·통일거리 입구) 제막식
	10.15	김정일 개관전의 평양·광복백화점 시찰
기 타	7.17	평양프로그램센타 조업식

(주) 일자는 조업식, 준공식, 진수식등 '식'자가 붙은 경우는 그 당일, 그 이외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일

(출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거

Ⅱ. 1991년의 북한무역

室岡鐵人

머 리 말

종래 북한에 있어서 구소련은 총 무역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자, 에너지, 자본재등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한 구소련이 1991년에 북한과의 무역을 청산방식에서 교환가능통화, 국제가격을 기조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결국 자국경제의 악화와 연방자체의 소멸이라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구소련에 있어서의 변화가 북한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본 장에서는 '91년도에 북한의 대외무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북한이 자국의 무역통계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구소련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통계를 사용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제트로*가 산정한 추계를 기초로 '91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관해서 개관하겠다. 제2절에서는 주요 선진국, 제3절에서는 주요 개발도상국(구사회주의 나라를 포함)의 대북한 무역, 특히 품목의 구성과 그 변화 등에 대해서 보게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전 절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해 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1, 2년 동안 남한과의 소위 '남북무역'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주1) 참고 "북한의 대외무역"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1991년판」 일본무역진흥회. 1991년 참조

* 제트로(JETRO) : 일본해외무역진흥회(Japan External Trade Recovery Organization)

1. '91년 북한의 대외무역

제트로가 무역 상대국측 통계 41개국 자료를 집계·추제한 것에 따르면 '91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도(29억 9,396만 달러)보다 12.6%가 감소한 26억 1,783만 달러였다(표1). 이중 수출은 9.1%가 감소된 9억 9,493만 달러이며, 수입은 14.5%가 감소된 16억 2,290만 달러로 6억 2,797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90년의 교역대상 상위 3개국은 구소련(38.1%), 중국(16.9%), 일본(15.5%)순이었으나, '91년에는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25.0%)이었으며, 그뒤를 일본(19.2%), 구소련(13.9%), 멕시코(11.5%)가 따르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할 점은 이번의 제트로 추계에서는 '90~'91년의 구소련의 무역통계가 대폭으로 개정되고, 달러액으로 환산한 액도 대폭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통계와의 정합성(整合性)이 없게 되어 버렸다. 즉 종래에는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구소련의 몫이 50%이상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90년에 38.1%, '91년에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²⁾(구소련 통계의 비연속성에 대해서는 제3절에 있는 구소련 항(54page)을 참조).

북한의 수출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구소련을 대신해서 멕시코(27.3%)가 최대의 상대국이 되고, 일본(25.7%), 구소련(17.2%), 중국(7.7%)이 뒤따르고 있다(그림1).

한편 북한의 수입에서도 구소련을 대신하여 중국(35.6%)이 첫번째가 되고 뒤이어 일본(15.2%), 구소련(11.9%)의 순으로 되고 있다(그림2).

그림3에서는 북한의 수출입 총액, 수출, 수입에 있어서의 증감기여도(전년대비 증감율에 구성비를 가미한 것)의 상위 3개국, 하위 3개국을 전년대비 증감율(41개국의 증감기여도의 합계에 비교한 순위)을 중심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주2) 이번의 제트로추계에는 이란, 이라크등의 중동국가와 쿠바, 베트남등의 사회주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1의 주3) 참조.

..
구소련의 증감기여도는 총액에서 -12.6%, 수출 - 24.6%, 수입 -26.7%로서 다른 국가를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수출입이 감소하는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는 멕시코의 기여도가 22.8%로 현저하게 높고, 중국, 인도네시아는 구소련과 함께 하위로 떨어졌다. 또 수입에서는 중국의 기여도가 증가방향으로 최대(9.7%)이고 여기에 캐나다(3.0%), 일본(2.8%)이 뒤따르고 있다.

북한의 무역에서 아시아의 10개국(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을 일괄해 보면 '91년의 41개국의 수출입 총액의 57.5%, 수출의 43.8%, 수입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증감율에서는 수출입 총액이 11.3%증가, 수출이 16.0%감소, 수입이 28.4%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들 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 중국을 제외한 8개국만을 보면 '91년의 41개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수출입 총액 13.3%, 수출 10.4%, 수입 12.9%이고, 또 증감율에서도 수출입 총액 8.8%감소, 수출 24.3%감소, 수입 0.1%감소(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① 대소무역의 급격한 감소가 '91년의 북한 대외무역량의 전반적인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 ② 그러나 아직도 구소련이 중국, 일본과 더불어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점, ③ 아시아 지역(일본, 중국 제외)과의 무역량이 감소한 점, ④ 멕시코가 새롭게 주요 무역상대국(특히 수출)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과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것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표1. 북한의 대외무역

국·지역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 총액				
	90년		91년			90년		91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1,095,052	100.0	994,933	100.0	-9.1	1,898,909	100.0	1,622,900	100.0	-14.5	2,993,960	100.0	2,617,834	100.0	-12.6
중국	112,122	10.2	77,103	7.7	-31.2	393,976	20.7	577,258	35.6	46.5	506,098	16.9	654,361	25.0	29.3
일본	270,254	24.7	255,217	25.7	-5.6	193,490	10.2	246,392	15.2	27.3	463,744	15.5	501,609	19.2	8.2
구소련	440,454	40.2	171,018	17.2	-61.2	701,452	36.9	193,725	11.9	-72.4	1,141,907	38.1	364,743	13.9	-68.1
멕시코*	22,020	2.0	271,345	27.3	1132.2	10,133	0.5	29,219	1.8	188.4	32,154	1.1	300,564	11.5	834.8
홍콩	25,507	2.3	35,921	3.6	40.8	118,454	6.2	137,287	8.5	15.9	143,961	4.8	173,208	6.6	20.3
독일	64,694	5.9	64,807	6.5	0.2	83,257	4.4	52,855	3.3	-36.5	147,951	4.9	117,662	4.5	-20.5
터키	824	0.1	1,022	0.1	24.2	127,204	6.7	110,381	6.8	-13.2	128,028	4.3	111,403	4.3	-13.0
캐나다	10	0.0	0	0.0	-100.0	562	0.0	57,594	3.5	10150.7	572	0.0	57,594	2.2	9971.0
싱가폴	7,597	0.7	9,999	1.0	31.6	38,347	2.0	41,011	2.5	6.9	45,944	1.5	51,010	1.9	11.0
인도	19,800	1.8	7,920	0.8	-60.0	36,630	1.9	33,660	2.1	-8.1	56,430	1.9	41,580	1.6	-26.3
인도네시아	46,925	4.3	22,441	2.3	-52.2	37,397	2.0	17,638	1.1	-52.8	84,322	2.8	40,079	1.5	-52.5
호주	255	0.0	14	0.0	-94.5	34,219	1.8	33,092	2.0	-3.3	34,474	1.2	33,106	1.3	-4.0
태국	21,933	2.0	14,571	1.5	-33.6	13,458	0.7	13,497	0.8	0.3	35,392	1.2	28,068	1.1	-20.7
스페인	17,227	1.6	11,494	1.2	-33.3	5,572	0.3	14,004	0.9	151.3	22,799	0.8	25,498	1.0	11.8
프랑스	13,041	1.2	11,229	1.1	-13.9	12,150	0.6	9,106	0.6	-25.1	25,191	0.8	20,335	0.8	-19.3
벨기에	2,915	0.3	5,674	0.6	94.6	12,537	0.7	12,144	0.7	-3.1	15,453	0.5	17,818	0.7	15.3
영국	596	0.1	554	0.1	-7.1	9,325	0.5	10,676	0.7	14.5	9,921	0.3	11,230	0.4	13.2

역자 주) 북한의 '91년도 대멕시코 수출입 금액은 멕시코당국의 대북한 교역통계 작성 과정에서 남한과 멕시코와의 교역액 일부가 착오로 잘못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북한과 멕시코와의 정확한 교역액은 추후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지역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 총액					
	90년		91년		90년		91년		90년		91년		90년		91년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말레이시아	8,649	0.8	10,047	1.0	162	319	0.0	891	0.1	179.1	8,968	0.3	10,938	0.4	22.0			
아일랜드	662	0.1	2,974	0.3	348.9	86	0.0	6,793	0.4	7780.9	749	0.0	9,767	0.4	1204.6			
폴란드	5,905	0.5	8,367	0.8	41.7	9,748	0.5	1,154	0.1	-88.2	15,653	0.5	9,521	0.4	-39.2			
네덜란드	1,063	0.1	1,764	0.2	66.0	5,062	0.3	6,476	0.4	27.9	6,125	0.2	8,241	0.3	34.6			
덴마크	1,057	0.1	1,228	0.1	16.2	1,538	0.1	6,046	0.4	293.0	2,595	0.1	7,273	0.3	180.3			
페루	473	0.0	1,095	0.1	131.8	1,955	0.1	3,620	0.2	85.2	2,427	0.1	4,715	0.2	94.3			
오스트리아	656	0.1	423	0.0	-35.6	23,639	1.2	3,689	0.2	-84.4	24,295	0.8	4,111	0.2	-83.1			
스웨덴	411	0.0	2,024	0.2	393.0	14,069	0.7	1,219	0.1	-91.3	14,479	0.5	3,243	0.1	-77.6			
필리핀	6,208	0.6	2,605	0.3	-58.0	0	0.0	0	0.0	-	6,208	0.2	2,605	0.1	-58.0			
알제리	228	0.0	2,259	0.2	-889.4	0	0.0	2	0.0	-	228	0.0	2,260	0.1	890.1			
브라질	0	0.0	0	0.0	-100.0	0	0.0	1,650	0.1	-	0	0.0	1,650	0.1	366566.7			
점바브웨	227	0.0	185	0.0	-18.6	1,115	0.1	779	0.0	-30.1	1,342	0.0	963	0.0	-28.2			
파키스탄	216	0.0	147	0.0	-31.8	166	0.0	551	0.0	231.6	383	0.0	699	0.0	82.7			
노르웨이	331	0.0	555	0.1	67.9	3,532	0.2	0	0.0	-100.0	3,863	0.1	555	0.0	-85.6			
스위스	370	0.0	116	0.0	-68.7	3,868	0.0	341	0.0	-91.2	4,238	0.1	457	0.0	-89.2			
나이지리아	510	0.0	412	0.0	-19.3	4	0.0	0	0.0	-100.0	514	0.0	412	0.0	-19.9			
아브다비수장국	722	0.1	201	0.0	-72.1	0	0.0	0	0.0	-	722	0.0	201	0.0	-72.1			
미국	0	0.0	0	0.0	-	35	0.0	110	0.0	212.5	35	0.0	110	0.0	212.5			
이집트	835	0.1	85	0.0	089.8	5,114	0.3	0	0.0	-100.0	5,949	0.2	85	0.0	-98.6			

국·지역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 총액				
	90년		91년			90년		91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스 리 랑 카	169	0.0	63	0.0	-62.6	110	0.0	13	0.0	-88.5	279	0.0	76	0.0	-72.8
카 메 룬	153	0.0	35	0.0	-77.1	0	0.0	0	0.0	-	153	0.0	35	0.0	-77.1
이 탈 리 아	5	0.0	2	0.0	-57.7	24	0.0	27	0.0	14.8	29	0.0	30	0.0	2.0
코트디보와르	25	0.0	18	0.0	-25.6	0	0.0	0	0.0	-100.0	25	0.0	18	0.0	-25.7
뉴우질랜드	4	0.0	0	0.0	-100.0	359	0.0	0	0.0	-100.0	363	0.0	0	0.0	-100.0
아시아 합계 (10개국·지역)	519,211	47.4	435,971	43.8	-16.0	832,238	43.8	1,068,186	65.8	28.4	1,351,449	45.1	1,504,157	57.5	11.3
아시아 합계 (8개국·지역)	136,835	12.5	103,651	10.4	-24.3	244,772	12.9	244,5366	15.1	-0.1	381,607	12.7	348,187	13.3	08.8

(단위) 1,000달러, %.

주1. 북한의 무역상대국 가운데 입수가 가능한 41개국의 무역통계(현지통화는 달러로 환산하여 사용)를 기초로 작성, 수출입을 교체환산하고, FOB, CIF를 조정하여 계산하였음.

2. 순서는 수출입 총액이 많은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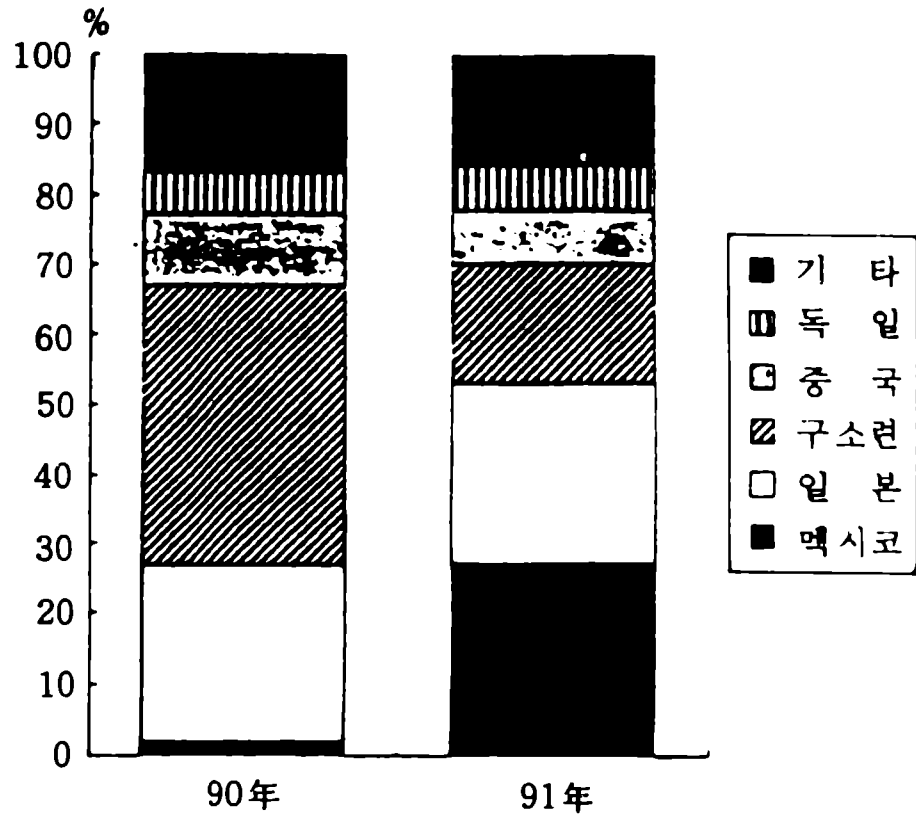
3. 상기 41개국에는 이란, 리비아, 시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베트남, 쿠바, 대만, 한국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

4. 구소련에 대해서는 「경제와 생활」지 제13호(92년 3월)에 개재된 루블화로 표시된 무역통계를 사용. 이 통계는 상업환율(90년 11월부터 도입)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환율(90년 12월=1,6458루블, '91년 평균 1달러=1,7466루블)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 91년 평균환율은 러시아동구경제연구소에 의함.

5. 인도는 90년 4월~91년 3월, 91년 4월~8월. 호주는 89/90, 90/91년도(7월~6월). 태국은 1월~11월. 파키스탄은 89/90, 90.91년도(7월~6월). 나이지리아는 1월~4월. 카메룬은 89년 7월~90년 6월, 90년 7월~91년 6월. 짐바브웨의 91년은 1월~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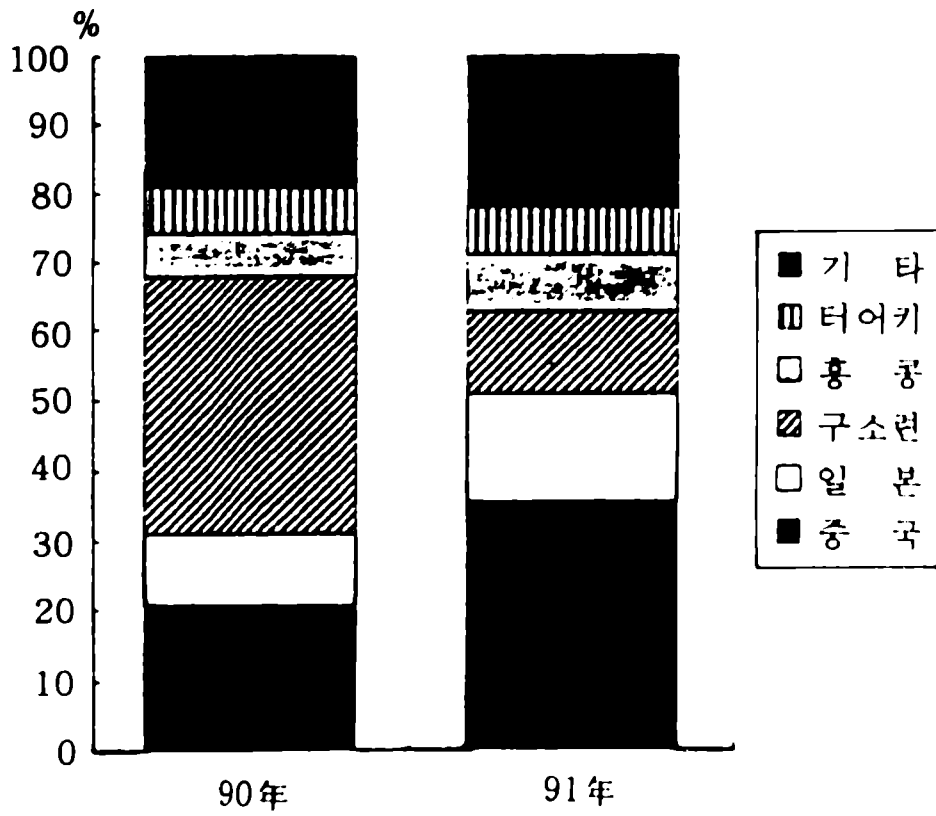
(출처) 제트로 추계, 「통상홍보」 1992년 7월 10일.

그림1. 북한의 수출(주요상대국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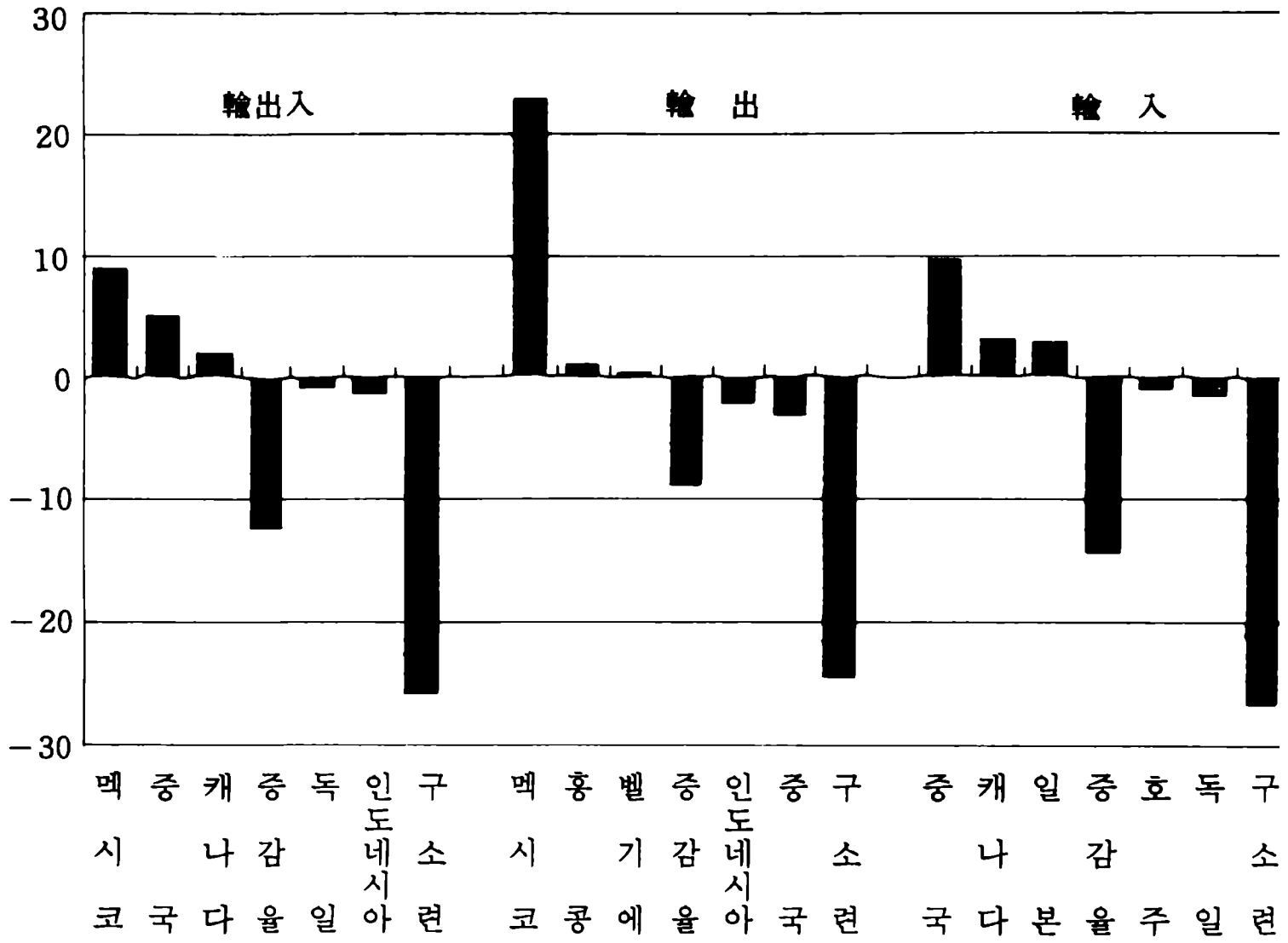
(출처) 표1에 의해 작성

그림2. 북한의 수입(주요상대국별 점유율)



(출처) 표1에 의해 작성

그림3. 북한의 주요상대국, 지역별 수출입 증감기여도



(단위) %.

(출처) 표1에 의해 작성

2. 주요 선진국의 대북한 무역

〈아시아〉

(1) 일 본

91년의 일·북한무역은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수출입 합계가 5억 757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6.6%증가하였다. 일본의 대북한 수출은 27.3%가 증가하여 2억 2,399만달러였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5.6%가 감소하여 2억 8,357만 달러로서 87년에 일본이 적자로 바뀐 이래 처음으로 그 폭이 축소되었다(그림4).

대북한 수출에는 기계·기기(91년의 대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은 43.4%, 전년에 비해 37.6%증가), 섬유(몫 16.9%, 38.1%증가), 금속제품(몫 9.8%, 29.3%증가), 화학품(몫 11.1%, 14.0%증가)의 증가가 기여했다(표2).

한편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섬유(91년의 대북한 수입에서 차지하는 몫 14.0%, 전년비 48.1%증가), 금속제품(주로 철강, 몫 10.9%, 12.3%증가), 어패류(몫 18.0%, 12.3%증가) 등이 증가한 것이고, 야채류(몫 7.9%, 46.6%감소), 금속광(몫 28.3%, 11.3%감소), 섬유재료(주로 생사, 몫 1.7%, 65.4%감소), 석탄(8.3%, 4.3%감소) 등이 감소하였다. 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자용 외의류(전년비 11.8%증가)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재일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서의 합영사업과 위탁가공의 성과로서³⁾, 그동안의 남자용 신사복 상하(1,332만달러, 전년비 11.0%증가)와 남자용 자켓(839만 달러; 전년비 68.5%증가)은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시장에서 각각 제4위의 지위(점유율 6.1%, 5.6%)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⁴⁾

91년 1월에 일·북한 양국정부가 국교 정상화 교섭을 정식으로 개시하게 되자 日本은 90년말에 768억 엔을 상회하는 북한의 대일 채무 문제에도 어떠한 진전이

주3) 재일조선인에 의한 합영사업에 대해서는 제4장 宮塚利雄의 논문 참조.

주4) 대장성 통계에 의함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북한측도 국교 정상화를 앞두고서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일본측이 향후 5년안에 채무를 완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91년 4월 북한측은 채무에 대해 10년간 유보한 뒤에 15년간의 연장지불을 제안하는 등 쌍방의 의견차이가 커서 국교교섭과 마찬가지로 채무교섭에도 커다란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⁵⁾

〈대 양 주〉

(2)호 주

호주의 대북한 무역은 90/91년도(7월~6월)에 수출이 3,869만 호주달러(약 3,008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만 호주달러(약 1만 6,000달러)로 94.4%나 감소했다(증감율은 원칙적으로 현지 통화에 기초, 이하동). 90/91년도의 특징은 ① 호주측의 압도적인 수출초과 경향, ② 수출의 대부분을 소맥이 차지한다는 특징은 변하지 않았으나, 소맥의 수출량은 전년도의 15.7만톤에서 29만톤으로 거의 두배가 증가했다는 점이다(표3)⁶⁾.

주5) 「동경신문」 1991년 4월 4일, 「공동통신」 1991년 4월 4일. 또 青木和雄(1990년의 일조무역),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1991년판」, 102~107페이지 참조

주6) 91년 11월, 김용순 중앙위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호주를 방문, 에반즈 외상, 밥·호크 노동당 서기와 회담하여, 국교회복(75년이후 단교)을 신청했지만, 호주측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5,500만 호주달러의 대호주 채무를 지불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교를 회복하지 않을 방침이다. Australian Financial Review, November 6, 1991. 김용순 서기는 호주방문을 전후하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를 당대표단으로서 방문하였으며, 또 인도네시아를 최고인민회의대표단(단장 김용순 최고인민회의외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방문하였다. 「북한정책동향」(라디오 프레스) 1991년 제13호, C35, 37-38페이지.

〈구 주〉

(3) 프랑스

91년 프랑스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4,670만 프랑(약 828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2.4% 감소하고, 수입은 707억 프랑(약 1,248만 달러)로 10.8% 감소하여 수출입도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그림5). 수출에서는 산업용 설비가 전체의 46.8%, 반제품(금속제는 제외, 주로 기타 유기화학품)이 33.0%를 각각 차지하였다. 수입에서는 반제품(금속제 제외, 미가공 건축재료)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 소비재(35.6%, 주로 의류제품)등이었다(표4).

(4) 영국

91년 영국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전년에 비해 15.3%가 증가된 550만 파운드(약 971만 달러)였고, 수입은 6.4%가 줄어든 34만 파운드(약 62만 달러)였다(표5). 수출에서는 기계 및 수송용 기계가 전체의 37.4%, 원료별 반제품(주로 기타금속제품)이 33.1%를 각각 차지했다. 수입은 그 액수가 매우 적지만 기계 및 수송용기계가 66.2%를 차지하고 있다(표6).

(5) 독일

91년 독일(통일독일)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4,805만 달러, 수입이 7,201만 달러였다. 전년에는 동서 양독이 합해서 수출이 1억 1,391만 마르크(약 7,569만 달러), 수입이 1억 818만 마르크(약 7,188만 달러)였으므로 달러로 환산한 수출이 약 3.7% 감소한 것에 비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다.

'91년 수출의 94.1%는 완제품이 차지하고 그중에는 농업기계·트랙터(수출전체의 33.5%), 전기제품(17.6%)등이 주된 품목이었다. 수입도 완제품이 85.2%를 차지했는데 그 내용은 비단의류(수입전체의 62.7%)와 목면제 의류(15.7%)등 섬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7).

(6) 네덜란드

91년 네덜란드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전년의 838만 DFL에서 1,070만 DFL(약 589만 달러)로 27.7% 증가하였고, 수입은 215만 DFL에서 356만 DFL(약 196만 달러)로 65.8%가 증가하여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다. 수출에서는 기타 도로주행용 차량, 인조프라스틱 축합물(전년도에 비해 895배), 코코아(23.8% 증가)의 신장이 현저하고 수입에서는 전년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의복·의류등이 24% 감소한 것에 비해서 잎담배가 약 23배가 증가하여 최대의 품목이 되었다(표8).

(7) 덴마크

91년 덴마크의 대북한 수출은 3,520만 크로네(약 55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4배에 달하는 대폭적인 신장을 보였다. 수입도 877만 크로네(약 136만 달러)로 20.3%가 증가하였다.

수출증가는 대규모 식육회사인 튜립사가 처음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2,700만 크로네에 달하는 대규모였던 것에 기인한다. 이 회사는 92년에도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매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은 기타 전기기계가 4배 증가하여 수입전체의 증가에 가장 공헌했다(표9).

북한이 덴마크에 지고있는 채무는 1,180만 도이치 마르크로 수년동안 채무잔고는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 수출신용평의회는 대북한 수출신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채무에 대한 이자지불을 88년이래 계속해 왔지만 91년말에 지불이 정지되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⁷⁾

주7) 제트로 코펜하겐사무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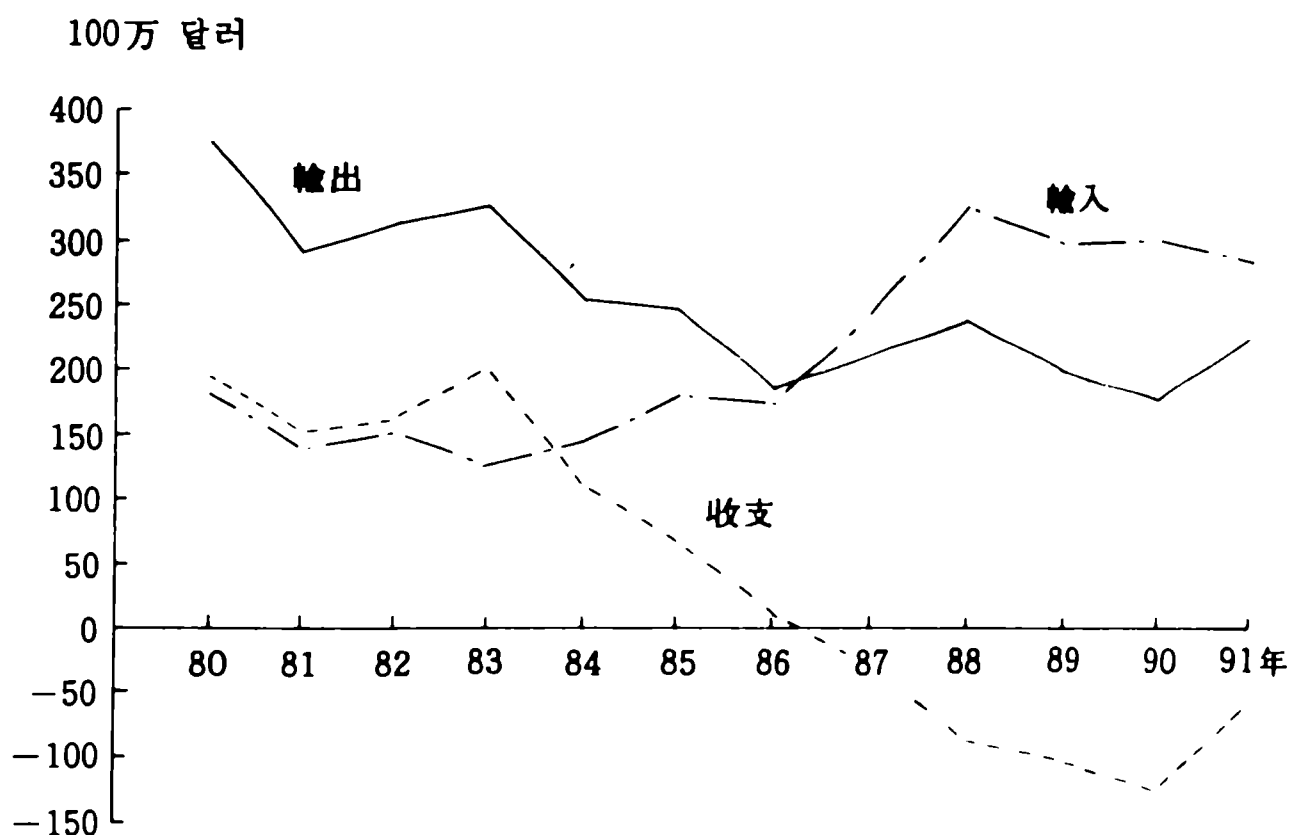
〈북 미〉

(8) 캐나다

91년 캐나다의 대북한 수출은 전년의 60만 캐나다 달러에서 6,000만 캐나다 달러(약 5,236달러)로 격증했다.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에 제로였던 곡물의 수출이 5,812만 캐나다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표10). 즉 그 구체적내용은 모두 소맥이고 수량은 45.5톤이다.⁸⁾

수출보험 소관기관인 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EDC)에 따르면 북한은 수출보험, 정부 개발원조등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⁹⁾

그림4. 일본의 대북한 무역



(출처) 대장성 통관통계에 의거 작성

주8) Statistics Canada, Exports by Commodity(December 1991)에 따르면 기타소맥(분류번호 1001. 90) 454,988톤, 58,119캐나다 달러.

주9) 제트로 토론토센타 보고

표2. 일본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9년	90년	91년		증감율	기여도
			구성비	구성비		
수출	197,001	175,900	100.0	223,993	100.0	27.3
식료품	4,352	3,290	1.9	4,166	1.9	26.6
원재료	1,382	834	0.5	1,716	0.8	105.8
광물성연료	717	2,143	1.2	1,297	0.6	39.5
제조품	182,759	161,301	91.7	207,990	92.9	28.5
화학품	20,647	21,892	12.4	24,966	11.1	14.0
기계·기기	105,298	70,605	40.1	97,157	43.4	37.6
섬유	21,534	27,410	15.6	37,866	16.9	38.1
직물	12,210	17,624	10.0	24,013	10.7	36.3
섬유 2차제품	7,759	7,333	4.2	10,413	4.6	42.0
금속품	14,107	16,943	9.6	21,905	9.8	29.3
철강	7,465	10,627	6.0	12,739	5.7	19.9
금속제품	4,696	5,344	3.0	7,264	3.2	35.9
수입	298,678	300,282	100.0	283,574	100.0	-5.6
식료품	96,487	93,997	31.3	79,413	28.0	-15.5
어패류	53,426	45,443	15.1	51,042	18.0	12.3
야채·과실류	28,517	41,913	14.0	22,353	7.9	-46.7
원재료	120,347	121,715	40.5	104,413	36.8	-14.2
섬유원료	12,753	13,798	4.6	4,776	1.7	-65.4
생사	12,544	13,722	4.6	4,752	1.7	-65.4
금속광	91,288	90,444	30.1	80,199	28.3	-11.3
비금속광	6,086	10,580	3.5	9,422	3.3	-10.9
기타식물성원재료	6,196	5,313	1.8	8,127	2.9	53.0
광물성연료	24,754	25,308	8.4	23,642	8.3	-6.6
석탄·동제품	22,433	24,705	8.2	23,642	8.3	-4.3
제조품	50,736	57,888	19.3	75,610	26.7	30.6
섬유	14,561	26,805	8.9	39,711	14.0	48.1
남자용 의류	10,578	22,416	7.5	33,490	11.8	49.4
금속품	33,941	28,234	9.4	31,698	11.2	12.3
철강	33,267	27,721	9.2	30,961	10.9	11.7

(단위) 1,000달러, %.

(출처) 대장성 통관통계에 의거 작성

표3. 호주의 대북한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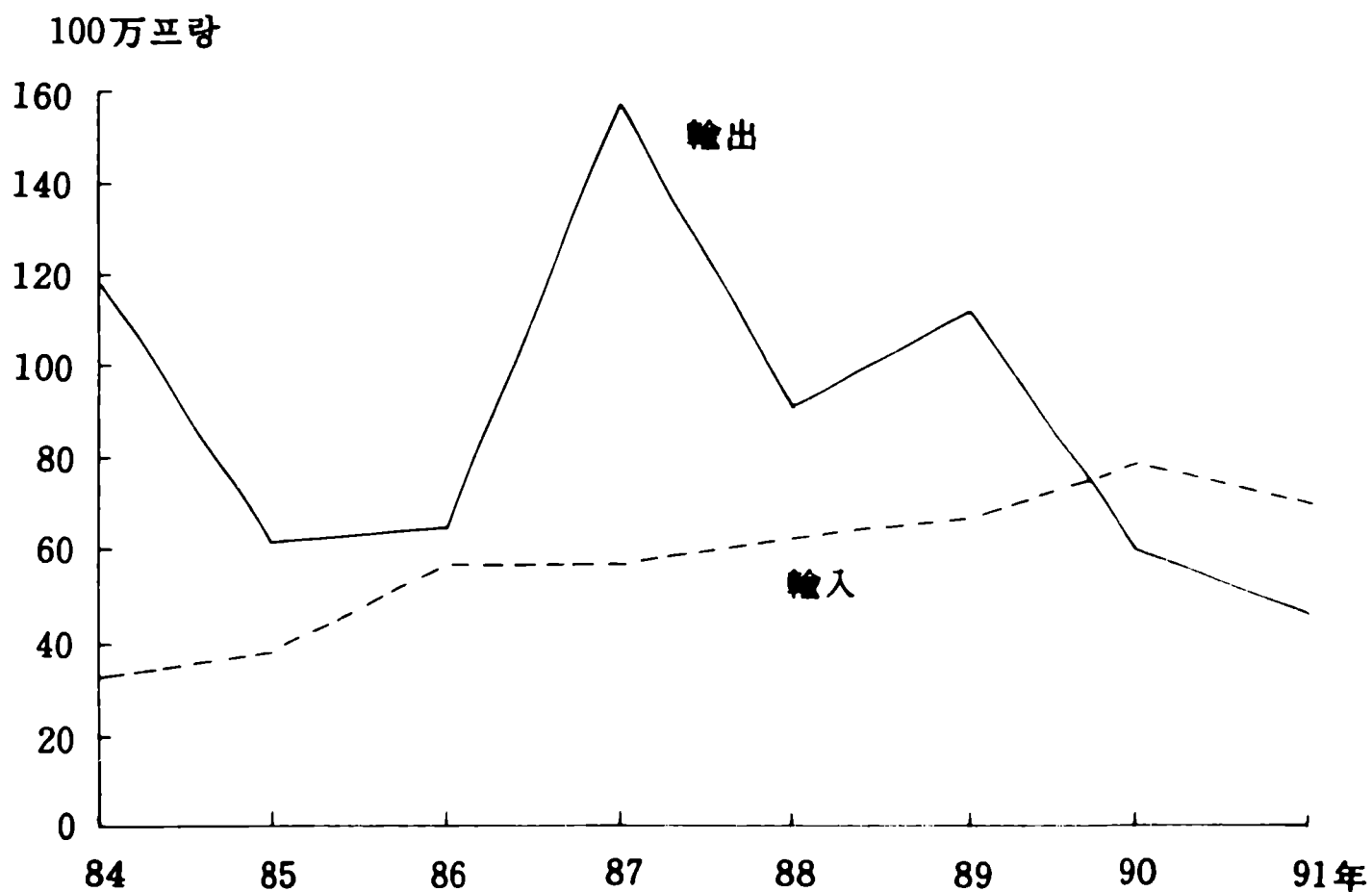
연도	수출		소액		수입	
		증감율		량		증감율
85/86	25,697	-	13,114	103	986	-
86/87	29,591	15.2	10,625	71	803	-19
87/88	88,578	199.3	56,979	403	254	-68.4
88/89	15,017	-83.0	5,409	24	268	5.5
89/90	39,270	161.5	30,608	157	359	34.0
90/91	38,688	-1.5	32,691	290	20	-94.4

(단위) 1,000호주 달러, %, 1,000톤

(주) 각 년도는 7월~6월

(출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Foreign Trade Australia 각호에 의거 작성.

그림5. 프랑스의 대북한 무역



(출처) Sstatistiques du Commerce Extérieur 각년도 판에 의거 작성

표4. 프랑스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90년		91년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율
수 출	60,147	100.0	46,702	100.0	-22.4
02 농산물 가공품	1,151	1.9	4,493	9.6	290.4
05 금속·금속가공품	1,819	3.0	2,676	5.7	47.1
06 반제품(금속제 제외)	22,204	36.9	15,393	33.0	-30.7
0612 가공건축재료, 세라믹	70	0.1	1,835	3.9	2,521.4
0635 기타 유기화학품	18,498	30.8	9,541	20.4	-48.4
0690 고무, 프라스틱	2,582	4.3	2,966	6.4	14.9
07 산업용 설비	23,169	38.5	21,855	46.8	-5.7
0714 산업용 설비	4,560	7.6	4,184	9.0	-8.2
0715 광업·제철업·건설용기기	11,109	18.5	4,048	8.7	-63.6
0720 전기기기	1,544	2.6	12,515	25.8	710.6
0730 사무용기기, 산업용전자기계	2,204	3.7	397	0.9	-82.0
11 일반소비재	4,151	6.9	1,413	3.0	-66.0
수 입	78,904	100.0	70,387	100.0	-10.8
02 농산물가공품	2,127	2.7	1,174	1.7	-44.8
05 금속·금속가공품	652	0.8	1,233	1.8	89.1
06 반제품(금속제 제외)	41,755	52.9	38,392	54.5	-8.1
0611 미가공 건축재료	40,609	51.5	37,683	53.5	-7.2
07 산업용 설비	3,921	5.0	3,806	5.4	-2.9
0730 사무용기기, 산업용전자기계	2,308	2.9	2,212	3.1	-4.2
11 일반소비재	26,809	34.0	25,070	35.6	-6.5
1124 의류품	23,622	29.9	18,740	26.6	-20.7

(단위) 1,000프랑, %.

(출처) 프랑스 세관통계에 의거 작성

표5. 영국의 대북한 무역

	수 출		수 입	
		증 감 율		증 감 율
84년	2,935	-	458	-
85년	2,608	-11.1	1,983	333.0
86년	3,331	27.7	1,374	-30.7
87년	2,198	-34.0	641	-53.3
88년	3,125	42.2	824	28.5
89년	3,087	-1.2	1,095	32.9
90년	4,774	54.6	373	-65.9
91년	5,503	15.3	349	-6.4

(단위) 1,000파운드, %.

(출처) Central Statistical Office, Business Monitor : Overseas Trade Statistics of the United Kingdom, London : HMSO등에 의거 작성

표6. 영국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9년	90년	91년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수 출	3,087	4,774	100.0	5,503	100.0	15.3
5 화학공업생산물	357	685	14.3	463	8.4	-32.4
6 원료별 제품	781	781	16.4	1,819	33.1	132.9
65 섬유제품	182	325	6.8	159	2.9	-51.1
69 기타 금속제품	38	40	0.8	1,102	20.0	2655.0
7 기계 및 수송용기계	1,771	2,105	44.1	2,060	37.4	-2.1
71 원동기·동부품	245	186	3.9	502	9.1	169.9
72 특정산업용기계	477	795	16.7	158	2.9	-80.1
74 일반사업용기계·동부품	420	519	10.9	927	16.8	78.6
77 기타 전기기기	247	382	8.0	308	5.6	-19.4
8 잡제품	382	849	17.8	1,129	20.5	33.0
87 광학기류, 의료용기기, 정밀기기류	201	624	13.1	437	7.9	-30.0
89 기타 잡제품	166	175	3.7	544	9.9	210.9
수 입	1,095	373	100.0	349	100.0	-6.4
7 기계 및 수송용기기	928	203	54.4	231	66.2	13.8

(단위) 1,000파운드, %.

(출처) 표5와 같음.

표5. 독일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9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수 출	57,289	49,808	100.0	48,050	100.0
3 식물성 식료품	7,697	4,633	9.3	5	0.0
301 소맥	7,662	4,569	9.2	0	0.0
6 소 재	5,928	1,119	2.2	808	1.7
610 유리원료·유리	—	—	—	277	0.6
616 철강소재	4,461	—	—	0	0.0
623 기타 비철금속	—	—	—	277	0.6
7 반제품	—	—	—	1,791	3.7
704 목면직물	—	—	—	640	1.3
712 플라스틱	—	—	—	428	0.9
8 완성품	57,289	41,479	83.3	45,195	94.1
809 기타 섬유제품	—	—	—	590	1.2
822 기타 철제품	—	—	—	1,473	3.1
826 압연기계	5,760	2,307	4.6	927	1.9
827 섬유·피혁용기계	—	—	—	3,764	7.8
828 농업기계·트랙터	—	12,290	24.7	16,118	33.5
831 압착공기펌프	1,285	376	0.8	4,056	8.4
836 기타 기계	9,830	9,979	20.0	2,834	5.9
841 전기제품	12,815	6,311	12.7	8,441	17.6
843 정밀·광학제품	2,112	1,653	3.3	956	2.0
857 자동차	18,512	3,859	7.7	3,806	7.9
수 입	27,994	53,765	100.0	72,008	100.0
5 원 료	8,959	9,729	18.1	9,898	13.7
532 기타 석재류	8,530	8,598	16.0	9,185	12.8
6 반제품	3,477	12,285	23.0	38	0.1
637 산업용 금	3,402	12,280	22.8	0	0.0
7 반제품	129	275	0.5	200	0.3

	89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8 완성품	14,568	30,693	57.1	61,369	85.2
804 비단외복	10,307	24,861	46.2	45,122	62.7
806 목면제외복	1,734	2,066	3.8	11,287	15.7
841 전기제품	—	—	—	1,410	2.0
9 기 타	852	568	1.1	352	0.5

(단위) 1,000달러, %.

(주) 89, 90년은 서독분만, 91년은 통일독일분.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Aussenhandelsstatistik 등에 의거 작성.

표8. 네덜란드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90년		91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출	4,443	8,375	1,600	10,698
025 새알	43	365	60	375
041 소맥	3,496	961	—	—
072 코코아	602	2,874	737	3,557
081 사료	—	—	187	380
288 기타 비철금속 부산물	—	—	109	440
292 기타 식물성 원재료	15	149	4	56
514 질소 화합물	—	—	33	262
533 안료·페인트	4	80	2	37
54 의약품	3	266	4	295
551 정유·향료	10	253	0	89
582 인조프라스틱 축합물	0	1	92	895
598 기타 화학공업 생산품	1	0	2	59
641 종이·판지	59	188	—	—
65 직물·섬유제품	1	4	8	63
663 기타 광물제품	1	78	90	164

	90년		91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692 저장용·수송용 금속제 용기	10	314	—	—
713 피스톤식 내연기관	12	874	5	274
721 농업용기계	—	—	4	67
727 식품가공기계	11	305	2	11
745 기타 일반공업기계	1	55	5	441
772 전기회로·스위치·저항기등	0	8	1	52
783 기타 도로주행용 차량	—	—	59	1,015
872 기타 의료용 기계	0	47	0	46
892 기타 인조프라스틱 제품	12	76	10	79
898 악기	0	667	0	129
수 입	715	2,149	409	3,562
037 어류·갑각류	—	—	2	20
121 입담배	11	68	235	1,542
278 조광물	600	131	—	—
513 카르본산	—	—	20	67
625 고무타이어·튜브	41	183	85	349
694 강철·동제의 못, 나사등	4	12	—	—
713 내연기관(피스톤식)	2	18	—	—
752 자동데이터처리계·구성부품	—	—	1	19
761 TV	0	9	—	—
83 여행용구·가방등	—	—	3	1
84 어패럴·의류등	52	1,611	42	1,225
851 신발류	2	79	—	—
893 기타 잡화	1	21	21	7

(단위) 수량 1,000kg, 금액 1,000DFL

(주) 수량, 금액에서 "0"으로 표시된 것은 수출(입) 실적은 있으나 1,000kg, 1,000DFL이하인 것을 나타내며, "-"로 표시된 것은 수출(입)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출처) CBS(중앙통계국) 통계에 의해, 제트로 암스테르담사무소 작성.

표9 덴마크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기여도
수 출	8,650	100.0	35,199	100.0	306.9	306.9
0 식료품·살아있는 동물	1,825	21.1	27,034	76.8	1381.3	291.4
00 육류·동제품	1,385	16.0	26,786	76.1	1834.0	293.7
2 비식용 원재료	337	3.9	438	1.2	30.0	1.2
5 화학제품	54	0.6	470	1.3	770.4	4.8
6 제조업생산품(주로반제품)	—	—	180	0.5	—	—
7 기계, 수송기계	5,591	64.6	1,547	4.4	-72.3	-46.8
8 기타 가공품	843	9.7	5,530	15.7	556.0	54.2
수 입	7,263	100.0	8,736	100.0	20.3	20.3
0 식료품·살아있는 동물	1,285	17.7	—	—	—	—
03 어패류	1,285	17.7	—	—	—	—
5 화학제품	2,005	27.6	128	1.5	-93.6	-25.8
54 의약·화장품	1,998	27.5	—	—	—	—
6 제조업생산품(주로반제품)	762	10.5	280	3.2	-63.3	-6.6
7 기계·수송기기	2,007	27.6	6,062	69.4	202.0	55.8
75 사무기기, 전자계산기	452	6.2	964	11.0	113.3	7.0
76 음향기기	627	8.6	1,285	14.7	104.9	9.1
77 기타전기기계	863	11.9	3,787	43.3	338.8	40.3
8 기타 가공품	1,204	16.6	2,243	25.7	86.3	14.3
84 의복	526	7.2	1,248	14.3	137.3	9.9
89 기타 제조업생산품	295	4.1	909	10.4	208.1	8.5

(단위) 1,000크로네.

(주) SITC분류

(출처) 덴마크 무역통계에 의거, 제트로 코펜하겐사무소 작성.

표10 캐나다의 대북한 무역 (주요품목별)

	90년	91년	증 감 율	
			기 여 도	기 여 도
수 출	596	60,002	9967.4	9967.4
02 고기 및 식용의 부스러기 고기	34	14	-58.8	-3.4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등	209	165	-21.1	-7.4
07 식용야채, 구근류	7	22	214.3	2.5
10 곡 물	0	58,229	-	9761.5
11 곡식가루, 가공곡물, 맥아, 전분등	81	0	-100.0	-13.6
12 채유용 곡물 및 과일 공업·의약용 식물등	24	0	-100.0	-4.0
22 음료, 알콜 및 식초산	0	15	-	2.5
27 광물성 연료등	0	1,511	-	253.5
41 피혁, 모피 및 그 제품	0	126	-	21.1
44 목재 및 그 제품	238	22	-90.8	-36.2
47 목재 펄프등		4	-	0.7
수 입	13	0	-95.4	-95.4

(단위) 1,000캐나다 달러, %.

(출처) 캐나다연방 통관통계에 의거, 제트로 토론토사무소 작성.

3. 주요 개발도상국의 대북한 무역

〈아 시 아〉

(1) 중 국

91년 중국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전년에 비해 46.5%가 증가한 5억 2,478만 달러이고, 수입이 31.2% 감소한 8,567만 달러로 중국의 흑자는 4억 3,911만 달러에 달했다.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년까지는 중국이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91년까지 중국의 수출이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21%로 감소하여 흑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91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 주요품목(SITC분류기준)을 보면 광물성 연료등이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그외 원료별 제품(12.5%), 식료품·동물(10.5%) 등이다(표11).

최대의 수출품목인 광물성 연료등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63.7%나 늘어나 것이 전체 수출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증감 기여도 24.5%). 금액기준으로는 광물성 연료등의 반 이상을 석유·석유제품등이 차지하고, 특히 그 대부분은 원유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표12에서 살펴보면,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에 61만 달러에서 139만 달러로 127.3%가 증가하였으나, 수량으로는 90년의 106만톤에서 91년에는 110만톤으로 3.7%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즉 원유의 톤당 단가가 90년에는 60달러 전후이던 것이 91년에는 126달러로 배가 올라서 종래의 '우호가격'이 세계시장가격(131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91년 중국의 대북한 수입을 SITC분류에 의해서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등(수입 전체의 33.0%, 주로 석탄등),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재료(26.8%, 대략 철광등), 원료별 제품(18.4%, 주로 철강)등이 주요한 품목이다(표11). 수입전체의 감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원료별 제품(증감기여도, -24.6% 특히 철강)이

고, 그뒤를 식료품·동물(-9.4%), 광물성연료(-3.9%)등이 따르고 있다. 반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재료는 수입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4.0%). 그러나 수출입에 관한 91년의 상세한 품목별 통계는 아직 간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북한 양국간의 무역은 수출입의 차액을 정기적으로 청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¹¹⁾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7년이후 중국측의 대폭적인 수출 초과경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아마 중국측이 북한측의 결제를 유예시켜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91년5월 중국의 이붕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교환가능통화 및 국제가격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무역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고했다 한다.¹²⁾ 그리고 92년 1월 양국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교환가능통화에 따른 결제방식을 양국 거래에 적용하기로 하였다.¹³⁾

주10) 줄고 전제(70페이지)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원유수출가격이 91년에 들어서 '우호가격'에서 국제가격에 가까워진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중국이 교환가능통화(하드카렌시), 국제가격에 근거하여 무역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지었다. 동시에 이것은 중국 국내에 있어서 석유가격정책, 즉 국제가격과 비교해 너무 낮은 국내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의 석유가격에 대해서는 中嶋誠, "중국의 석유산업(2)" 「중국경제」 제305호(1991년 5월) 56~59페이지, 藤崎成昭,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와 석유의 지위", 神原達彦, 「중국의 석유산업」 아시아경제연구소, 1991년, 263~264페이지, 石原亨, "중국의 다중가격" 石原亨-편, 「중국경제의 다중구조」 아시아경제연구소, 1991년, 229~230페이지 참조.

- 주11) 중국의 徐大有 주한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의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에게 언명한 것임. 서대표에 의하면 1년에 1회의 청산이 행해져 왔다. 「공동통신」 서울발 1991년 12월 17일. 종래의 청산제도의 틀의 기초는 정부간에 매년도마다 상품교류 의정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으로 교환될 상품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91년 3월에 북경에서 91년도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보도된 이후(「조선중앙통신」 1991년 3월 9일, 「조선통신」 1991년 3월 11일), 같은 양상의 의정서에 관해서 보도된 것은 없다. 즉 이제까지의 중·북한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馬成三, "중국과 동북아시아 각국과의 경제관계", 嶋倉民生편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태동」 아시아경제연구소, 1992년 97~102페이지 참조.
- 12) 「讀賣新聞」 1991년 5월 16일. 「공동통신」(북경발 1991년 5월 24일)은 이미 91년 5월경에 양국이 다음해부터 새로운 결제방식 채택에 원칙합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공동통신」은 (1991년 8월 6일) 북한 대외경제사업부 임태덕 일본담당과장의 말을 빌어 "중국과 북한도 금년말 이후에는 바터무역에 종지부가 찍힐 것이다."라고 이를 재확인했다.
- 13) 92년 1월 26일. 평양에서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옥문동 부부장과 북한무역부 한수길 부부장이 서명. 이협정에 따라 양국은 관세에서 최혜국대우를 서로 인정한다. China Daily, January 28, 1992.

“새로운 결제방식이 액면 그대로 실제 거래에 적용된다면(전술한 원유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적어지고, 더욱이 외화 부족으로 고민하는 북한에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대륙에 접해 있는 북한의 불안정한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결제방식의 타격을 감소시키는—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닌—어떤 방법, 이를테면 무역대금 지불 유예, 식량등의 공여와 그외의 경제적 원조 등을 생각할 수 있다.”¹⁴⁾ 또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서는 소위 ‘국경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¹⁵⁾ 이것도 북한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컨대 신결제방식과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중국이 북한에 경제개혁·대외개방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10월 김일성 방중시에 공장견학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¹⁶⁾, 중국 유색금속공업총공사와 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단장 : 등질방 중신기술공사부총경리=등소평의 아들)라는 중국기업의 대표단과 김일성이 회견을 한 것등은 시사적이다(표13 참조).¹⁷⁾

주14) 91년 10월 김일성의 중국방문 때에도 중국이 북한에 경제·군사원조를 약속했다는 견해가 있다(줄고 전제, 66, 84~85페이지 참조). 게다가 중국은 92년 4월 김일성 80회 생일을 기하여 돼지고기 400톤을 선물한 사실을 공개했다(신화사인용, 「매일신문」 1992년 4월 6일). 중국이 대북한 원조의 내용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평양방송」(1992년 4월 4일)도 품명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중국정부로부터 북한정부에게 선물이 있으며, 이를 국경도시 신의주에 인도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북한뉴스」 1991년 4월 7일). 또 「매일경제신문」(서울, 1992년 1월 28일)은 92년 1월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 경제합작에 관한 교환공문에도 조인했다고 했지만 그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주15) 「공동통신」(홍콩발 92년 1월 13일)은 홍콩의 중국계신문 「新晚報」(1992년 1월 31일)를 인용하여 요령성 단둥시 대외경제위의 林民 부주임의 말을 빌어 91년의 단둥시와 북한간의 국경무역은 3,000만 스위스 프랑(약 2,1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북한이 91년 12월 단둥시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신의주에 「신의주국경무역처」를 설립하여 92년 1월부터 무역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에 대해 단둥국경무역공사와 협의를 개시했다고 전하고 있다. 단둥시는 91년 TV 5,000대(버스등), 대형자동차 150대등 총100만 달러 분을 시험적으로 현금결제식으로 북한에 수출했지만 양국의 외화지불능력은 예상 이상으로 좋았다. 미달러에 의한 결제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한다.

주16) 小此木政夫 “대남북조선관계” 「중국총탐 1992년판」 震山舎, 1992년, 146페이지 등 참조.

주17) 전자의 북한방문은 91년 북한에 설립된 레아아스공장, 후자는 합영은행(조선통일발전은행 =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와 관계가 깊은 홍콩계 기업이 투자)과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 宮塚利雄 논문 참조.

(2) 홍콩

91년 홍콩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직접생산수출)이 9,605만 HK달러(약 1,236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하였고, 재수출(타국에서 수입한 것을 북한으로 수출)이 8억 7,385만 HK달러(약 1억 1,245달러)로 17.3%가 증가하였다. 수입은 3억 1,017만 HK달러(약 3,991달러)로 40.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년의 대폭적인 감소(수출 30.8% 감소, 재수출 17.2% 감소, 수입 24.8%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된 결과이다. 과거 피크였던 89년(수출 1억 3,594만 HK달러, 재수출 8억 9,967만 HK달러, 수입 2억 9,356만 HK달러)에 비해 수출·재수출은 약간 부족하고, 수입은 이것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재수출이 총수출(생산수출+재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년 88.8%, 91년 90.1%로 대단히 높고, 홍콩이 북한의 중계무역 거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7).

91년 수출을 품목(SITC분류)별로 보면 잡제품(수출전체의 45.3%), 원료별제품(22.3%, 주로 직물용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 화학공업품(13.0%, 주로 인조프라스틱)등이었다. 중감기여도 순으로 보면 화학공업품(중감기여도 4.7%, 특히 인조프라스틱), 음료, 담배(2.5%, 특히 음료)등이 상위에 오른 반면, 기계·수송기기(-4.6%, 특히 통신기기, 방송수신 등), 식료품·동물(-1.9%, 특히 당류, 동제품)이 하위를 기록했다(표14).

재수출에서는 원료별제품(재수출전체의 44.8%, 주로 직물용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 기계, 수송기기(17.6%), 잡제품(12.6%)등이 주요한 품목이었다. 재수출의 증가에 가장 공헌한 것은 기계, 수송기기(중감기여도 7.3%), 식료품·동물(3.9%), 잡제품(3.6%)등이 있다.

수출에서는 원료별 제품(수입전체의 30.3%, 주로 비철금속), 비식용 원재료(29.0%, 주로 동물성 또는 식물성원료), 잡제품(24.0%, 주로 의류·동 부착품)등이 주요품목이었다. 수입 중감기여도 순에서는 비식용 원재료(중감기여도 16.3%, 특히 동물성 또는 식물성원료), 원료별제품(11.8%, 주로 비철금속), 잡제품(10.8%, 특히 의류·동 부착품)등이 증가에 기여하였고, 광물성연료(-10.0%)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3) 싱가포르

91년 싱가포르의 대북한 무역은 현지 생산수출이 전년에 비해 25.2%가 감소한 1,009만 싱가포르 달러, 재수출은 9.3%가 증가한 5,432만 싱가포르 달러로 생산수출과 재수출을 합한 총수출은 1.9%가 증가한 6,441만 싱가포르 달러(약 3,728만 달러)였다. 수입은 25.4%가 증가하여 1,918만 싱가포르 달러(약 1,111만 달러)였다.

재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의 78.7%에서 84.3%로 높아졌다(그림8).

91년 대북한 생산수출은 통신기기가 14.6%, 석유·동제품이 11.1%, 식물성유지가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수출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통신기기(증감기여도 10.9%)였는데 비해 석유·동제품(-25.9%), 설탕·동제조품(-22.9%), 식물성유지(-11.9%)등은 수입감소에 영향을 미쳤다(표15).

재수출에는 실, 직물, 섬유제품(재수출 전체의 18.2%)과 식물성유지(14.4%), 비철금속(12.2%)등의 비율이 높았고, 실, 직물, 섬유제품(증감기여도 11.4%), 산업용기계(10.6%)등의 증가기여도가 높았다.

수입에는 비철금속(수입전체의 21.2%), 기타 조원료(17.8%), 기타 화학품(12.3%)등이 주요 품목이었으며, 기타 조원료(증감기여도 22.3%), 기타 화학품(15.4%) 등의 증가기여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비철금속(-29.3%)은 감소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4) 태국

91년 1월~11월 태국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1% 감소한 3억 1,289만 바아쯔(약 1,227만 달러), 수입은 33.8%가 감소한 4억 1,248만 바아쯔(약 1,619만 달러)였다(표16).

수출 전체의 58.8%는 액화 천연가스가 차지했지만, 수량면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의 3만 3,528톤에서 2만 8,371톤으로 18.2%가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수출 전체의 25.7%를 차지한 싸라기(1만 8,000톤, 89년에는 1만 3,000톤, 90년에는 제로)였다.

수입 전체의 54.4%는 포트랜드시멘트(12만 7,777톤)가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7.0%가 증가하였으며 수량으로 보면 66.3%가 증가하였다. 이것에 이어 철 또는 비합금강인 프렛토를제품(수입전체의 20.8%)은 금액면에서 61.2%감소, 수량면에서는 143.4%나 감소했다. 제3위의 수입품목으로 등장한 것이 어류(수입전체의 12.4%, 황다랭이, 가다랭이)로 1,090톤이 수입되었다.

91년 1월말에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에 향후 2, 3년에 걸쳐 100만톤의 쌀을 태국에서 수입하고 시멘트의 수출을 '91년중에 종래보다 30~40만톤 증가시킬 것과 철강의 수출을 늘리는 것 등을 밝혔지만,¹⁸⁾ 쌀과 시멘트는 증가시키기로 한 목표를 훨씬 밑돌았고 철 또는 비합금강인 프렛토를제품도 전년 같은 기간의 실적을 밑도는 결과를 낳았다.

(5) 인도네시아

91년 인도네시아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전년에 비해 52.8%가 감소한 1,604만 달러, 수입이 52.2%가 감소한 2,493만 달러로 수출입이 모두 큰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9). 무역전체의 축소와 더불어 전년에는 1,816만달러였던 인도네시아의 대북한 무역적자는 890만 달러로 반감했다.

91년 2월에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무역확대 방침을 밝혔지만¹⁹⁾ 실적은 오히려 감소로 나타났다.

주18) Bangkok Post, January 31, 1991 등. 줄고 전체 44페이지 참조

주19) Jakarta Post, February 4, 1991, Business News(Jakarta), February 6, p. 7, February 8, 1991, pp. 5-6. 줄고 전체 46페이지 참조

91년의 품목별 통계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90년까지의 주요 품목별 통계는 표17에서와 같이 89, 90년의 수출에서는 베니아합판 등이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 말레이시아

91년 말레이시아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전년에 비해 183.8%증가한 223만 덩기(약 81만달러)였고 수입은 18.1%가 증가한 3,070만 덩기(약 1,116만달러)로 말레이시아가 2,847만 덩기의 적자를 기록하였다(잠정치, 표18).

수출증가에는 수출 전체의 63.5%를 차지하는 원료별 제품(증감기여도 173.4%)의 증가가, 수입증가에서는 수입 전체의 55.1%를 차지하는 원료별 제품(증감기여도 15.7%)과 20.2%를 차지하는 기계·수송기기(15.6%)의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연형묵 총리가 91년 2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마하테일 수상과 회견했다(동행했던 김복신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은 말레이시아의 무역산업상과,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은 1차산업상과 각각 회견했다).²⁰⁾

(7) 인 도

90/91년도(4월~3월) 인도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21.0%가 증가한 5억 9,680만 루피(약 3,330만달러), 수입은 14.5%가 감소한 3억 9,440만 루피(약 2,200만달러)였다(표19). 91년 4~12월에는 수출이 7억 3,060만 루피, 수입은 2억 980만 루피를 기록하여 루피로 평가한 수출은 늘었으나 이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달러에 대한 루피의 가격이 35.5%가 인하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수년동안 북한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철광의 수출에 힘입은 바가 크다(90/91년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0%). 인도의

주20) 「북조선정책동향」 1991년 제4호(3월 30일), 33~34페이지. New Straits Times, February 5-6, 1991. 줄고 전체, 46페이지 참조.

대북한 철광수출은 이제까지 홍콩에 거주하는 인도인이 신용장(L/C)을 발행하고 있어 북한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불받는 형태는 아니다. 인도에 있어서 북한은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ECGC(Export Credit Guarantee Corporation)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근년에는 프리미엄율도 상승하고 있다. L/C기간이 30일인 경우 91년에는 100루피당 0.60루피였던 것이 92년에는 0.72루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인도로부터의 투자나 합작은 물론 경제원조도 없었다.²⁾

1)

〈중 남 미〉

(8) 멕시코

91년 멕시코의 대북한 무역은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의 921만달러에서 2,656만 달러로 188.4%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447만달러에서 3억149만달러로 1,132.2%가 증가하였다(표20).

수출의 증가는 인조섬유(장(長)섬유) 및 그 직물(증감기여도 50.4%), 프라스틱 및 그 제품(37.0%)등이 특히 공헌하였고 수입에는 전기기기 및 그 부속품, 녹음기등(328.8%), 인조장 섬유 및 그 직물(221.3%)뿐만아니라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등(111.4%, 단, 원자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의 기여가 눈에 띄었지만 다른 주요품목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멕시코로부터의 정보에 따르면 90년 6월에 북한의 기업 사절단이 멕시코를

주21) 제트로 뉴델리사무소 보고

91년 5월 이종욱 부주석이 인솔하는 북한정부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91-92년도 문화교류계획서에 조인했다. 또 92년 5월에도 북한정부 과학기술대표단(김응호 국가과학기술위 부위원장)이 방문했다. 「북조선정책동향」 1991년 제8호(6월 30일), C33-35페이지. 「평양방송」 92년 5월 5일=「북조선뉴스」 1992년 5월 8일.

주22) 제트로 멕시코사무소 보고

방문하여 상공성 등과 회견했다고 한다(북한측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음)²³⁾. 그러나 이 사실과 '91년의 양국 무역격증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92년 3월 북한 외교부대표단(송호경 외교부 부부장)이 멕시코를 방문하여 외교대표부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²⁴⁾

〈구 주〉

(9) 구소련

91년 구소련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 수입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수출은 전년의 10억 5,000만 루블에서 3억 800만 루블로 70.7%가 감소하였고 수입도 7억 2,500만 루블에서 2억 9,900만 루블로 58.8%가 감소했다(표21).

이 통계수치는 「경제와 생활」 1992년 제13호(3월)에 게재된 것(이하 신통계)으로 종래의 「소련의 대외경제관계」 1990년판 등에서 90년 해당분으로 발표되어 온 수치(수출 8억 8,700만루블, 수입 6억 1,200만루블. 이하 구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신통계는 90, 91년도 수치를 90년 11월에 도입된 상업환율(90년 12월시점에서 1달러=1.6458루블, 91년 연간평균 1.7466루블)에 기초하여 산정하였고,²⁴⁾ 구통계는 아마 공정환율(90년 연간평균 0.5847루블)에 기초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소·북한 무역이 종래에는 교환가능 통화를 개입시켜오지 않았다고 되어있는 것과 상업환율이 90년 중반에 도입된 것

주23) 「조선통신」, 1992년 3월 25일. 멕시코와 북한간에는 80년 9월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북한의 주멕시코 대사는 주쿠바대사가, 멕시코의 주북한대사는 주북경대사가 각각 겸임해 왔다. 「북조선정책동향」, 1992년, 제5호(4월 30일) 59페이지.

주24) 「Foreign Trade(Moscow)」 각호에서 '91년 들어서 게재한 '91년 1월~3월, 1월~6월 등의 통계도 상업환율에 기초한 것이다.

등을 고려할 때 신통계로의 개정작업시에 어떠한 환율을 적용했는가가 분명하지 않다²⁵⁾

91년 무역격감의 요인으로서 양국간의 무역제도가 지금까지의 청산방식에서 교환가능통화 및 국제가격에 기초한 결제방식으로 변경된 것과 91년도 무역·경제협력협정은 쌍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상품을 명시한 과도적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쌍방(특히 구소련)이 외화부족으로 인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²⁶⁾

91년 연간 품목별 통계는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1월~9월까지의 통계만을 살펴보면 대북한 수출에는 화물 자동차(수출 전체의 22.8%), 원목(11.1%), 보일러(4.7%), 석탄(4.7%) 등이 주요 품목이었다(표22). 대두, 원목등 작년까지는 통계에 계상되지 않았던 품목도 있지만, 화물 자동차와 에너지관련 품목(석탄, 석유제품)과 같이 수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품목은 이미 커다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에너지의 대북한 공급은 최근 수년간 감소하고 있었지만, 91년 1월~9월에는 석탄이 1만4,000톤, 석유제품은 7,400톤 밖에 공급되지 않았다(표23). 북한당국도 91년의 대소련 원유도입 실적이 전년의 10분의 1정도

주25) 현재 러시아에서는 92년 1월부터 상업환율에 대신하여 '특별상업환율'(기업이 특정한 상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얻었을 경우 그 일부분을 매각할 때에 사용, 92년 1월 현재 55루블)과 '시장환율'(종래의 여행자환율과 옵션레이트에 해당, 110루블)의 두가지 공식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외화관리에관한러시아대통령령」, 「소련동구무역조사월보」 제37권 제1호(1992년 1월), 53페이지. 92년 이후 러시아의 무역통계는 달러로 환산하여 발표된 듯하고, 90, '91년의 상업환율에 기초한 통계는 과도적인 것으로 그 전후와의 정합성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26) 90년 11월 소련은 북한과 「경제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행할 것에 관한 양국간 협정」을 조인하고 교환가능통화, 국제가격에 기초한 방식에서의 이행을 결정했다. '91년 4월에는 1991년도 「무역·경제협력협정」이 조인되었지만, 이 협정에는 쌍무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상품목록이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등 과도적인 내용이었다. 참고 "북조선과 소련과의 무역관계", "구소련·동구제국과의 아시아의 사회주의 각국의 경제관계" 소련동구무역회 소련동구경제연구소, 1992년, 58-60페이지 참조.

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²⁷⁾ 한편 같은 기간의 대북한으로 부터의 수입은 의류·동부속품(수입 전체의 17.8%)이 최대였으며, 다음으로 데이터처리용 디지털프로그램(IC종류일 것으로 생각됨, 15.9%)이 수입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북한은 앞에서 언급했던 신무역협정 외에도, 91년에는 구소련에 있는 각공화국들의 경제분권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각 공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경제공동위원회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표24), 이러한 경향은 연방 붕괴이후 92년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²⁸⁾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대소무역 대부분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이외의 공화국들과의 경제관계 수립이 북한무역에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10) 폴란드

91년 폴란드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전년의 841억 9,000만 즈로치(약 886만 달러)에서 110억 9,800만 즈로치(약105만 달러)로 86.8% 감소하였고, 수입은 623억 2,800만 즈로치(약 656만 달러)에서 983억 2,100만 즈로치(930만 달러)로 57.7% 증가했다(표 25). 그러나 상품의 송장에 기초한 공식무역은 수출이 전년에 비해 88.4% 감소한 97억 7,700만 즈로치, 수입도 58.4% 감소한 256억 2,900만 즈로치로 격감했다. 그외의 것들은 소위 '가방무역'(민간에 의한 잡화 반출입 등에 의한 무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91년부터는 세관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중앙통계국(GUS, Central Statistical Office)의 무역통계에 첨가되었다.)액으로 특히 공식 수입의 약 3배에 가까운 '가방무역'이 행해진 것이 수입전체의 증가에 연결되었다.

89년까지 양국간의 무역은 공식적인 통상의정서에 기초하여 행해져 왔지만, 90년 하반기부터 양방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교섭을 시작하여 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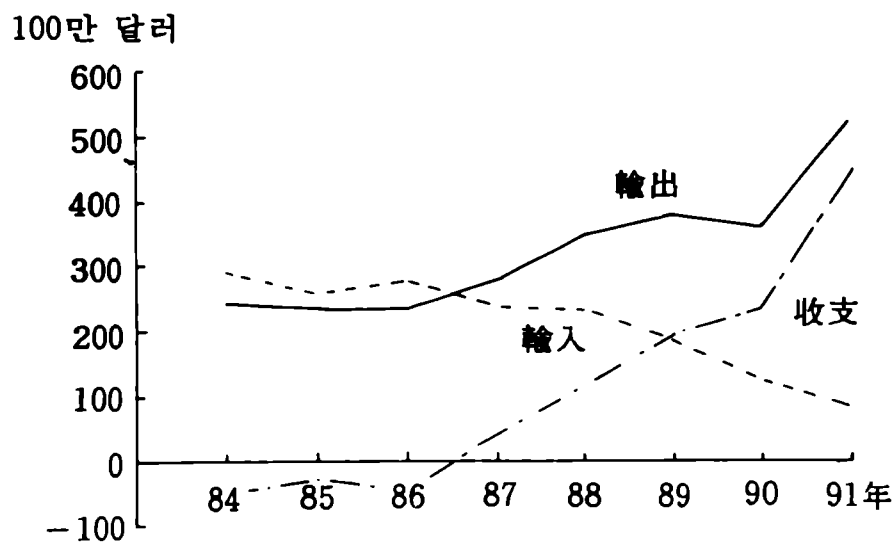
주27) 92년 5월에 김정우 대외사업부 부부장이 일본기자단에 말한 것. 김정우는 90년까지의 대소원유도입량을 70~80만톤이라고 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수입선을 다른나라로 바꾸고 석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통신」 평양발 1992년 2월 23일, 「일본경제신문」 1992년 2월 24일등. 이전 91년 4월 일본을 방문한 북한대외문화연락협회의 정준기 회장은 북한의 석유수입량이 “현재 중국산이 소련산을 상회하고 있으며, 소련으로의 지불은 달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 1991년 4월 11일.

주28) 「북조선정책동향」 1992년, 제9호, 7월 30일, 1~8페이지에, 92년 상반기까지의 북한과 CIS가 맹국과의 외교관계 및 무역협정 체결상황이 통합되어 있다.

5월에 신무역 방식으로의 이행(같은 해 1월부터 실시)과 북한의 대폴란드 채무 변제방법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였다. 90년 235만 루블, 91년 230만루블이었던 북한측의 채무는 상품공급에 의한 변제로 92년말까지는 완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급될 상품의 리스트가 아직 북한측으로부터 제시되지 않고 있어 폴란드측은 92년말까지의 완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대북한 채권을 다른나라에 전매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북한측에서는 폴란드 민간기업의 대북한 채무를 정부간 결제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²⁹⁾

그림6. 중국의 대북한 무역



(출처) 중국 해관통계에 따라 작성

주29) 민간 중소기업에 따른 수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국유 대기업, 외국무역센타들은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관심이 적다. 종래에는 5개의 대기업이 북한에 출장소를 갖고 있었지만 일본의 Metronex(계측기기), Metalexport(기계, 금속제품, 공구), Polish Ocean Lines(PLO, 해운) 등 3개회사가 91년중에 출장소를 폐쇄했다. 남은 회사인 Minex(광물), Bumar(건설기계)는 아직 평양에 출장소를 두고 있지만 계약은 아주 적다. 또 북한과의 유일한 합영기업인 Chopol(북한·폴란드 해운회사)도 곤란한 상황에 있어 폴란드측의 출자자인 해운성과 대장성은 이것을 해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폴란드·북한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72년 10월에 창설된 정부간 위원회에 의해 조정되어 왔다. 최후의 회합(제12차)은 88년 12월 평양에서 열렸다. 다음 회의는 89년 4/4분기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협력 소위원회의 활동은 약간 활발하고 최근에는 91년 7월 16일~19일에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과학기술협력의 원칙과 분야에 대해 안을 교환했다. 폴란드측은 파견 전문가의 경비에 대해서 선금을 지불하도록 제안했지만 북한측의 회답은 없었던 듯하다(제트로 바르샤바사무소).

표11. 중국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8년	89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기여도	
수 출	34,535	37,737	35,816	100.0	52,478	100.0	46.5	46.5
0 식료품·동물	3,435	7,576	5,068	14.2	5,499	10.5	8.5	1.2
04 곡물·동조정품	2,257	4,459	3,093	8.6	2,542	4.8	-17.8	-1.5
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재료(광물성 연료는 제외)	5,987	4,787	4,511	12.6	4,064	7.7	-9.9	-1.2
3 광물성연료·운활유·이들에 유사한 것	17,449	14,476	13,806	38.5	22,597	43.1	63.7	24.5
32 석탄·코크스·연탄	9,093	7,285	7,106	19.8	8,029	15.3	13.0	2.6
33 석유·석유제품 및 관련원료	8,355	7,192	6,697	18.7	14,568	27.8	117.5	22.0
5 화학공업 생산품	1,499	2,868	3,679	10.3	4,308	8.2	17.1	1.8
6 원료별제품	2,809	3,300	4,402	12.3	6,542	12.5	48.6	6.0
7 기계·수송기계	2,587	3,036	3,006	8.4	4,440	8.5	47.7	4.0
8 잡제품	526	883	604	1.7	3,811	7.3	531.0	9.0
9 특이 취급품	127	659	617	1.7	881	1.7	42.8	0.7
수 입	23,367	18,535	12,457	100.0	8,567	100.0	-31.2	-31.2
0 식료품·동물	3,834	2,873	2,029	16.3	853	10.0	-58.0	-9.4
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재료(광물성 연료는 제외)	3,666	3,503	1,790	14.4	2,293	26.8	28.1	4.0
3 광물성 연료·운활유·이들에 유사한 것	5,779	5,149	3,341	26.8	2,850	33.3	-14.7	-3.9
32 석탄·코크스·연탄	5,708	4,852	3,279	26.3	2,718	31.7	-17.1	-4.5
5 화학공업생산품	1,530	691	372	3.0	904	10.6	143.0	4.3
6 원료별 제품	8,856	5,986	4,638	37.2	1,577	18.4	-66.0	-24.6
66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2,789	1,933	795	6.4	139	1.6	-82.5	-5.3
67 철광	3,912	2,951	3,476	27.9	1,076	12.6	-69.0	-19.3
68 비철금속	2,001	1,010	306	2.5	330	3.9	7.8	0.2
9 특이 취급품	9	238	181	1.5	46	0.5	-74.6	-1.1

(단위) 달러, %.

표12. 중국의 대북한 원유수출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증감율
대북조선	수 량	1,223	1,237	1,202	1,073	1,063	1,102	3.7
	금 액	78,495	78,201	75,534	64,600	61,310	139,347	127.3
	단 가	64	63	63	60	58	126	117.2
대 세계	수 량	28,498	27,223	26,045	24,388	23,979	22,600	-5.7
	금 액	2,391,546	3,140,970	2,557,182	2,750,059	3,401,861	2,956,790	-13.1
	단 가	84	115	98	113	142	131	-7.7

(단위) 수량 1,000톤, 금액 1,000달러, 단가 달러/톤, 증감율%.

(주) 단가는 금액을 수량으로 단순하게 나눈것.

(출처) 「중국해관통계적요」, 「중국해관통계연감」각호에 의거 작성

표13. 북한·중국관계 주요사항(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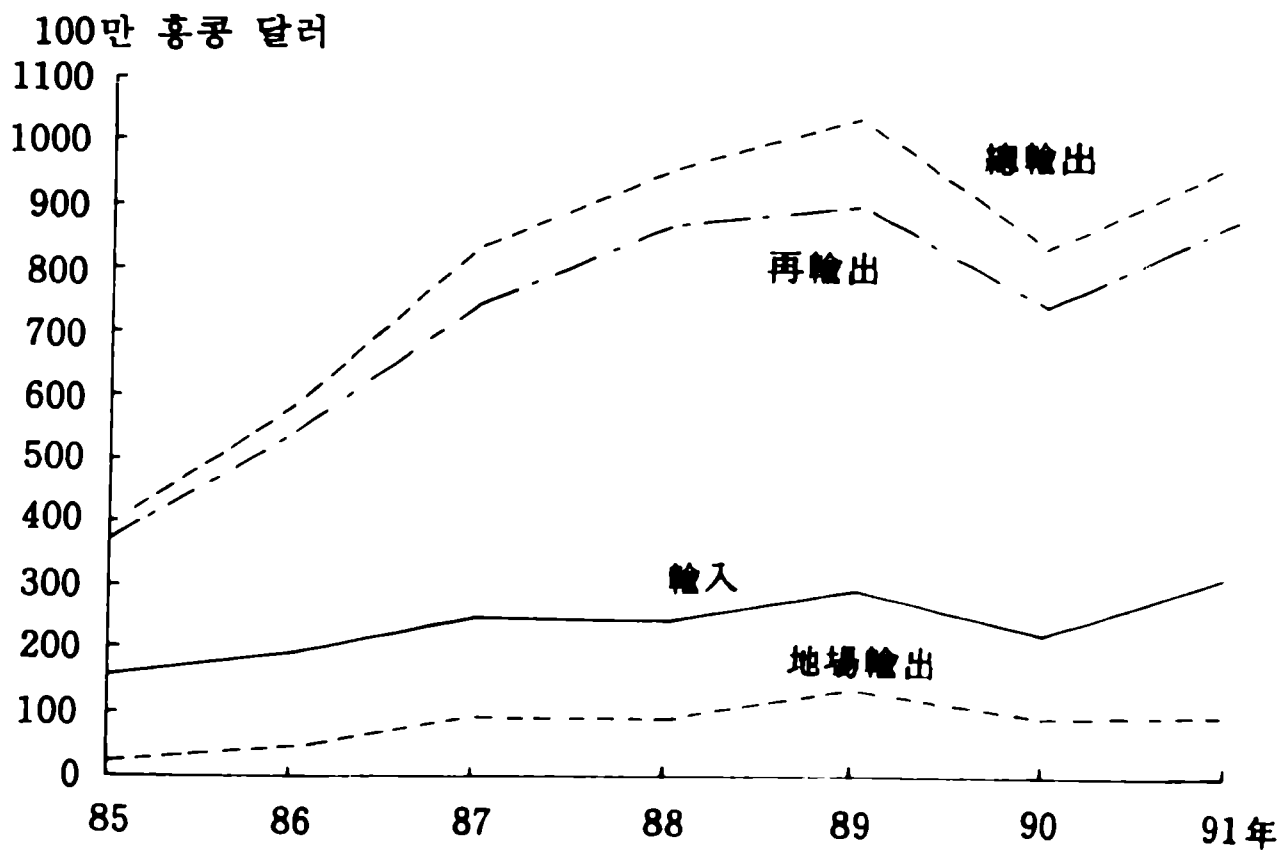
1.15~1.22	김용순 조선노동당중앙위서기일행 방중. 朱良 중국공산당중앙위 대외 연락부 부장과 회담, 강택민 총서기와 회견
1.22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이르는 표평(양강도)나룻터 개통식
3. 4~3.14	정부 무역대표단(한수길 무역부 부부장) 중국방문. 조·중 정부간 91년도 상품교류 의정서 조인.
4.13	조·중 친선 전자계산기 기술간부양성센터 개소식,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 중국 국가과학기술위 대표단(惠永正 동위원회 부주임)등 참석.
4.18	조·중 국경하천운항협력위 제30회 회의 합의서 신의주에서 조인.
5. 3~5. 6	이봉 수상, 연형묵 총리의 초청으로 북한방문
5. 7~5.22	중국공산당중앙위 정치이론지 「求是」대표단(吳建國 부편집장), 북한 방문. 김용순 서기와 회견
6.17	錢基深외상, 김영남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평양도착.
7.18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30주년을 기념하는 조·중 친선 주간 개막집회 평양에서 개최.

7.30	중국을 방문하는 당대표단(최태복 정치국위원후보·서기), 평양출발. 북경에서 李鐵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국무위원, 강택민 총서기와 회견
8.19~8.26	朱良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북한방문. 김용순서기. 김일성과 회견.
8.27	정부과학기술협력대표단(김용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중국방문
8.21	중국유색금속공업총공사 대표단(吳建常 부총경리), 김일성과 회견
10.4~10.13	김일성,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양상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방문
10.22	중국국제신타투자공사(CITIC)대표단(鄭贊方 중국 국제신타투자공사 부총경리), 김일성과 회견
12.12	오진우 정치국 상무위원·인민무력부장, 북경에서 양상곤 국가주석·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과 회견. 12.13일 강택민 총서기와 회견

(주) 일자 는 북한 출발일~귀국일이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등 북한의 공식보도를 「조선통신」, 「북조선 뉴우스」, 「북조정책동향」 등에서 재인용하여 작성.

표7. 홍콩의 대북한 무역



(출처)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ong Kong Trade Statistics, Annual Supplement에 의거 작성

표14. 홍콩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8년	89년	90년	91년			
					구성비	증감율	기여도
수 출	87,753	135,944	94,039	96,045	100.0	2.1	2.1
0 식료품·동물	1,038	298	5,259	3,439	3.6	-34.6	-1.9
06 당류·동조정품	136	48	3,564	307	0.3	-91.4	-3.5
09 기타 식용의 생산품·조정품	50	38	1,106	1,505	1.6	36.1	0.4
1 음료, 담배	4,455	3,618	6,037	8,356	8.7	38.4	2.5
11 음료	1,365	3,486	5,789	8,247	8.6	42.5	2.6
12 담배	3,090	133	248	108	0.1	-56.5	-0.1
5 화학공업품	1,329	2,932	8,009	12,471	13.0	55.7	4.7
53 염료, 무두질재료, 안료, 도료, 충전제	306	1,609	1,399	319	0.3	-77.2	-1.1
58 인조 플라스틱	664	1,092	6,452	11,884	12.4	84.2	5.8
6 원료별 제품	19,667	25,507	20,263	21,424	22.3	5.7	1.2
64 종이, 판지, 이들의 제품	370	193	380	1,230	1.3	223.7	0.9
65 직물용 섬유의 실, 직물, 섬유제품	17,366	22,861	16,790	18,045	18.8	7.5	1.3
69 기타 금속제품	1,481	2,377	2,232	2,047	2.1	-8.3	-0.2
7 기계, 수송기기	26,895	39,125	9,648	5,339	5.6	-44.7	-4.6
72 특정산업용기계	896	5,329	160	1,160	1.2	625.0	1.1
76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음성녹음·재생기기	23,386	29,200	6,784	2,500	2.6	-63.1	-4.6
77 기타 전기기기	1,616	3,670	2,010	296	0.3	-85.3	-1.8
8 잡제품	33,752	63,423	43,390	43,510	45.3	0.3	0.1
83 여행용구	1,330	3,744	1,261	408	0.4	-67.7	-0.9
84 의류, 동부속품	18,119	10,626	7,259	5,997	6.2	-17.4	-1.3
85 신발	240	18,471	361	636	0.7	75.9	0.3
87 광학기리류, 의료용기기, 정밀기기류	11	161	0	1,028	1.1	-	1.1
88 사진용장치·기기, 광학용기기, 시계	2,802	7,852	3,949	3,263	3.4	-17.4	-0.7
89 기타 잡제품	9,584	21,976	29,590	31,638	32.9	6.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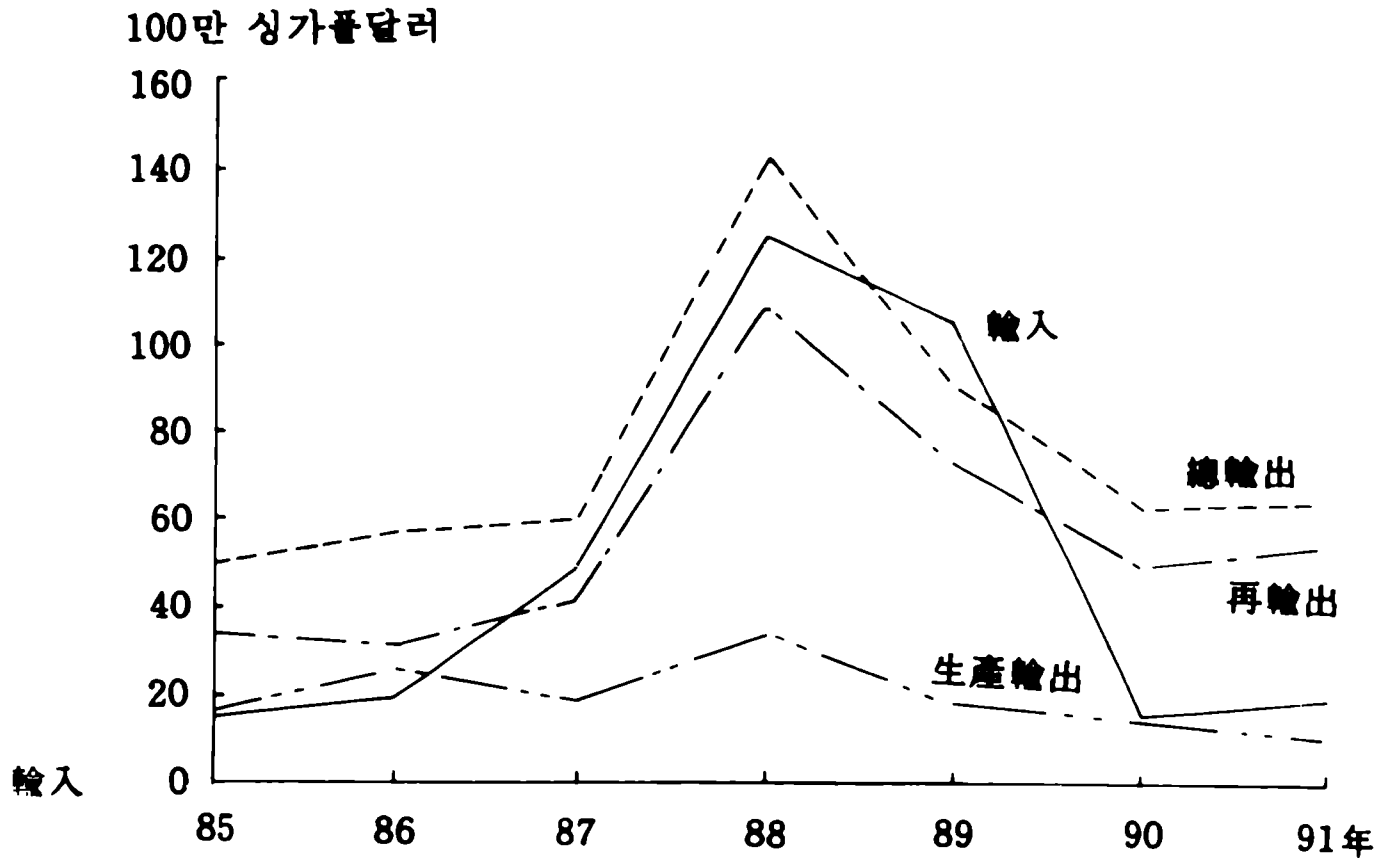
	88년	89년	90년	91년			
					구성비	증감율	기여도
9 특이취급품	612	964	1,359	1,207	1.3	-11.2	-0.2
재수출	866,561	899,673	744,801	873,848	100.0	17.3	17.3
0 식료품·동물	13,823	25,389	18,560	47,264	5.4	154.7	3.9
05 야채, 동과실	1,967	3,214	4,928	9,708	1.1	97.0	0.6
06 당류, 동조정품	2,608	4,767	2,642	13,177	1.5	398.8	1.4
1 음료, 담배	20,789	29,047	23,146	43,916	5.0	89.7	2.8
11 음료	12,468	16,144	11,360	14,851	1.7	30.7	0.5
12 담배	8,322	12,903	11,786	29,064	3.3	146.6	2.3
2 비식용원재료	64,558	61,293	47,675	46,870	5.4	-1.7	-0.1
26 직물용섬유, 동부산물	44,577	55,068	38,592	40,392	4.6	4.7	0.2
5 화학공업품	180,763	94,964	71,856	73,521	8.4	2.3	0.2
51 유기화합물	16,369	18,762	13,311	21,775	2.5	63.6	1.1
52 무기화합물	7,541	13,755	9,677	5,748	0.7	-40.6	-0.5
53 염료, 무두질재료, 안료, 도료, 충전제	7,796	11,032	12,114	7,705	0.9	-36.4	-0.6
58 인조플라스틱	140,626	41,150	25,906	32,040	3.7	23.7	0.8
6 원료별제품	409,795	375,931	391,027	391,578	44.8	0.1	0.1
64 종이, 판지, 이들의 제품	40,599	28,095	15,943	12,534	1.4	-21.4	-0.5
65 직물용 섬유의 실, 직물, 섬유제품	203,923	268,629	267,461	309,313	35.4	15.6	5.6
67 철광	87,795	49,283	73,795	48,526	5.6	-34.2	-3.4
68 비철금속	61,652	14,213	16,451	10,867	1.2	-33.9	-0.7
69 기타 금속제품	3,398	6,323	7,511	5,250	0.6	-30.1	-0.3
7 기계, 수송기기	105,125	193,453	99,552	153,651	17.6	54.3	7.3
72 특정산업용기계	29,732	32,644	32,489	58,931	6.7	81.4	3.6
74 일반산업용기기, 동부품	10,631	9,738	8,354	9,651	1.1	15.5	0.2
75 사무용기기, 자동데이터처리 기	2,584	8,894	6,326	10,707	1.2	69.3	0.6
76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음성 녹음, 재생기기	43,217	117,842	32,113	43,559	5.0	35.6	1.5
77 기타 전기기기	4,264	8,066	5,437	16,641	1.9	206.1	1.5

	88년	89년	90년	91년			
					구성비	증감율	기여도
78 도로주행차량	10,782	9,146	7,083	6,923	0.8	-2.3	0.0
8 잡제품	62,315	113,703	83,491	110,091	12.6	31.9	3.6
81 가내위생용품, 난방기구, 조명기구	715	21,372	7,845	794	0.1	-89.9	-0.9
84 의류, 동부속품	24,413	44,088	40,422	59,602	6.8	47.5	2.6
8 사진용장치·기기, 광학용기기, 시계	15,089	18,786	12,253	12,615	1.4	3.0	0.0
수입	240,751	293,560	220,769	310,168	100.0	40.5	40.5
0 식료품·동물	28,705	27,240	10,618	23,095	7.4	117.5	5.7
03 어패류, 동조정품	19,994	13,762	6,814	2,564	0.8	-62.4	-1.9
05 야채, 과일	7,263	11,740	2,661	18,912	6.1	610.7	7.4
1 음료, 담배	0	3,761	280	232	0.1	-17.1	0.0
11 음료	0	3,436	280	91	0.0	-67.5	-0.1
2 비식용원재료	49,406	110,996	53,885	89,901	29.0	66.8	16.3
26 식물용섬유, 동 부산물	32,348	75,747	26,143	34,179	11.0	30.7	3.6
29 기타동물성 또는 식물성원료	16,253	35,054	26,622	55,029	17.7	106.7	12.9
3 광물성 연료	23,148	15,816	22,125	0	0.0	-100.0	-10.0
33 석유, 석유제품, 관련원료	23,148	15,816	22,125	0	0.0	-100.0	-10.0
5 화학공업품	35,117	8,912	11,657	16,424	5.3	40.9	2.2
55 정유·향료·화장품·세제·광택료	179	5,133	4,737	3,810	1.2	-19.6	-0.4
58 인조 플라스틱	34,937	3,405	4,737	9,678	3.1	104.3	2.2
6 원료별제품	65,236	90,887	68,040	94,034	30.3	38.2	11.8
65 식물용 섬유, 실, 직물, 섬유제품	7,489	4,409	5,653	10,292	3.3	82.1	2.1
66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63	3,946	3,161	0	0.0	-100.0	-1.4
67 철강	31,734	29,458	11,585	6,189	2.0	-46.6	-2.4
68 비철금속	25,189	51,134	47,187	74,792	24.1	58.5	12.5

(단위) 1,000KH달러

(출처) 그림 7과 동일

그림8. 싱가포르의 대북한 무역



(출처) Singapore Trade Statistics Imports and Exports 각호에 따라 작성

표15. 싱가포르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9년	90년	91년		증가율	기여도	
			구성비	구성비			
수 출	18,413	13,474	100.0	10,085	100.0	-25.2	-25.2
03 설탕·동조제품		3,084	22.9		0.0	-100.0	-22.9
26 섬유실·부산물			0.0	8	0.1	-	0.1
28 금속광·부산물			0.0	993	9.8	-	7.4
33 석유·동제품*	5,324	4,612	34.2	1,118	11.1	-75.8	-25.9
42 식물성 유지	3,811	2,636	19.6	1,034	10.3	-60.8	-11.9
43 기타 동식물유	1,398		0.0	0	0.0	-	0.0
51 유기화학품		16	0.1	645	6.4	3931.3	4.7
52 무기화학품	660	1,114	8.3		0.0	-100.0	-8.3
57 1차형태의 플라스틱	264		0.0	127	1.3	-	0.9
58 비1차형태의 플라스틱	4,646		0.0		0.0	-	0.0
59 기타 화학품			0.0	542	5.4	-	4.0
64 제지품	114	79	0.6		0.0	-100.0	-0.6

	89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기여도	
65 실, 직물, 섬유제품	456	75	0.6		0.0	-100.0	-0.6
68 비철금속	1		0.0	79	0.8	-	0.6
74 일반산업용기계		22	0.2		0.0	-100.0	-0.2
75 사무·데이터처리기	728	477	3.5	904	9.0	89.5	3.2
76 통신기기			0.0	1,472	14.6	-	10.9
77 전기기기등	142		0.0		0.0	-	0.0
재수출	72,767	49,711	100.0	54,324	100.0	9.3	9.3
23 생고무(합성고무 포함)	13,131	5,889	11.8	4,136	7.6	-29.8	-3.5
26 섬유실·부산물			0.0	1,883	3.5	-	3.8
27 비료·조광물	2,248		0.0	0	0.0	-	0.0
28 금속광·부산물	1,223		0.0	1,459	2.7	-	2.9
29 기타 조원료			0.0	28	0.1	-	0.1
33 석유·동제품*	290	461	0.9	561	1.0	21.7	0.2
42 식물성 유지	9,087	9,889	19.9	7,820	14.4	-20.9	-4.2
43 기타 동식물유	4,214	4,514	9.1	0	0.0	-100.0	-9.1
51 유기화학품		3,309	6.7	2,591	4.8	-21.7	-1.4
52 무기화학품	1,724	1,310	2.6		0.0	-100.0	-2.6
57 1차형태의 플라스틱	1,164		0.0	2,133	3.9	-	4.3
58 비1차형태의 플라스틱	101		0.0		0.0	-	0.0
59 기타 화학품			0.0	166	0.3	-	0.3
64 종이제품	4,655	4,070	8.2		0.0	-100.0	-8.2
65 실, 직물, 섬유제품	5,620	4,221	8.5	9,893	18.2	134.4	11.4
67 철광	1,337		0.0		0.0	-	0.0
68 비철금속	9,450	4,867	9.8	6,643	12.2	36.5	3.6
69 기타 금속제품	330		0.0		0.0	-	0.0
72 산업용기계			0.0	5,275	9.7	-	10.6
74 일반 사업용기계		1,442	2.9		0.0	-100.0	-2.9
75 사무·데이터처리기	2,985	870	1.8	529	1.0	-39.2	-0.7
76 통신기기			0.0	893	1.6	-	1.8
77 전기기기등	1,314		0.0		0.0	-	0.0
79 수송기기			0.0	2,800	5.2	-	5.6

	89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기여도	
93 특이취급품	2,367	1,989	4.0		0.0	-100.0	-4.0
수 입	105,526	15,299	100.0	19,194	100.0	25.5	25.5
03 설탕·동조제품		19	0.1	0	0.0	-100.0	-0.1
23 생고무(합성고무 포함)		16	0.1	190	1.0	1087.5	1.1
28 금속광·부산물	169		0.0	109	0.6	-	0.7
29 기타 조원료			0.0	3,412	17.8	-	22.3
33 석유·동제품*	820		0.0	0	0.0	-	0.0
51 유기화학품		24	0.2	16	0.1	-33.3	-0.1
52 무기화학품		173	1.1	0	0.0	-100.0	-1.1
57 1차형태의 플라스틱	5,711		0.0	1,122	5.8	-	7.3
58 비1차형태의 플라스틱	315		0.0	0	0.0	-	0.0
59 기타 화학품			0.0	2,352	12.3	-	15.4
64 종이제품	156	72	0.5	0	0.0	-100.0	-0.5
65 실, 직물, 섬유제품	260	300	2.0	803	4.2	167.7	3.3
67 철강	920		0.0	0	0.0	0	0.0
68 비철금속	91,598	8,549	55.9	4,072	21.2	-52.4	-29.3
69 기타 금속제품	1,621		0.0	0	0.0	-	0.0
72 산업용기계			0.0	214	1.1	-	1.4
74 일반산업용기계		161	1.1	0	0.0	-100.0	-1.1
75 사무·데이타처리기	6	199	1.3	393	2.0	97.5	1.3
76 통신기기			0.0	371	1.9	0	2.4
77 전기기기등	771		0.0	1,798	9.4	0	11.8
93 특이취급품	5	52	0.3	0	0.0	-100.0	-0.3

(단위) 1,000싱가폴달러, %.

(주) *해당품목의 '91년 총수출의 대부분은 선박용 연료(409,000싱가폴달러, 1,830톤), 윤활유(894,000싱가폴달러, 1,003톤)가 차지하고 있고, 원유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출처) 그림8과 같음.

표16. 태국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단 위	90년 1월~12월			90년 1월~11월		91년 1월~11월			
		수 량	금 액	구성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구성비	증감율
수 출		-	315,882	100.0	-	313,213	-	312,891	100.0	-0.1
0307490123 오징어, 냉동한 것	본	12	1,734	0.5	0	0	0	0	0.0	-
0714100204 카사바 감자	본	5,070	6,576	2.1	5,070	6,576	3,633	4,423	1.4	-32.7
100640 싸라기	본	0	0	0.0	0	0	18,000	80,293	25.7	-
170111 감자당	본	5,030	33,865	10.7	5,030	33,865	0	0	0.0	-100.0
170199 그로눌당	본	0	0	0.0	0	0	3,053	21,536	6.9	-
1703109009 감자당밀	본	1,775	2,006	0.6	1,775	2,006	0	0	0.0	-100.0
2520100105 천연석고	본	30,600	8,277	2.6	30,600	8,277	0	0	0.0	-100.0
2611000102 텅스텐광	본	59	4,029	1.3	59	4,029	15	1,020	0.3	-74.7
2711110005 액화천연가스	본	33,528	206,055	65.2	33,528	206,055	28,371	183,880	58.8	-10.8
4001 천연고무	본	2,200	44,705	14.2	2,200	44,705	30	604	0.2	-98.6
4108900100 티크의 얇은판 및 합판용 단판	본	17	2,047	0.6	17	2,047	0	0	0.0	-100.0
847330008 제8472항의 기기 부품 및 부속품	키로그램	135	519	0.2	135	519	3,016	4,612	1.5	788.5
854290 집적회로 및 초소형 조립의 부속품	키로그램	0	0	0.0	0	0	2	2,401	0.8	-
860900 콘테이너	개	0	0	0.0	0	0	50	3,615	1.2	-
수 입		-	700,032	100.0	-	623,881	-	412,836	100.0	-33.8
0303 어류	본	0	0	0.0	0	0	1,090	51,294	12.4	-
030347009 황다랭이 다랑어	본	0	0	0.0	0	0	440	20,706	5.0	-
030343004 가다랭이	본	0	0	0.0	0	0	650	30,588	7.4	-
2523290000 기타 포트랜드 시멘트	본	64,602	116,930	16.7	43,052	68,659	127,777	224,492	54.4	227.0

	단 위	90년 1월~12월			90년 1월~11월			91년 1월~11월			증감율
		수 량	금 액	구성비	수 량	금 액	구성비	수 량	금 액	구성비	
		32,667	213,994	30.6	32,667	213,994	0	0	0.0	-100.0	
2710 석유 및 역청유 및 이들의 조성품	톤	100	3,173	0.5	100	3,173	82	2,546	0.6	-19.8	
2803 아세틸렌·블랙	톤	91	92,035	13.1	88	88,805	14	11,585	2.8	-87.0	
5002 생사	톤	2	1,138	0.2	2	1,138	0	0	0.0	-100.0	
5003 건의 부산물											
5407 합성섬유의 장 섬유실의 직물	평방야드			0.0			52,520	1,458	0.4	-	
7204 철강의 부산물 및 철강의 재용해 용의 주괴(鑄塊)	톤	2,570	19,544	2.8	2,570	19,544	2,386	16,650	4.0	-14.8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플랫폼롤 제품	톤	32,524	245,420	35.1	29,067	220,769	11,944	85,708	20.8	-61.2	
841370001 기타 원심펌프	개	0	0	0.0	0	0	20	11,504	2.8	-	
8431310009 승강기용 부품	본	10	1,447	0.2	10	1,447	0	0	0.0	-100.0	
847300008 제8472항의 기기의 부품 및 부속품	키로그래프	0	0	0.0	0	0	456	1,022	0.2	-	

(단위) 1,000바쯔, %.

(주) 증감율은 91년 1월~11월과 90년 1월~11월을 금액기준으로 비교한 것.

(출처) 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s 통계에 의해 작성.

그림9. 인도네시아의 대북한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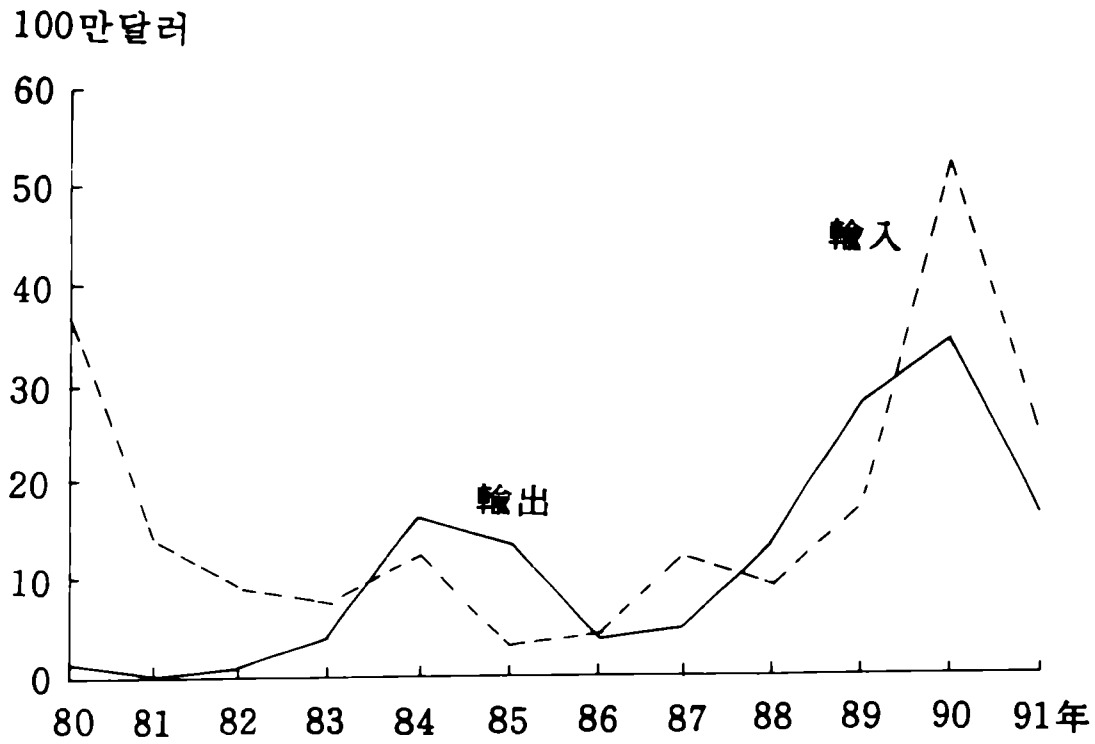


표17. 인도네시아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8년	89년	90년	구성비
수 출	13,135	27,872	33,997	100.0
061 당류, 꿀	-	-	342	1.0
071 커피등	8,468	627	109	0.3
251 펄프, 종이부산물	-	1,532	1,532	4.5
284 니켈광, 동정광	-	637	-	-
562 비료	1,461	-	-	-
634 베니아합판등	2,526	26,201	31,905	93.8
수 입	9,023	16,935	52,153	100.0
222 채유용종, 과실	4,365	-	952	1.8
511 탄화수소등	20	954	947	1.8
611 가죽	-	343	464	0.9
636 아연	-	-	536	1.0
672 철강 주괴등	323	651	9,884	19.0
673 철강봉, 형강	-	201	7,126	13.7
692 금속의 용기	0	-	391	0.7
724 석유·피혁용원료	61	740	693	1.3

	88년	89년	90년	
				구성비
728 기타 산업용기계	40	372	774	1.5
733 금속가공용기기공구	-		6,228	11.9
741 가열·냉각용장치	46	1,743	302	0.6
745 기타 기기등	9	254	8,773	16.8
782 화물·특수용도 자동차	-		2,422	4.6
874 계측·제어기기등	15		720	1.4
961 화폐(금화, 통화를 제외)	1,925	3,973	6,420	12.3

(단위) 1,000달러, %.

(주) SITC분류

(출처) Biro Pusat Statistik, statistik Peralagangan Nuar Negeri Indonesia(Indonesia Foreign Trade Statistics)에 따라 작성

표18. 말레이시아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9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기여도
수	3,234	785	100.0	2,228	100.0	183.8	183.8
식료품·동물	348	25	3.2	137	6.1	448.0	14.3
비식용원료	828	305	38.9	253	11.4	-17.0	-6.6
광물용원료	853	-	-	310	13.9	-	-
화학제품	53	43	5.5	5	0.2	-88.4	-4.8
원료별제품	139	54	6.9	1,415	63.5	2520.4	173.4
기계·수송기기	692	269	34.3	14	0.6	-94.8	-32.5
잡제품	315	72	9.2	94	4.2	30.6	2.8
수	6,196	25,988	100.0	30,697	100.0	18.1	18.1
비식용원료	28	1,042	4.0	724	2.4	-30.5	-1.2
화학제품	818	9,303	35.8	4,653	15.2	-50.0	-17.9
원료별제품	1,709	12,848	49.4	16,919	55.1	31.7	15.7
기계·수송기기	2,645	2,134	8.2	6,198	20.2	190.4	15.6
잡제품	908	479	1.8	2,061	6.7	330.3	6.1

(단위) 1,000링기, %.

(주) 91년도는 잠정치

(출처) External Trade Statistics Malaysia동에 따라 제트로 쿠알라룸푸르사무소 작성

표19. 인도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8/89	89/90	90/91	구 성 비	
				구 성 비	증가율
수 출	398.4	493.3	596.8	100.0	21.0
	(27.0)	(29.9)	(33.3)		11.4
철 광	140.1	189.1	268.5	45.0	42.0
기 타 금 속 광	34.9	50.3	20.3	3.4	-59.6
피 혁 · 동 제 품	54.7	17.5	54.3	9.1	210.3
기 초 화 학 품	80.9	163.1	4.7	0.8	-97.1
기 타	87.4	73.3	249.0	41.7	239.7
수 입	668.7	461.1	394.4	100.0	-14.5
	(46.1)	(27.9)	(22.0)		-21.1
전 기 기 계	199.9	142.9	75.4	19.1	-47.2
철 강 제 품	72.6	102.9	50.5	12.8	-50.9
비 철 금 속	207.1	47.0	2.0	0.5	-95.7
수 송 기 기	21.1	30.7	39.6	10.0	29.0
기 타	168.0	137.6	226.9	57.5	64.9

(단위) 100만루pee, ()안은 100만달러, %.

(주) 연도는 4월~3월

(출처) 상업성 통계에 따라 제트로 뉴델리사무소 작성.

표20. 멕시코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88년	89년	90년	91년		증감율	기여도
				구성비	구성비		
수 출	41,737	19,354	9,212	100.0	26,563	100.0	188.4
26 광석, 광석가루	20,699	8,213	0	0.0	0	0.0	-
27 광물성 연료	1,650	0	0	0.0	194	0.7	-
29 유기화학품	4,332	8,684	6,396	69.4	6,874	25.9	7.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37	863	233	2.5	3,640	13.7	1462.2
47 목재 펄프, 기타 펄프 및 고지(古紙)	10,168	459	0	0.0	0	0.0	-
52 면 및 면직물	1,024	0	1,234	13.4	953	3.6	-22.8
54 인조섬유의 장섬유 및 그 직물	36	0	0	0.0	4,645	17.5	-
78 납 및 그 제품	1,541	0	0	0.0	1,771	6.7	-
79 아연 및 그 제품	181	0	0	0.0	1,445	5.4	-
수 입	43,870	28,587	24,467	100.0	301,494	100.0	1132.2
29 유기화학품	41	118	26	0.1	3,527	1.2	13465.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7	277	185	0.8	21,847	7.2	11709.2
40 고무 및 그 제품	29	134	255	1.0	10,361	3.4	3963.1
42 가죽제품	13	116	224	0.9	1,017	0.3	354.0
52 면 및 면직물	1	43	47	0.2	1,745	0.6	3612.8
54 인조섬유의 장섬유 및 그 직물	215	411	716	2.9	54,852	18.2	7560.9
55 인조섬유의 단섬유 및 그 직물	711	466	302	1.2	24,705	8.2	8080.5

	88년	89년	90년	91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기여도	
58 특수직물, 타프테트 직물류, 레이스 기운직물, 트리밍 및 자수천	0	19	33	0.1	1,075	0.4	3157.6	4.3
60 메리야스 직물 및 크로세직물	0	3	0	0.0	1,590	0.5	-	6.5
62 의류 및 의류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크로세편물에 한함)	95	450	581	2.4	3,434	1.1	491.5	11.7
64 신발 및 각반 기타 이것과 비슷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86	1,908	898	3.7	10,934	3.6	1117.9	41.0
71 진주, 귀속, 반귀석, 귀금속 및 귀금속을 붙인 금속 및 이들의 제품. 신변용 모조세화류 및 화폐	9	31	142	0.6	1,098	0.4	673.6	3.9
72 철강	45	135	36	0.1	9,675	3.2	27007.4	39.4
73 철강제품	47	96	85	0.3	2,279	0.8	2567.1	9.0
84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851	1,356	1,752	7.2	29,002	9.6	1555.3	111.4
85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및 녹음기	35,629	21,414	17,368	71.0	97,803	32.4	463.1	328.8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340	384	92	0.4	2,198	0.7	2277.6	8.6
95 완구, 오락기구 및 운동용구	219	219	323	1.3	4,397	1.5	1261.6	16.7
96 잡품	7	57	167	0.7	1,249	0.4	648.8	4.4

(단위) 1,000달러, %.

(출처) 멕시코 상공성통계에 따라 작성.

표21. 구소련의 대북한 무역

	구 통 계	신 통 계		증 감 율
	90년	90년	91년	
수 출	887	1,050	308	-70.7
수 입	612	725	299	-58.8
대 달 러 환 율	0.5847	1.6458	1.7466	-

(주) 구통계는 91년에 발표된 것이고, 신통계는 92년에 발표된 것임. 후자는 상업환율(90년 11월에 도입)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다. 즉, 상업환율의 신통계에서 90년은 90년 12월 시점이고, 91년은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였음(러시아경제연구소에 의함).

(출처) 「소련의 대외경제관계」 1990년판, 「경제와 생활」 1992년 제13호.

표22. 구소련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단 위	90년	91년 1월-6월		91년 1월-9월		
		수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성비
수 출				223		298	100.0
대두	1,000톤	-	11	4.7	22	9.3	3.1
석탄	1,000톤	682	119	8.9	184	14	4.7
석유제품	1,000톤	509	5.1	2.3	20	7.4	2.5
고무, 동제품		-		2.8		2.9	1.0
원목	1,000립매	-	932	18	2,149	33	11.1
목면섬유	1,000톤	-	4.5	8.2	5	7.4	2.5
보일러		-		14		14	4.7
전로(용광로의 한가지)		-		2.9		2.9	1.0
화물자동차	1,000대	8.6	2	51	2.8	68	22.8
노역		-		4.4		6	2.0
수 입				228		270	100.0
칼슘 카바이드	1,000톤	-	10	2.4	21	7.3	2.7
의료·동부속품 (메리야스틀 제외)		-		31		48	17.8
가죽신발의 갑피 반제품	1,000족	-	607	4.4	850	8.3	3.1
마그네사이트제품	1,000톤	303	47	13	78	16	5.9

	단 위	90년	91년 1월-6월		91년 1월-9월		
		수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성비
철강류	대	-	-	3.2	-	3.2	1.2
데이터처리 디지털 블럭		-	2,000	43	2,000	43	15.9
정보처리용 자동기기부품· 부속품		-	-	111	-	111	41.1

(단위) 100만 외국무역루블, %.

(주) 90년의 석유제품은 원유(41만톤), 석유제품·합성액체연료(9만 9,000톤)의 합계. 마찬가지로 마그네사이트제품은 마그네사이트크링카.

(출처) 러시아국가통계위원회, 「분기별통계 제9호-소련의 대외경제관계」. 단, 90년의 수량은 「소련의 대외경제관계」 1990년판.

표23. 소련의 대북한 에너지 관련 수출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1~9월
고 체 연 료	817	1,021	1,037	939	827	-
석 탄 · 무 연 탄	591	790	800	749	682	184
석 탄 코 크 스	226	231	237	190	145	-
원 유 · 석 유 제 품	1,000	946	768	610	509	7.4
원 유	855	800	640	506	410	-
석유제품·합성액체연료	145	146	128	104	99	-

(단위) 1,000톤

(주) 91년 1월~9월의 원유·석유제품은 석유제품

(출처) 90년까지는 「소련의 대외경제관계」 매년판에 따라 작성.

91년 1월~9월은 표21과 같음.

표24. 북한·소련관계 주요사항(1991년)

1.10~1.14	소련 군사대표단(코체토프 제1국방차관) 북한방문
1.11	소련의 신임 주북한대사 카쁘토, 이종옥 부주석에게 신임장 제정(통상 김일성에게 제정하였음)
1.20~1.28	베라르시공화국정부 무역대표단 북한방문, 무역·경제공동위 창설에 관한 협정에 조인
2.23	조·소 수산분야공동위 제4차회의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3.17	「로동신문」, “조·소경제·문화협정 정신의 발전을 믿는다” 제목의 논설 게재
3.18	조소합영회사인 「조소해운유한공사」, 평양에서 발족
3.18~3.26	크로그로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의장 북한방문. 경제·과학기술협의회위원회 과학기술협력상설분과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서등 조인
4.1~4.19	정부경제대표단(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트르크멘, 키르기스, 타지크 공화국 방문. 각각 무역·경제협력협정 조인
4.24	베라르시 공화국과의 무역·경제협력협정을 최근 민스크에서 조인(송희철 무역부 부부장 서명)했다고 보도
4.28	소련정부와의 91년도 무역·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5. 7	카자흐 공화국과의 무역·경제협력협정, 알마아타에서 조인(송희철 무역부 부부장 서명)
5.19	김복신 부총리 겸 경공업위 위원장, 우즈베크공화국 성공업성 대표단과 회견
5.13~5.21	러시아공화국 대외경제관계 차관들 북한방문. 무역·경제협력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조인
5.23	“평양방송”, “비굴한 추파” 제하의 논평에서 소련의 일부 대중보도기관들이 북한에 대해 트집을 잡는 보도사세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
5.29	조선인민군 총정치국대표단(이봉원상장), 야조프 소련국방상과 회견
5.29	조·소 정부간 91~93년도 문화·과학협력계획서 모스크바에서 조인
6. 3	소련해군 대표단 평양도착
6.12	농업과학원과 소련 레닌 전연방농업과학아카데미의 91-93년도 과학협력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6.21	조·소 합영의 「옥류·가치의 다리식당」, 모스크바에 개업

7. 5	조·소 정부간 91-92년도 경공업상품생산분야협력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8. 8	러시아공화국 정부와의 입업협력협정 평양에서 조인
8.19	고르바초프 대통령 실각보도(8.22복권보도)
9. 7	발트3국의 독립을 승인(9.25리투아니아, 9.26라트비아와 외교관계 설정)
10.1	國連총회(제46호) 참가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소련의상과 회견. 소련측은 향후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좋게 발전될 것이라고 지적
10.3~10.12	정부경제대표단(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소련방문
11.6	우크라이나의 과학원과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1991-95년도 협력계획서를 평양에서 조인
11.27	모스크바에서 조·소국경의 질서에 관한 조약 비준서 교환식

(주) 일자 는 북한 출발일~귀국일.

(출처) 표13과 같음.

표25. 폴란드의 대북한 무역(주요품목별)

	90년	91년	증 감 율
수 출	84,190	11,088	-86.8
(송장에 따른 수출)	84,190	9,777	-88.4
연료, 에너지	5,304	-	
전기기기	56,088	6,596	
화학공업품	2,828	697	
경공업품	19,859	2,474	
수 입	62,328	98,321	57.7
(송장에 따른 수입)	62,328	25,629	-58.9
전기기계	8,393	1,509	
화학공업품	4,425	2,710	
광산품	21,028	11,478	

	90년	91년	중 감 율
목재, 종이	2,020	61	
경공업품	24,743	-	

(단위) 100만 즈로치

(주) 91년의 수출, 수입액과 송장에 따른 수출, 수입액의 차이는 소위
'가방무역'에 의한 것임. 본문참조

(출처) GUS(Central Statiztical Office).

4. 결어—진전이 느린 신대의 경제정책

이제까지 1991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대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었던 구소련에서 일련의 변화—새로운 무역방식의 채택과 구소련 경제의 악화, 나아가서 연방의 해체—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았다.

상대국측의 통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무역의 품목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여기서는 최근 북한에서 부족하다고 전해지고 있는 에너지, 식량에 대해서 전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우선 에너지에 대해서 보면, 북한은 구소련(석탄, 석유제품), 중국(석탄, 원유), 태국(천연가스)등에서 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지만 동맹국 구소련으로부터의 공급이 격감하고 있으며, 중국의 원유가격이 ‘우호가격’에서 국제가격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산유국에서도 석유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전절까지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중에서 산유국이 많은 중동에 대해서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91년에는 표26과 같이 중동 각국(북아프리카 포함)과 인적왕래가 활발하게 실시되어 경제관계의 긴밀화(적어도 이란과는 군사관계까지)에 노력이 경주되었다. 또 91년 3월에는 이란과 연간 100만톤의 원유도입협정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북한 당국자도 구소련 원유의 감소분을 이란등에서 도입하여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등으로 보아³⁰⁾ 중동 산유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이들 중동국가들의 무역통계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입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알 수는 없다.

식료품의 도입에는 91년 호주로부터의 밀수입이 배중한 것 외에도(29만톤),

주30) OPECAN테헤란발 1991년 3월 6일, 『연합통신』, 『신아통신』, 『공동통신』, 『新瀉日報』 1991년 11월 18일. 줄고전제, 53페이지 참조.

새로이 캐나다산(45.5만톤), 그리고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미국산(15만톤) 밀이 첨가되었다.³¹⁾

태국에서도 쌀(1만8,000톤정도)등의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옥수수 21.7만톤이 도입되었다.³²⁾ 또 새로이 덴마크로부터 돼지고기가 도입되었다. 귀중한 외화를 사용하면서 이들 나라들로부터 식료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북한의 농업·식량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91년에 있어서 대소 무역방식의 변화와 무역액의 변화에 북한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였는가. 같은 해에 나온 조선로동당의 이론지 「근로자」에 발표된 한수길(무역부 부부장) 논문은 “국제정세의 급변이 대외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재빨리 인정하고 있었다.³³⁾ 이 논문에서는 향후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사회주의시장에 대해서는 기술조차 하지 않고, 아시아 각국을 최우선³⁴⁾으로 하고 다음으로 우호적인 자본주의 각국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또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전매무역, 가공무역’ 등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³⁵⁾

주31) 어느 미국상사가 북한으로의 소맥 12억달러분(1,500만톤)의 수출계약에 대해 미상무성의 승인을 받았다. 제1차로 91년 12월, 15만톤이 수출되었다. 대금은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아연으로 지불한다. 『요미우리신문』 1992년 4월 16일, 『통일일보』 1992년 4월 17일. 그러나 미국의 무역통제는 91년 북한에 대한 수출 10만달러, 수입은 제로였다고 하였지만, 이 밀수출에 대한 기재는 없다.

주32) 중국 해관총서 통계, 제트로 북경사무소 보고. 89년 29.6만톤, 90년 26.4만톤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주33) 한수길,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 절실한 현실적 요구” 「근로자」 1991년 제4호, 줄고 전제, 80~81페이지 참조.

주34) 91년 김일성의 「신년사」는 “오늘날 아시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근면하고 능력이 풍부한 아시아 인민이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서로 단결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면 아시아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고, 세계의 평화위임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해 아시아인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현정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월간조선자료』 제31권 제2호(1991년 2월), 2~12페이지 게재). 『월간조선자료』가 “새로운 아시아 건설은 현실발전의 요구”, 『민주조선』(1991년 8월 2일)이 “새로운 아시아 건설을 위해”등의 논설을 실었다. (『조선통신』 1991년 1월 29일, 8월 5일). 이들의 논조에는 아시아를 비핵지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표가 보다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8월에는 대외경제사업부의 임태덕 일본담당과장은 구소련뿐만 아니라, 92년부터는 중국과도 무역결제방식이 바뀌고, 사회주의국가들의 무역에서 얻었던 메리트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일본과 아시아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³⁶⁾

9월에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전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두만강 무역 개발구상을 한층더 구체화하고,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외자도입에 의한 개발과 수출을 실행하기 위한 방침을 분명히 하여,³⁷⁾ 연말에는 정식으로 정무원에서 동지대의 설치와 외국인 기업에 의한 투자를 인정하는 것등이 결정되었다.³⁸⁾

91년에는 대소무역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으로 아시아 중시와 서방측으로부터의 외자도입이 등장하였다. 표27은 91년 아시아 각국(일본, 중국은 제외)과의 주요한 인적왕래를 종합한 것이지만, 전절에서 본 태국, 인도네시아등 동남아 각국외에도 파키스탄, 베트남등과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절에서 본바와 같이 아시아 각국과의 무역이 반드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주요인사의 방문으로 증가가 기대되었던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의 무역이 오히려 감소하고, 홍콩, 싱가포르등 중계무역지와의 무역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아시아지역외에는 멕시코와의 무역이 급신장한 사실이 특기할만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전년도에 대폭적인 신장을 보였던 인도네시아의 무역이 91년에는 급격히 감소한 것등을 보아 불투명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35) 정무원의 기관지 「민주조선」(1991년 1월 16일)은 정무원이 1991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수출품의 생산을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북조선정책동향」 1991년 제4호(1991년 3월 30일), a11~13페이지.

주36) 「공동통신」 1991년 8월 6일

주37) 「조일신문」 1991년 10월 2일. 북한의 특구구상에 대해서는 宮塚利雄, “북조선의 합영사업과 경제특구”, 전제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전망-1991년판」 참조.

주38) 「조선중앙통신」 1991년 12월 30일 = 「조선통신」 1992년 1월 7일

외자도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절까지는 많은 선진국과 소련, 일부 개도국에 대해서 섬유제품이 북한의 주요수출품목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비용을 이용한 경공업의 잠재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외국기업의 유인조건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종래부터의 재일조선인 자본에 의한 합영사업을 예외로 하면 아직 외자도입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법 정비는 지연되고 있다.³⁹⁾ 제2절등에서 보았듯이 많은 선진국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고, 수출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⁴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룰테면 법·제도가 조정되었다고 해도 서방기업의 투자가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91년 12월 평양에서는 「전국지방무역부문활동열성자대회」가 개최되어 당·정부의 요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무역이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서 조선식 사회주의의 우위성을 더욱 발휘시키는 것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자”라고 호소했다.⁴¹⁾ 하지만 지방무역이 1976년 김일성에 의해 내세워진 획기적인 체계이고, 김정일의 열성적인 지도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각 지방에서 지금까지 ‘수출원을 대중적으로 탐구 동원’하여 수출 증가를 실현해 온 것이 칭찬된 것외에는⁴²⁾ 구체적인 묘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전환’을 고무하면서도 종래의 경제운영체제에는 아무런 손도 쓰려고 하지 않은(혹은 쓸 수 없는)것이 아시아의 중시, 외자도입이라는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을 제시해도 그것들이 즉시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39)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요미우리신문」(1992년 2월 24일)에 「외국기업법」(외국인 100%소유기업의 용인), 소득세는 10~15% 인하하는 「기업소득법」(현행 합영법에는 조입개시후 3년부터 25%)의 초안작성작업이 끝났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주40) 스페인에 있어서도 과거 몇년 간에 걸쳐 무역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음(제트로 마드리드사무소 보고). 또 스웨덴에서도 채무문제에 개선을 보이지 않아 무역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은 현금으로 행해지고 있다(제트로 스톡홀름사무소 보고).

주41) 이대회에는 연형묵 총리, 한성룡 서기, 김달현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 위원장 등도 참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1991년 12월 19일=「조선통신」 1991년 12월 19일.

주42) 전국지방무역부문활동 열성자대회 관련보도, 「조선중앙통신」 1991년 12월 19일=「조선통신」 1991년 12월 19일.

표26. 북한, 중동관계 주요사항(1991년)

2.27	이란 국회대표단(카르비의장, 국방·군수상, 상업상이 수행) 평양도착. 박성철 부주석,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 김일성과 회견. 국방·군수상은 오진우 인민무력부장과 회견
3. 4~3.12	김영남부총리·외교부장, 리비아방문. 카다피와 회견
4. 6	북한정부가 이란에 보낸 원조물자 전달 집회가 이란의 반달아바스항에서 열렸다고 북한에서 보도
4.17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이란의 국방·군수상에게 양국 군대간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북한에서 보도
4.23	이란 외무성대표단 평양도착,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회견
5. 2~5.24	조선노동당대표단(최태복 중앙위 서기),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순방
5. 9	이란의 우정·전기통신성대표단 평양도착. 김달현 부총리와 회견. 체신분야 상호협력합의서 조인
5.13~5.25	정부건설대표단(배달준 국가건설위 제1부위원장) 이란 방문
6.29~7. 2	시리아 외무성대표단(외무차관) 북한방문.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회견
7.27~8. 6	정부경제대표단(김달현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 위원장) 이란 방문. 혁명방위대총사령관, 국방·군수상, 카르비의장과 회견
8. 6~8. 8	리비아 최고지도자의 특사 북한방문. 박성철 부주석과 회견.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이 전송
8.26	정송남 정부특사(대외경제사업부장) 리비아방문차 출발
9. 9~9.14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이집트방문
9. 7~9.14	이란정부대표단(국방·군수상) 북한방문. 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 김달현 부총리등 참가. 김일성 회견. 91-92년도 문화과학교육교류계획서에 조인
10.22~11.2	조선직업동맹대표단(원동구 위원장) 이란 방문
11.12	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알리·가데리소장) 평양도착
11.16~11.26	G77 제7차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김달현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 위원장), 이란 방문

12.4~12.8	외교부대표단(강석주 제1차관) 이란방문(독일, 이탈리아도 방문) 핫산·하빔 제1부통령, 아크발들칸 이란·조선경제공동위위원장·국방·군수상, 카르비의장과 회견
12.12~12.27	정부경제대표단(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 시리아, 리비아 방문. 시리아와의 정부간 경제공동위창설에관한협정에 조인. 카다피 대좌와 호계. 리비아와의 정부간경제공동위 제8차회의 개최
12.29	아라파트 「팔레스티나 국가대통령」(PLO의장), 김일성의 초청으로 공식북한방문 위해 평양도착

(주) 일자는 북한 출발일~귀국일일 경우도 있다.

(출처) 표23과 같음.

표27. 북한·아시아관계 주요사항(1991년)

1.29~ 27	연형묵 총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방(김복신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 조규일 외교부 부장이 동행) 태국과 대사급관계수립에 합의.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에 조인
2.21	태국의 신임북한주재대사 김일성에게 신임장 제정
2.25~3. 5	베트남 국가계획위대표단 북한 방문
3.29	태국의 실린톤 왕녀, 김일성과 회견
4.26~5.13	이종옥 부주석, 베트남, 리오스, 인도순방. 베트남과 1991년도 문화·과학협력계획서등, 인도와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조인
6. 8~6.27	정부경제대표단(김달현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순방. 필리핀과 외교관계수립과 무역·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6.21~6.23	인도네시아의 아리타스외상, 북한방문.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김일성과 회견
6.29	정부경제대표단(김일춘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파키스탄 방문차 출발
7.20	인도정부대표단 북한방문. 이종옥 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회견

9. 2	필리핀 대표단(공공사업·도로차관) 북한 방문. 김달현 부총리와 회견
9.21	파키스탄 정부경제대표단(수력·동력차관) 북한 방문
9.28~10.8	정부경제대표단(김달현 부총리) 파키스탄방문. 양국 정부간 경제공동 위 개최
10.1	정부경제대표단(연승화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베트남에서 팬·반·가 이 제1부수상과 회견
10.1~10.3	국련총회(제46회) 참가중인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상과 회견
10.22~11.23	김용순 조선노동당 서기(최고인민회의 외교위 부위원장),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방
10.26	정부경제대표단(계형순 기계공업부장) 베트남 방문차 출발.
11.30~12.7	베트남 정부무역대표단(상업·관광차관) 북한 방문. 무역·지불협정에 조인. 김달현 부총리와 회견

(주) 1. 일본, 중국은 제외

2. 일자는 북한 출발일~귀국일의 경우가 있다.

(출처) 표13과 같음

Ⅲ. 일본·북한 경제관계

青木和雄

머 리 말

일본과 북한과의 무역은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1956년에 대련을 경유하는 일·중 무역의 형태를 갖추고 개시되었으나 그후 일·중 무역이 중단되어 홍콩을 경유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일본·북한 쌍방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되고 거래 규모도 확대되어 무역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것은 70년대에 들어서 부터였다.

7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6개년 경제개발계획(71년~)에 착수하여, 일본과 서유럽국가로부터 크고 작은 브랜드 수입과 자금차입을 통하여 경제건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서방측 선진국가에 있어서 북한은 일종의 매력적인 수출, 투자시장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70년대 중반에 북한측의 수입 대금지불, 차입금 변제가 중지되어, 그 당시까지 사회주의국가의 대외결제에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던 서방측 나라는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에 상당히 큰 쇼크를 받았다. 그후 북한은 서방측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수없이 지불에 관한 문제로 조정·합의를 거쳐지만,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 그때문에 북한은 컨트리·리스크가 상당히 큰 나라로 랭크되어 있고, 북한과 서방측 선진국과의 경제관계는 단적으로 말하여 70년대 중반이후 완전히 동결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세계경제는 크게 변화하여, 소련연방의 해체를 비롯하여 동구동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 냉전체제의 종식과 그것을 배경으로 남·북한의 국제연맹 가입, 일본·북한의 국교정상화 교섭등 세계정세는 90년대에 들어 예상을 훨씬 초월한 빠른 속도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서방측 채권자는 현재의 북한으로부터의 채권회수에 관해서 약간 비관적이다. 하지만 일본·북한 사이에 있어서는 국교 정상화가 시작되었고, 채무문제의 처리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금이 해결의 찬스이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양국간 경제관계의 전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채무문제의 발생이후 북한은 서방측 국가로부터 잊혀진 시장이 되었지만, 일본·북한간의 무역액은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일 없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북한 사이의 무역은 비정상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 그 때문에 채무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맞추어 무역이 이루어지고, 경제교류에 지장을 주고 있는 모든 문제도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루어야 할 것은 일본측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대응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일본·북한 국교정상화 시대를 맞이하여, 역시 경제관계도 정상화 되지 않으면 안되고, 북한이 일본 뿐만아니라 금후로 세계 각국과 무역, 경제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1. 결제문제

(1) 정치환경의 호전과 무역의 빠른 확대

일본·북한무역은 1970년대에 들어와 겨우 국제무역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지만, 71년까지는 수출입 모두 합하여 5,900만달러(206억엔)의 거래규모에 그치고 있었다. 이것이 72년에는 1억 3,000만달러로 증가하고, 73년은 1억 7,000만달러, 74년에는 3억 6,000만달러(1,052억엔)로 급증하게 되었다. 일본측의 수출은 71년에 2,900만달러,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3,000만달러로 일본측의 수입초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71년부터 74년 사이에 북한에서의 수입이 3배나 늘어 1억달러 정도 신장한데 반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은 크고 작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9배 가깝게 급증하여 2억 5,000만달러에 달했고, 이것에 서구와 홍콩등 제3국 경유로 수출된 철강재, 섬유, 기계설비 등을 더하면 10배이상의 수출 급증가를 살펴볼 수 있다. 72년을 고비로 일본측의 수출초과로 바뀌어, 그것이 86년까지 15년간 계속되었다(그림1).

한편 북한의 서구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역시 급증하여 71년과 74년 사이에 프랑스와는 700만달러대에서 9,000만달러대로, 서독과는 300만달러대에서 8,000만달러대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금액은 적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이러한 서구 각국으로부터 들여온 브랜드류의 수입대금의 지불액 속에는 10억 달러라고 하는 서방측 은행단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이 할당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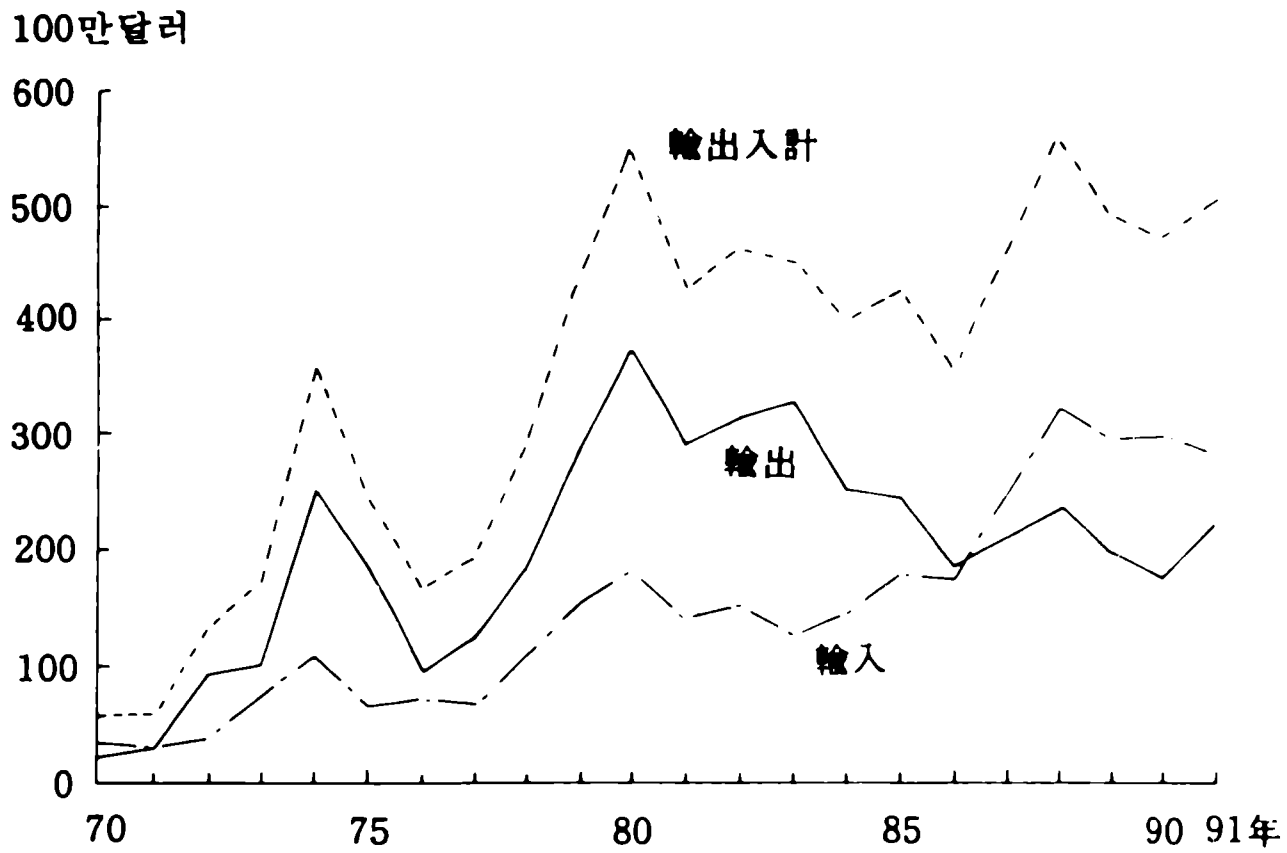
이처럼 북한은 서방측과 경제적으로 서둘러서 접근하여, 3대기술혁명 수행이 중심과제로서 개시된 71년부터의 6개년계획을 전력을 다해 성공리에 달성하려고 했다.

일본·북한간의 무역이 70년대에 들어 급속히 확대된 정치적 배경에는 국제적으로는 미국·중국, 일본·중국 국교정상화, 남북대화의 시작 등이 있었고, 일본·북한간에는 70년 봄에 일본 적군파가 일본항공기인 요도호를 공중납치하여 북한으

로 숨어들었지만 북한 당국의 조치에 따라 비행기와 탑승한 사람 모두가 무사히 귀환하여, 일본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감사를 표명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 영향으로 같은 해 7월, 평양행 여권이 처음으로 일본·북한무역회의 북한방문자에게 교부되었고, 71년 1월에는 북한행의 여권이 발급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홍콩과 소련행 여권을 취득하여 다른 나라를 통해서 입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여 1회에 한하여 유효한 1차 여권이었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에는 田中(다나카) 통산대신이 북한에 輸銀용자를 인정하는 방침을 표명하고, 11월에는 衆參兩院 의원에 의해 초당파적인 일본·북한 우호촉진의 원연맹이 결성되고, 새해가 되어 72년 1월에는 평양에서 동의원연맹과 일본·북한무역회가 각기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KOMT)와의 사이에 양국간의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5년 후인 76년에 5억달러의 무역규모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는 등 더욱더 무역확대의 전망을 높였다.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무역대표부가 일본에 설치될 때까지 무역대표부적 기능의 수행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북한·일본 수출입상사를 2월에 동경에 설치했다. 이어서 10월에는 북한의 무역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단의 일본방문이 실현되고, 경제단체연맹을 비롯 경제계와 산업계와도 교류했다. 또 10, 12월에는 평양에서 일본의 공업전람회가 개최되었고, 다음 해인 73년 1월에는 50개 회사의 일본 경제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7월에는 북한에 대하여 8년의 지불연장이, 12월에는 수출입은행 용자가 허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일본·북한사이의 경제교류확대의 환경이 정비되는 가운데 대형의 상담이 차례차례 계약되어, 각종 브랜드가 선적되고 있었지만, 당시 북한이 일본과 서구유럽 나라들로부터 어느정도 대량의 브랜드류를 사들여 자금차입을 하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지불과 변제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서로 갖고 있지 않았다. 서방측 기업은 이윽고 그 결과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1. 일본의 대북한 무역(1970~91년)



(출처) 대장성통관통계에 의해 작성

(2) 미결제 문제의 발생

일본의 항구에서 브랜드류의 선적이 아직은 계속되고 있던, 74년 여름쯤부터 북한측의 대금지불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수출보험에 따른 조건지불의 지연이 계속되면 수출업자로부터 보험금의 청구가 나와, 통산성은 사고인정조치를 취하여 북한은 사실상 파산국이라고 보여지게 되어, 일본·북한간의 유일한 파이프가 되어 있던 무역이 전면적으로 중단 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국면은 피하려고 일본·조선 쌍방관계자의 필사의 노력이 계속되어 76년 12월, 평양에서 일본의 채권자대표단(77년 3월, 일본·북한무역결제협의회를 조직)과 북한무역은행 간에 지불의 조정(리스케)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고, 지불기한이 2~3년간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 계약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79년 가을에 동경에서 제2차 조정합의서가 체결되고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에 완제하기로 했다.

북한측은 이 계약을 처음엔 성실하게 이행하여 79년말부터 82년말까지는 원금과 조정금리를 송금해 왔다. 그러나 83년 봄, 북한측은 원금의 일부지불을 86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서 세번째의 지불조정이 행해져서 같은해의 6월의 금리까지 송금되어 왔다. 북한은 79년말부터 83년 6월까지 당시의 엔화로 환산하여 원금 100억엔, 조정금리 300억엔, 합계 약 400억엔을 송금해 왔다.

그러나 83년 가을에 버어마 랭군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정부는 그 사건이 북한의 범행이라고 인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여 양국관계가 악화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은 같은 해 말의 금리지불을 이행치 않고, 그 다음해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지불이 일절 중단된 상태이고, 누적 채무액은 원금과 금리를 합하여 약 800억엔에 달하고 있다(종래, 일본·북한사이의 무역결제통화는 서독 마르크가 중심이고, 아연과 납같은 비철금속등의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영국 파운드를 사용하는 관례여서 일본측의 채권은 서독마르크가 거의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제(返濟)도 같은 통화로 행해졌다. 76년말 제1차 지불조정 당시, 서독마르크는 약 124엔, 영국파운드는 약 497엔이었고, 이것으로 엔화를 환산하면 당시의 일본측 원금채권은 약 800억엔이었다.).

한편, 일본측 수출업자는 북한측의 지불에 관계된 자금부담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 '86년 가을에 10년 동안 확보해 온 보험금 청구를 단행하여 약 320억엔을 통산성으로부터 받아냈다. 이것에는 앞에서 말한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불조정 금리 약 300억엔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업자가 부담한 형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일단 처리가 되었지만 관련기업은 북한으로부터 채권금액을 회수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통산성에 반납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또 대북한 채권 중에 약 1할은 원래 보험을 들지 않고 수출된 것이어서 한층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3) 채무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이 지불 불이행을 한 원인에는 북한측이 말하는 것처럼 73년의 오일쇼크에 따라 수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확보하는데 곤란함이 생겼고, 그후의 세계경제의 정체에 의해 북한의 주력상품인 비철금속과 광산물 수출이 감소하여, 외화수입이 악화되는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국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서방측으로부터의 막대한 설비 및 기자재의 구입과 차관도입을 추진하려한 계획 자체에 커다란 오산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 서구 각국으로부터 도입한 각종의 크고 작은 브랜드는 북한의 경제건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들의 브랜드로 생산된 제품이 서방측으로 재수출되어 외화획득에 크게 공헌하고 있었다면, 대외무역문제는 해결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테면 근대적으로 세계에서 최상급인 연생산능력 300만톤인 시멘트 제조설비를 구입하여 고품질의 시멘트 생산이 가능했었을 테이지만, 현실적으로 원료, 연료, 제조공정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인정된 높은 평가를 얻지 못하여 외화획득에 충분히 공헌해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북한은 대외채무에 대해서 그들의 채무액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사회주의 경제력에서 보면 대단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해왔다. 분명히 다른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채무액에 비하면 적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로 보면 그것이 대단한 차입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불받지 못하고 있고, 그 한편으로 북한이 비생산적인 혹은 불요불급한 건설과 국제적 대이벤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 지불금이 없을리는 없고, 진지하게 해결하려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심을 갖게도 된다.

또 서방측에서 보면 북한이 안고 있는 채무액은 현재의 경제상태로 보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일본, 서구국가, 서방측 은행단, 게다가 구소련등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변제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대외채무문제 해결에 관한 북한의 기본적인 견해는 어떤가하면 다음과

같다. “채무국과 채권국의 쌍무적, 다무적(多務的) 협상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무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그 기간의 이자를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이들 나라의 경제적 실정과 국제경제의 현상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개발도상국이, 대외채무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무역과 금융통화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무상통의 원칙하에 남남협력(南南協力)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 1991년 2호)

이 해결방책은 김일성이 제시한 것이지만 근년의 북한의 대외활동, 대응행태를 보면 충분히 수공이 갈 것이다.

2. 무역경제교류의 현상

(1) 일본·북한무역의 특이성

1970년대의 중반경에 발생한 결제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북한간에는 연간 5억달러의 무역이 행해져 북한에 있어서 일본은 구소련, 중국에 이어 주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어 왔다. 미결제 문제의 발생이후, 일본기업이 거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재일조선인 기업의 일본·북한무역에 있어서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어 “조선무역”이라고 불리워지면서 거래가 유지되어 오던중, 84년 9월,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여 “이것은 엔고, 불황등으로 한층더 험해진 일본의 경제환경속에서 심각한 불안에 둘러쌓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오늘날의 하나의 배려이다.” “조국과의 합영사업은 재일조선상공인들이 기술과 설비를 갖고서, 조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풍부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자본주의 시장에 판매하는 한편 타국의 원료를 들여와 그것을 상품화하여 사회주의 각국에 파는 삼각가공무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상공인의 경영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합영사업연구회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자료의 머리말)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일반상품의 수출입 상품거래와 더불어 합영사업에 관련된 설비의 수출, 가공된 제품의 수입을 합하여 ‘조선무역화’가 가속화 되었다.

또 재일조선인기업의 거래가 확대된 요인으로는 북한에서 수출희망이 보여도 일본기업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품을 수입상품으로 투자하는 등, 신규 수입상품 개척에 적극적으로 힘써 노력하는 노고가 있었던 것을 들 수가 있다.

북한과 한국도 남북간과 재외동포와의 거래를 무역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북한 무역이 조선무역이라는 것이 무역으로서 확실하지 않을 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일본·북한 무역은 다른 동서무역에서는 볼 수 없는 조건하에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일본·북한이 국교수립을 할 때에는 재일조선상공인의 경제적 활동과 상황도 바뀌어 갈 것이다.

(2) 문제점

70년대 중반에 발생한 미결제 문제를 계기로 하여 일본기업이 일본·북한 무역을 기피함에 따라 여러가지 파급효과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북한간의 무역의 장애가 점차로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기업과 무역거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집요하게 정부와 관계방면에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온 결과였다. 그러나 일본기업이 무역을 전면중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조건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종래부터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 그곳에서의 무역은 우호와 상호협력, 원조를 기본으로 하여 결제도 정산감정방식을 기초로 한 것인데 반하여,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은 국제적인 상업규칙과 시스템에 기초하여 계약하고 경화로 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동서무역에도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일본·북한사이의 무역도 일본·북한무역회와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등 서방측 기업에 있어서 우호라든가 협력따위는 상담에 임할때에 마음가짐의 문제일뿐 실제 거래할 때에는 끝까지 국제적 상업규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입장이어서 이 차이가 종종 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북한과 재일동포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포의 배려”, “조국에 공헌”이라는 말의 이면에 거래속에 상하관계가 개입되거나 무역규칙이 경시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일본·북한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북한 무역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아닌 로우컬 트레이드로 경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① 신용없는 신용장

일본·북한 사이의 무역은 신용장에 따른 대금결제에 일반적이고,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확실하게 결제가 되지만 북한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종종 결제가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북한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매수하지 않고 거두는 것을 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거두는 것조차 행하지 않는 은행도 적지 않다. 이것은 신용장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일본측 수출업자는 미리 지연될 것을 간파하고 금리를 수출가격에 넣어, 북한측의 매수자는 그만큼을 비싸게 사게 된다.

② 납기의 지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커다란 문제의 하나는 납기가 상당히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납기의 지연은 일본 국내의 수요자의 불신을 살 뿐만 아니라 안정된 공급시장이 될 수 없다. 일본측 기업은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환예약이 되지 않는 리스크 헤지(risk hedge)도 할 수 없게 된다.

③ 품질, 규격

북한의 항구에서 일본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이 계약상의 샘플과 다르거나, 농수산품이 수송중의 관리소홀로 먹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처분이 여의치 않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③ 배선·수송

일본·북한 사이의 무역은 근거리 수송이라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북한 항에서의 체선이 종종 발생하고, 한달에 3번 왕복이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번 정도밖에 항해할 수 없는 사태도 발생한다. 게다가 화물이 적으면 수송운임은 큰 비율을 갖게 된다. 북한 항구에서의 체선발생은 화물을 쌓는 작업이 숙련되지 못하고, 화물의 집하가 안좋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⑤ 크레임 처리

이상과 같은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역 거래에 분쟁을 피할 수 없게 한다. 그 때문에 크레임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칙과 관습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북한측은 크레임문제에 대응하는 자세가 소극적이어서 원활하게 해결

되는 경우가 드물다. 크레임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한다면, 그것은 또하나의 무역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도 된다.

3. 북한의 대외경제 무역방침

(1) 다각, 다양화 무역의 추진

1983년 10월 랭군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 11월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12월 제18 후지산 승무원이 스파이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사건이 일어나 일본·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 84년초에 북한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은 대외무역, 경제교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는 방침에 따라 우리들은 사회주의 국가와 무역을 계속하여 진전시키면서 비동맹국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우리들의 자주권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와 경제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자본주의국가와 통상교류도 끊임없이 확대해 왔다.” “현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경제활동의 주요한 방향은 남남협력을 확대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협력하여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84년 1월) 결정 「남남협력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함」).

같은 해 5월에 김일성과 당 및 정부대표단이 소련, 동유럽을 방문하고 9월에는 합영법이 공포되는 등 대외경제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 해였다. 북한의 비동맹, 개발도상국을 중시하는 방침이 추진되어 감에 따라, 일본·북한 무역은 일본측의 수출은 83년 3.4억달러였지만, 84년 2.7억달러, 85년 2.6억달러, 86년 1.9억달러(수입 1.6억달러)로 하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북한측은 그때까지 대일무역은 수입초과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후로는 수출입 균형을 맞춰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87년 11월말 버어마 근해에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발생하고, 다음해 1월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일본·북한 관계는 또다시 악화되어, 북한은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질

정도였다.

이러한 무역거래 상태는 '90년 가을에 일본·북한국교 정상화를 재개한 3당공동선언까지 계속되었다.

북한이 거래를 일본에서 홍콩등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한 남남협력과 일본정부에 대한 정치적 대응외에 경제적 요인으로서 일본제품이 고품질, 고가인 것에 비해 제품의 품질은 다소 떨어져도 저가 제품을 선호하며 아시아 NIES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였고 한편, 일본방면의 수출은 납기, 품질, 규격의 조건이 까다롭고, 국교가 없어서 관세가 기본관세로 취급되어,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그 때문에 수출가격을 하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보다 팔기 쉽고, 사기쉬운 지역과 거래를 시작했다는 사정도 있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 관한 최근 방침에 대해서는 북한 로동당 기관지 『근로자』 92년 4호에 게재된 한수길 무역부 부부장의 논문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오늘날의 요구’가 있는데 이 논문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외무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부족한 원료, 연료, 자재를 확보하여 첨단기술을 갖춘 설비도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②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꾀하여 아시아국가와 무역확대를 우선시하여 남남협력을 실현하고 우호적 자본주의국과도 무역을 발전시켜서 변경무역, 지방무역에도 주력을 다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중개, 가공, 바터 거래, 합영, 합작을 추진하여 외화수입의 증대를 꾀한다.

③ 신용제일주의의 원칙을 지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④ 수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포장개선을 꾀한다.

⑤ 무역부분의 활동가는 무역실무의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⑥ 수출품을 운반하기 위해 선박, 철도, 항공운수를 발전시킨다.

이상과 같은 과제는 이제까지 반복하여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절실

한 과제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용제일주의가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수입에 대한 결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여하튼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방침을 알리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2) 무역의 지도, 관리

북한의 무역관리기구는, 정무원 안의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 두개의 기관이 있고 무역부는 문자 그대로 무역의 전문행정기관으로서 무역정책, 무역계획의 추진, 무역협정의 체결등 무역 전반을 총괄하지만, 일본등 국교가 없는 나라와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기관명으로 대신하고 있다. 대외경제사업부는 주로 경제협력과 각종 브랜드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다. 합영사업을 담당하는 합영총국은 최근에 합영공업부에서 총국으로 조직이 바뀌었지만 부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또 91년말에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대외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김달현 정무원부총리로 무역부장도 겸임하는 대외경제무역부문의 최고 책임자이다. 김부총리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비날론 발명으로 유명한 이승기 박사에게 화학을 배웠고, 88년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연령은 김정일과 같이 50세정도라 한다.

김달현부총리는 11명이 있는 부총리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외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이고, 서방측 관계자 사이에서 평판이 높다.

부총리이며 경공업위원회 위원장인 김복신(여성)은 오래동안 섬유산업 부문을 전담해왔고 은하무역상사 사장 경력이 있다. 정부경제대표단 단장으로서 각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이성록위원장은 82년에 일본을 방문했지만 무역부의 부부장이자 일본·북한 우호친선협회의 부부장이며 9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위원에 취임했다. 경제 테크노크라트이며 대일경제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김정우위원장은 젊어서 설비수입상사의 사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대외경제사업부 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92년 4월말에 개최된 평양국제회의의 주최자이기도 하다.

이상의 경제부문의 지도자, 간부들이 대일무역을 담당해 왔으므로 일본의 경제관계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무역상사는 기본적으로 정무원의 각 공업부와 위원회에 속해 있고 독립채산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형태로는 전문상사와 종합상사가 있다. 북한의 무역기관, 특히 상사는 빈번하게 재편·통폐합이 실시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다.

4. 결 어

91년초부터 일본·북한 국교정상화 문제는 소련과의 북방영토문제와 함께 일본에 있어서 커다란 두개의 외교적 과제이지만 이제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이미 북한으로의 여행이 일반여권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양국간의 통신회선도 증설되어 FAX통신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고 Charter편에 의한 직행편이 날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양국간의 왕래는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

국교가 수립되게 되면, 경제협력자금의 공여와 대일본무역 채무의 근본적인 해결도 이루어질 것이고, 무역보험, 수출입은행등 공적자금 이용, 경제·기술기관의 이용과 교류도 가능하게 되어 상황은 바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대북한 거래에 참여하려는 일본기업도 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자본, 기술도입을 피하려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등과 경쟁할 수 있는 매력있는 조건의 제공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경제권 구축 구상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북(東北),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등의 경제개발이 진행되면 북한의 청진, 나진, 선봉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테마로서 검토되게 될 것이다. 당면한 문제는 북한 자체가 위의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법률정비를 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기반정비가 요망된다.

또 외자유치의 실마리로서 북한 자신이 위의 지역에 산업, 공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선행하여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따라 남북이 각각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통일을 촉진하게 되어 한반도가 번영·안정되는 것은 일본도 바라는 바이고, 경제교류 확대의 새로운 환경조건이 될 수 있게 되어 環東海경제권 구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IV. 북한의 합영사업 전개에 관하여

-재일조선인과의 합영사업을 중심으로-

宮塚利雄

머 리 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1984년 9월 9일에 북한 합영법(이하 합영법)을 채택한 후 올해로 9년째가 된다. 현재 북한내에서 가동 또는 계약 및 합의하고 있는 합영 건수는 140건 전후라 할 수 있지만,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일본과 중국, 구소련의 기업이 대부분이고, 그 숫자는 91년 12월 현재 누계 계약 건수가 106건, 조업건수는 62건이라고 보도되었다.¹⁾

본장에서는 이를 위해 북한의 합영사업의 전개를 재일조선인의 합영사업에 초점을 두고, 연도별로 중요한 사항을 거론하여 고찰하겠지만, 북한과 재일조선인의 합영사업은 「조·조합영사업」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합영사업에 일부 일본인(또는 기업)이 자본과 기술등을 부분적으로 투자 또는 제휴하는 일은 있어도²⁾, 일본인 기업이 직접 북한과 합영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데³⁾ 유래한다.

북한 합영사업의 이제까지의 전개를 고찰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힘을 쏟고 있는 두만강(토문강)유역 개발계획과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 구상의 장래를 점치는데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계획의 성패여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자본과 기술투자를 끌어들이는가 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기업과 합영하여 사업을 잘 전개해 갈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84년의 합영법 제정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조·조합영사업」의 전개를 편의상 전기(애국공장시대), I기(84년 9월 합영법 공포~86년 2월 28일의 김일성의 합영사업에 대한 교시), II기(86년 6월 16일의 합영사업연구회 발족~87년 4월 25일의 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 III기(87년 11월의 국제합영 총회사이사회~89년 4월의 합영은행 설립), IV기(89년 10월 3일의 총련합

주1) “합영사업을 잘하여 조국건설과 인민생활에 크게 공헌하자” 『조선신보』 1991년 12월 9일

주2) 大谷繁 “조선의 합영에 참가하여” 『조선신보』 1990년 8월 23일

주3) “북한의 합영공장” 『조일신문』 1990년 12월 2일.

영사업추진위원회 제5회 이사회 확대회의~91년 4월 13일의 합영제품 전시회)로 나누어 중요한 사항을 거론하여 약술한다. 즉, 합영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생략했다.⁴⁾

또 현재 공포된 합영법 및 동법 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동법 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⁵⁾ 북한의 합영사업 실태를 이해하는데, 현행의 합영법 및 관련법류를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필자가 별도로 번역하여 출간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참조했으면 한다.⁶⁾

주4) 宮塚利雄 「북한의 합영사업과 경제특구」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1991년판』 일본무역진흥회, 1991년 참조

주5) “북한, 합영법 개정을 끝냄” 『조선일보』 1992년 7월 23일, 이것은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두만강개발회의에 참가한 한국 대표에게 김달현 부총리가 밝힌 것으로 북한은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의 개정 보완은 물론 합작투자법, 외국기업법, 소득세법, 외환관리법 등을 새로이 작업을 끝냈다고 한다. 게다가 9월이후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해운법, 중재법, 환경보호법, 계약법이 차례 차례 개정 또는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6) 宮塚利雄 번역 「북한 합영법 및 시행규칙」, 「북한 외국인소득세법 및 세칙」, 「북한 합영회사 소득세법 및 세칙」, 木村哲三郎 편 「소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 아시아 경제연구소, 1988년, 194~210페이지 참조.

1. 전기(애국공장시대)

합영법이 제정된 이후의 재일조선인에 의한 북한의 투자는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가 「조국의 경제건설에 공헌」이라든가 「김일성생일기념축하사업」, 「북한건국기념사업」, 「조총련결성기념사업」 등의 명목하에 재일조선 상공인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북한에 기증한 소위 「애국공장」이 있고 그 숫자는 50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⁷⁾

애국공장은 1967년에 재일조선인 1세가 세운 애국목재공장이 효시로서 이후 주요한 애국공장에는 병제조공장과 봉제공장(72년, 김일성 생일 기념, 10억엔), 건설기기제조공장(75년, 조총련 결성 20주년 기념, 10억엔), 인스턴트라면공장(77년, 김일성 생일 기념, 10억엔), 물엿제조공장(78년, 북한 건국30주년 기념, 5억엔), 건설기기제조공장(83년, 북한 건국 35주년 기념)등이 있다고 한다.⁸⁾ 이들 애국공장의 특징은 그 70%가 경공업제품이 차지하고, 거의 일용품 제조공장이다.

애국공장의 기증은 합영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실행되고 있어서, 8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동경에 사는 재일조선인이 평양에 애국모란피복공장을 기증했다. 86년 10월 10일에 가동하기 시작한 이 공장은 1년 사이에 남성용 고급양복 5종류를 10만벌 생산하고, 그 중의 반은 일본 재일조선인 기업에, 나머지는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각국에 수출했다. 이 공장의 특징은 200여명의 종업원 가운데 재일동포 기술집단으로, 72년에 북한에 귀국한 조선인이 이사장을 비롯하여 프레스, 재단등 각 작업반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⁹⁾

87년 5월 19일에는 각종 규격의 골재를 연간 수십만톤 생산하는 평양애국채석

주7) 이창락, “재일동포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애국공장” 『조선화보』 조선화보사, 49페이지.

주8) “조총련, 누구를 위해 있나” 『한국신문』 제1665호(1987년 7월).

주9) “고급양복연산 10만벌, 고급코트는 2만 5천벌” 『조선상공신문』 1987년 10월 13일, 또 「요미우리신문」 1992년 5월 14일, Damon, Darlin, “North Korea Opens Cautiously to West,” Asian Wall Street Journal, May B, 1992 등.

공장이 조업을 시작했다. 이날 조업식에 참석한 평양시 행정경제지도위원회 도시경영총국의 楊春變총국장은 “재일동포의 애국상공인이 보내온 채석공장의 모든 설비에는 조국의 부강 발전에 기여하려는 충성심과 애국심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조총련 신내천상공회의 김경열부회장은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원하고 싶은 심정에서 동포상공인이 협의회를 결성하여 이제까지 도로건설과 관리사업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¹⁰⁾

90년 4월 17일에는 개성애국피복공장이 조업을 시작했다지만, 재단에서 가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최신설비이고, 연간 수만벌의 고급 기성복을 생산한다고 한다.¹¹⁾ 92년에는 북한 최대의 경축일인 「2월 4월의 명절」(2월 16일 김정일 50세, 4월 15일 김일성 80세의 생일)을 맞아 조총련과 재일조선인이 「애국천연칼라TV조립공장」을 기증하였다. 2월 26일에 공장을 방문한 김정일이 이름을 붙였다는 「三日浦」라는 상표의 칼라TV수상기의 생산을 시작했다. 이 공장에서는 성형에서 전자소자 삽입, 기반조립과 조정, 본체조립과 조정, 포장까지의 모든 공정이 컴퓨터제어에 따라 자동화 되어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TV는 브라운관 20인치, 소비전력 60W로 VHF·UHF TV 방송 수신이 가능하고, LSI의 도입으로 종래의 것보다 가벼운 20kg이고, 자동증폭회로를 갖추고 있어서 원격지와 전파가 미약한 조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다.

사용전압도 100V에서 270V까지 가능하므로, 전압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된 화면을 수상할 수 있다고 한다. 공장 건물 벽은 이미 보온벽을 사용하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온도와 습도 조정은 물론 채광·조명 상태에도 최신의 설

주10) “평양애국채석공장 조업”, 『조선시보』 1987년 6월 1일.

주11) “개성애국공장조업”, 『조선시보』 1990년 4월 30일.

비가 장비되어 있다.¹²⁾

애국공장을 기증한 재일조선인은 「오늘날 세계에는 타국에서 상업과 제조업을 하는 해외 동포가 많다. 그러나 우리 재일 동포와 같이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애국적 지성으로 받들고 있는 상공인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¹³⁾라고 인식하고 있고 게다가 “위대한 수령님은 동포상공인의 애국적 열의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기증공장의 이름을 기증한 상공인의 이름을 붙여, 누구누구의 「애국공장」이라 명명해 주시고, 공장 입구에는 「충성의 비」까지 세워 주시는 은정까지 베푸셨다”고 하며,¹⁴⁾ 북한에 애국=기증공장을 세우는 것을 지도한 김일성의 「사랑」과 「명령의 길」만을 칭찬하고 있다.

단지 걱정이되는 것은 기증된 애국공장 중에는 현재도 가동되고 있는가? 나아가 기증자가 의도한 제품 생산이 그후에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로서 거액의 자금과 일본제 최신 설비를 투입하여 생산을 시작한 「즉석 라면공장」은 조업을 시작했지만, 센서 고장으로 인하여 곧 중단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 고장의 원인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과 현저한 전압 변화였다고 한다.¹⁵⁾

애국적 지성의 발로인 「애국공장」과 그후의 합영 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초기의 합영 사업에는 애국공장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었다. 애국공장이 북한의 경제발전(특히 기술이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은 사실이였지만, 애국공장의 형태만으로는 기술과 자본의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즉, 애국사업에는 공장의 기증뿐만 아니라, 묘목과 종우라고 하는 수많은 동식물과 막대한 양의 도서 문헌등의 기증도 있다.¹⁶⁾

주12) “우리 인민의 문화 정서 생활에 크게 기여” 『조선신보』 1992년 3월 9일. 즉 이 애국천연색 TV공장은 기존의 대동강 TV수상기공장내에 신설했다.(조선중앙통신 1992년 3월 3일=『조선통신』 1992년 3월 4일). 『日經산업신문』(1992년 2월 8일)은 상해 제일 TV공장이 20인치TV를 8만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대동강 TV공장에 수출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이것이 애국천연색TV 공장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13) 14) 「침성대」 『통일일보』 1990년 5월 26일

주15) 이우홍 『암우의 공화국-북한공업의 기괴』 아기사점, 1990년, 30~40페이지

주16) 『조선중앙통신』 1985년 2월 27일

2. I 기(1984년9월~86년2월)

1984년 9월 8일에 합영법이 공포되고, 북한이 처음으로 맺은 합영계약은 프랑스 건설회사인 칸베논·베르난사와 조선제일설비수출입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羊角島호텔의 건설이었다. 최초의 합영사업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매스컴에서도 대대적으로 선전된 양각도호텔은 평양 시내를 흐르는 대동강 중류지역에 건설될 면적이 8만7천여㎡인 46층 건물의 타워식 건물로서, 객실수는 1,200정도로서 계약의 내용은 ① 운영 자금은 북한 60%, 프랑스 40%, ② 합영 기간은 5년간으로 연장이 가능, ③ 이사회는 5인으로 구성할 것 등이 체결되었다.¹⁷⁾

이 양각도호텔 건설은 「계약조항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합의가 중단되었다」¹⁸⁾로 보도된 일도 있었지만, 다음해 2월 26일에 착공식을 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

11월 26일에는 평양시 대외 봉사총국과 재일 조선상공인연합회(이하, 상공련) 이종태(李鍾泰)부부장과의 사이에서, 재일 조선인과 최초의 합영 사업인 창광다방의 합영 계약이 체결되었다. 창광다방은 평양 시내의 천리마 거리에 있는 외국인 전용여관인 창광(蒼光)여관의 1층에 개설된 것으로서(개업은 85년 5월 5일), 재일조선인이 북한을 방문할 때 자주 이용하는 여관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다방과 경양식 식당을 겸한 창광 다방은, 평양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

주17) 『월간조선 자료』(조선문제연구소) 1985년 9월호, 54페이지

주18) 『매일신문』 1985년 1월 11일. 이 호텔의 건설은 다음해 12월에 베르날사의 기술자가 작업을 중단하여 철수해 버렸다. 공사중단의 최대 이유는 「북한」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한다.(『통일일보』 1987년 4월 8일). 86년 6월에 베오그라드에서 쌍방의 실무자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결렬되었다. 그러나 그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한다.(『코리아 평론』 1988년3월호). 필자는 작년 2번의 북한 방문에서 완성 단계의 양각도 호텔을 보고 있다.

다.¹⁹⁾

1985년에 들어와 2월 18일에 북한의 낙원무역상사와, 재일조선인 기업인 韓日상사와의 합영기업인 낙원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이 백화점은 평양시의 중심부에 본점이 있고, 각지에 지점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점 1층에는 의류, 신발, 가방, 2층에는 가전제품, 도기, 가구, 슈퍼마켓 형태를 띤 식료품 매장이 있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상품중 9할 정도가 일본제품이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 일본 잡지, 주간지 코너라도 있으면 마치 교외터미널역의 백화점 지점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²⁰⁾”로 일본 제품이 많다.

단지, 창광 다방과 같이 일반인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고, 손님은 외교관과 외국상사의 주재원, 북한을 방문중인 재일 조선인 등 외화를 갖고 있는자에 한할 뿐이고, 시민은 「아이쇼핑」을 할 뿐이다. 낙원 백화점의 캐치프레이즈는 “조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낙원 백화점에서 물건을 또 조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무거운 짐을 갖고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낙원 백화점에는 조국에 거주하는 동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을 수없이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²¹⁾이다. 게다가 「낙원 카드」까지 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4월에 대동강 자동차 종합수리공장, 8월에 팝레스토랑 「대동강」이 개업했다.

85년에는 합영 사업을 둘러싸고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여러가지 교섭과 교류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우선 6월에 일본, 북한 우호촉진의원연맹(회장대행·谷洋一·자민당 대의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韓日우호촉진친선협의 대표단인 金佑鍾 단장이 10일간의 체재기간중 2일간에 걸쳐 일본, 북한 어업협회의 長谷川 회장과 어업생산과 가공분야의 합영사업에 대해서 협의했다. 결과적으로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對日관계의 요인이 공식으로 합영사업을 타진해 온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주19) 환태평양문제연구소 「한국, 북한 총람」 原書房, 1986년, 390페이지

주20) 「다시보는 북조선②」, “넘치는 일본제품, 합영백화점 스타트” 「공동통신」 1985년 4월 11일.

주21) 「조선화보」 (1987년 2월호)에 게재된 낙원백화점의 광고에 따름

한편 일본에서는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천승전 남해전철 회장과 이성록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의 회장 사이에서 기술제휴 및 합영에 관한 비망록이 9월 16일에 교환되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측은 양국간의 경제, 기술교류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측의 요구에 따라 1984년 9월에 발표한 북한의 합영법하에 일본의 기업과 과학기술교류, 합영기업의 창설 경제, 합작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고, 희망 대상을 별지와 같이 제기했다.”

별지에는 기술 협력 대상과 합작 합영 대상이 표시되고 마지막에 기술된 내용으로는 “일본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대상을 양해하여, 이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그부분의 실업가로 구성된 힘있는 경제실무 대표단을 1986년 안에 북한에 파견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하지만, 북한측의 對日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모처럼의 비망록도 휴지가 되어 버렸다.²²⁾ 이 이후 일본인이 북한과 합영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지고 90년 12월에 대판부에 본사가 있는 시멘트 수입상사가 91년 중반쯤에 합영시멘트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일이 있을뿐이다.²³⁾

올해 9월에 재일조선인 실업가 약50명이 출자한 운산광산개발사업에 대한 협의(李炳行사장 자본금 1억2천만엔)가 계속되어 11월에는 북한과의 합영회사인 「운산광산개발 이사회」가 설립했다. 북한과 조총련이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 합영회사는 초기의 조·조합영사업의 전개와 그 실태를 아는데 중요한 존재이다. 운산광산은 북한의 유수의 금산으로서 금광량은 1,000톤(시가로 약 2조엔)으로 북한은 금을 채굴하여 이것을 매각하여 대일채권의 상환에 대처할수가 있고,²⁴⁾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도 무역대금의 미지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 사업

주22) 『현대코리아』(현대 코리아 연구소) 1985년 11월호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옥성소「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1991년판』 일본무역진흥회, 1991년, 116~117페이지도 참조

주23) 『日經산업신문』 1990년 8월 1일 『아사히신문』 1990년 12월 2일등.

주24) “북한의 금산을 재개발” 『아사히 신문』 1987년 3월 19일

의 성공은 정말로 쌍방(일본, 북한)에 있어서 원하는 합영사업이었다. 하지만, 그 후 안가서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운산광산개발의 경과와 결말에 대해서 『조선신보』(1987년 4월 6일)의 기사에서 소개한다.

85년 11월에 운산광산개발이사회의 설립시에 교환된 합의서에서, 채굴권은 북한측과 제일 조선인그룹 각 50%로하고, 광산개발은 ①정보수집과 사전조사, ②지질조사와 탐광작업(광상발견), ③정밀탐광과 현지조사, ④의사결정(가채광량제산, 기본계획작성), ⑤생산의 개시 공정을 거치기로했다. 이에 앞서서 7월에 현지조사한 운산광산개발의 컨설턴트는 “금광량은 금후의 정밀조사에 따라 상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이제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000톤(시가로 약 2조엔)이상이다”라고 보증했다. 또 운산광산의 금의 품위는 톤당 8~15그램이고, 품질에 대해서도 임의로 채취한 광석샘플을 일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양질이라고 판정되었다고 한다.²⁵⁾ 86년 8월에 현지조사를 한 프랑스의 광산개발 전문회사도 그 조사보고서에서 “세계의 주요광산 중에 운산광산도 포함된다”라고 했으며 “경제적으로 흥미가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²⁶⁾라고 지적했다 한다.

이러한 사전조사의 결과를 밝아 86년 12월에는 「운산개발의 전망에 대해」 간담회를 열어서 관계자의 이해를 깊게 하는 한편, 환경정비·갱내확장·구갱내의 배수펌프등의 기계적설비에 4억엔을 투입하는 등, 재개발의 준비를 착착 진행하여 87년 4월 3일에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노동지구에서 「운산합병 청년광산」의 착공

주25) 「운산지구에 비철금속자원이 풍부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의 저명한 지질 및 광업전문가도 정량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세계지질학계에 알려져 있는 이하바사인 국지철과 竹島淸은 1985년에 운산광산을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서 운산광산은 무수의 광맥군으로 되어있다. 세계유수의 비철금속광산이라고 기록하여 동보고서를 개발계획작성과 합영교섭을 참고할 수가 있다고 썼다 또 그들은 운산광산이 수송조건에 복혜를 받아 자재와 동력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 정련소도 가깝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기술, 광산개발의 의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산합영청년광산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1987년 제4호, 15페이지

주26) 「프랑스의 B·R·G·M회사 기사장인 뻬에르·샤를르·벤산과 같은회사 지질기사 제랄·보본은 작년 운산광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발가치가 지극히 유망한 비철금속광산인 것을 자료적으로 증명했다」. (앞에 게재, 15페이지)

식이 거행되었다. 착공식에는 해외교포 사업총국 金柱榮총국장,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김성환 총사장, 천송광 평안북도 당책임서기, 김광후 사로청부위원장의외에 1,500인의 종업원, 운산광산개발회사 대표단과 함께 일본과 프랑스, 캐나다의 기술자도 참가했다.

회사측을 대표하여 조연락 이사장이 “김일성 생일 7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심장한 때에 착공식을 하게되어 기쁨을 참을 수 없다. 합영사업을 위해 모든 배려를 다해준 김정일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한다”고 했고, 운산광산개발을 성공리에 추진하는 결의를 말하고 이어서 김성환 사장이 “이번 사업은 세계 굴지의 금광을 개발함에 따라, 조국의 건설에 크게 공헌함과 동시에, 조국과 재일동포 상공인의 기대에 답하여, 대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귀중한 사업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대담하고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합영기업운영의 모범을 보이자”라고 외쳤다.

이 합영사업을 조총련과 북한측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가를 증명하는 것은 착공식을 하고나서 이윽고 “운산광산에서 최초의 금, 재일과의 합영으로 개발중”인 기사가 사진에 실려 소개되었다.

북한과 재일조선인의 합병사업으로서 개발되고 있는 운산고아산에서 생산된 금이 합영계약을 체결하고서 처음 일본에 운송되어 왔다. 운송되어 온것은 「조선중앙은행」의 각인이 찍힌 100kg의 금괴 8개였다. “운산광산은 공화국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우수한 금광산으로 작년 7월, 공화국의 상사와 신호에 있는 동락상사 사이에서 운산광산을 합영하여 개발하는 합의가 성립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금년말까지 조사를 하여 3년후에는 2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간 생산 10톤을 목표로 한다. 보내져온 금의 대금은, 개발의 설비투자에 사용된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조선신보』 1987년 8월 10일).

이만큼 용의주도하게 진전된 운산광산의 합영사업은 그후 전혀 소식이 두절되어 오히려 사업이 난항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²⁷⁾

그런데 86년은 북한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일조선인에 있어도 합영사업을 전개하는 획기적인 해가 되었다.

2월초에 개최된 조총련 제13기 제5회 중앙위원회에서 이진규 제일부외장이 “조국과의 합영사업은, 조국의 사회주의 발전에 힘쓸뿐만아니라, 일본에서 판로난, 경영난을 겪고있는 동포상공인에게 넓은 활로를 개척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급기관에서는 조국 「합영법」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해설하여 선전하고, 동포상공인 사이에서 조국과의 합병 사업을 희망하는 상공인이 많이 나오게 해야한다”고 보고하고, 합병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총련 모두의 과제로 하였다. 동시에 같은달 28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상공련 결성40주년 기념감사단에 대해 김일성이, “재일조선상공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에서 지반을 굳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과 합영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총련동포상공인은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내고, 돈이 있는 자는 돈을 내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내어, 조국의 인민과의 합영·합작을 더욱 힘있게 펼쳐서 사회주의조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총련동포상공인이 조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입니다.”²⁸⁾라는 취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내렸다. 이 보고와 교시에 근거하여 재일조선인과 북한의 합영사업이 본격화되었지만, 이것은 지연되어 추진되지 않는 합영사업의 성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김일성이 조총련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라고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후에 조총련과 상공련은 일이 있을 때마다 「2·28교시」를 들어 실질적인 조·조합병사업의 시작을 86년 2월에 하고 있다.

주27) “어두운 북한 합영사업①” 『통일일보』 1987년 4월 1일 단, 91년 4월의 총련합영전시회에는 「운산광산 합영회사」가 출전하고 있다(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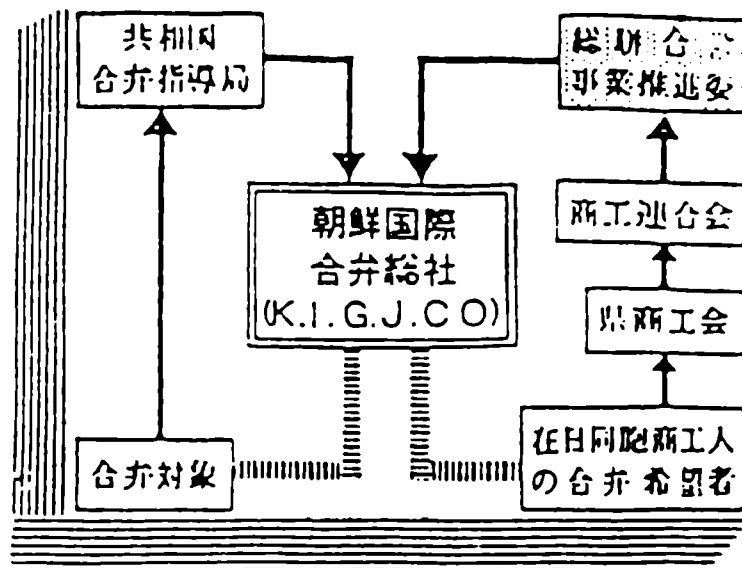
주28) “총회사를 통한 조국과의 합영사업에 적극 참가하자” 『조선상공신문』 1986년 11월 18일.

3. II 기 (86년 6월~87년 4월)

1986년 6월 16일, 재일조선인이 합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체가 되는 「합영사업연구회」가 오사카에서 발족하여 ①공화국과의 합영사업 추진을 기본으로 한 연구사업, ②공화국의 각급회사·기업소와의 합영사업추진과 제3국의 회사기업소와의 합영사업 추진, ③합영사업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상거래와 업무활동의 보조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²⁹⁾

8월 8일에는 평양에서 합영사업연구회와 북한측의 합영사업준비위원회 사이에서 조·조합영사업을 통일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인 조선국제합영총회사(약칭 KIGJC, 일본어로는 조선국제합영총사)의 창립에 관한 조인이 성립되었다.(그림1 참조).

그림 1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역할



(출처) 『조선상공신문』 1988년 3월 1일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기능은 「총회사는 조국과 재일동포상공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경제협작과 합영사업을 종합적으로하여, 그 실현을 촉진시켜 합영기업의

주29) “합영사업연구회 발족” 『조선상공신문』 1986년 6월 24일

운영에서 제기된 시장조사, 판로확보, 자재공급, 수송조직, 재정거래, 기업운영을 지도할 것」이고, 나아가 「국가적 의의를 갖는 합영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합영기업소를 조직하여 운영할 것」³⁰⁾도 들어있으며, 그 구성도 이사장에는 북한측의 경제분야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김복신 정무원 부총리가 그리고 부이사장에 김성환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김연식 조총련 중앙부의장·합영사업연구회 회장, 이사에 배경락 대외경제위원회 국장, 여성근 상공연부회장·합영사업연구회 부회장 겸 사무국장과 북한·재일 쌍방 모두 각각의 최고 책임자가 취임했다.

9월 9일에는 조선합영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22일에 이 대표단과 합영사업연구회 사이에서 비망록이 교환되어, 10월 29일부터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11월 3일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사회에서는 87년도의 계약대상과 조사연구대상도 포함하여 결정했다. 올해에 계약을 체결한 합영사업으로는 1월에 벗짚 가공공장인 「2·6합영회사」, 4월에 「만장합영회사」, 12월 22일에는 전연식 사장의 「모란봉합영회사」등이 있다. 이 모란봉 합영회사는 11월 3일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모범적인 합영사업으로서 김일성의 생일 75주년을 축하」 결정대로, 다음해 87년 4월 12일에 조업식을 거행했다(김일성의 생일은 4월 15일).

87년에 들어와 북한으로부터 기술단의 일본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피복기술대표단(2월 8일~28일), 조선미용기술대표단(3월 2일~15일)³¹⁾, 평양물엿기술대표단(3월 7일~25일)³²⁾, 조선뱀장어기술대표단(3월 27일~4월 1일), 낙원피복회사대표단(4월 14일~5월 13일)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올해 조·조합영사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소련의

주30) 『조선상공신문』 1986년 11월 4일,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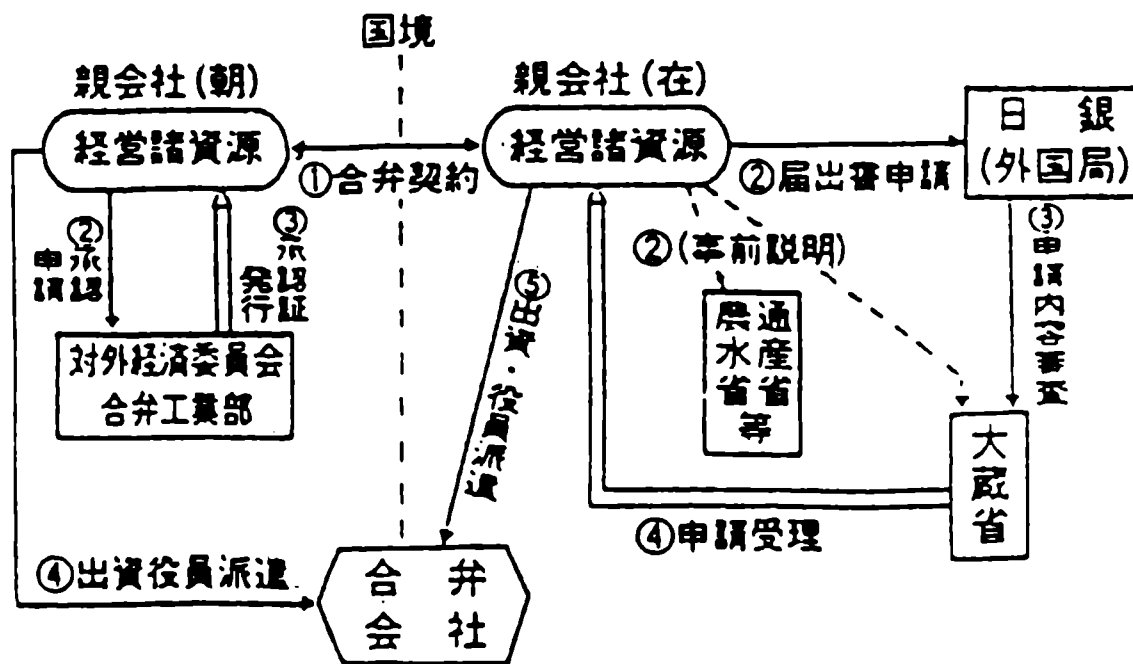
주31) 이 대표단과 재일조선여성동맹과의 사이에서 합영계약이 체결되어, '너와나 미용연구회'가 설립되고 같은 해 11월부터 인삼크림(1개에 2,500엔)의 판매를 개시, 북한의 화장품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조선상공신문』 1987년 12월 15일.)

주32) 평양물엿은 전년도에 체결된 합영합의서에 근거하여 영흥상사주식회사가 수입하여 87년 가을경부터 도내의 JR선무선, 東遼 전철의 연선동 40개소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조선상공신문』 1987년 12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제품 전시회가 개최된 일이다. 이 전시회에 출품한 의류, 신발등 2,000점은 모두 조·조합영사업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전시기간중에 약 2,000명이 입장하였고 “17년만의 조선제품 전시회의 개최는 북한·소련 양국의 무역관계 발전에 기여한다”고 소개되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동구권의 무역회사도 상담을 했지만, 수출유망 품목으로 조·조합영사업에 거는 북한측의 의욕이 보여졌다.

4월 25일에 개최된 합영사업연구회 제2차 이사회에서는 그때까지의 합영사업의 성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합영사업연구회의 명칭을 새롭게 「합영사업추진위원회」라고 고쳤다. 이와함께 사무국을 강화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조총련 중앙과 상공련의 지도하에 합영사업추진을 위한 창구가 각 현 본부와 현상공회에 설치되어 조·조합영사업이 전동포적 또한 다종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조·조합영사업의 조직은 확립된 것이다(그림2 참조).

그림2 합영회사 설립경로



(출처) 『조선상공신문』 1989년 7월 11일

이날의 이사회에서는 87년 3월말현재 19개의 합영대상이 합의·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경공업 6, 농수산물관계 4, 전자공업·기계공업관계 8, 그외 1).

10월 22일에는 일본 파레스주식회사(허복덕 사장, 자본금 1,000만 달러)와 북한의 조선낙원무역상사와의 사이에서 낙원금융합영회사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북한내의 합영·합작회사, 무역기관, 기업소, 그리고 외국의 상(회)사와 해외동포가 운영하는 상(회)사에 대한 투자와 대부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금과 송금을 비롯한 국제금융업무를 주업무로하는 합영금융회사로 기간을 10년으로하여 이 회사의 최고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이사장에는 허복덕사장이 취임했다.³⁵⁾

Ⅱ기는 조·조합영회사의 기초를 굳히고, 합영사업의 환경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합영사업이 발돋움을 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주33) 『조선신보』 1987년 4월 22일

주34) “사업의 강고한 토대를 만든다” 『조선상공신문』 1987년 5월 5일.

주35) “금융합영회사설립, 조국과 재일동포 투자와 대부업무를 개시” 『조선신보』 1987년 10월 29일.

4. Ⅲ기 (87년 11월~89년 4월)

Ⅱ기까지 시험적인 시기에서 Ⅲ기에는 합영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로 나중에 김성환 합영공업부 부부장이 “87년부터 88년도에 걸쳐 조국과 총련사이에는 약 100여건의 투자대상에 대한 합영계약이 체결되었다.”³⁶⁾고 말할 정도였다.

87년 11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합영회사의 제2차 이사회에서 24건(대동강 피복공장-연간 20만벌, 동대원피복공장-연간 20만벌, 견사, 실크넥타이, 견직물, 제사공장, 소형변압기, 백작약 가공, 물엿, 여성복, 뱀장어, 다시마, 섬게, 은단, 포장재, 의료용구, 인삼크림, 피아노, 양식품, 총회사, 식당, 수산물, 오미자, 전기제품 기타)이 계약되었고, 11건의 합의서 (PVC-연간 1만톤, 양산-연간 60만개, 크리닝, 가구용 합판, 수도꼭지, 철백금, 신발-연간 240만켤레, 가방-연간 20만개, 가죽밴드-연간 240만개, 컬러TV, 용격크링카)가 교환됨에 따라, 막대한 투자와 최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³⁷⁾

이 시기에 조업을 개시한 합영사업은 표1에도 있듯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합영회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업종도 다양하다. 특히 88년 9월에는 4일에 동대원피복공장이, 5일에 평양실크합영회사, 청천강합영회사, 7일에 평양양어합영회사가 연이어서 조업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북한의 합영사업은 조·조합영 뿐만 아니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와 북한과 「우호적으로 접촉하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합영사업도 행해져 그수는 약 20건에 달하고 대부분은 기계공업등 투자액이 큰 분야였다.³⁸⁾ 그리고 북한이 해외에 진출하여 하고 있는 합영사업도 20건에 달하는 등, 합영사업은 수·양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합영사업을 종합적으로 관할하여 목표를 갖고 발전시킬 필요성에 따라서 88년 11월 26일에 합영지도국을 대신하여 정령으로 합영공업부가

주36) “합영법 실시로부터 5년” 『조선시보』 1989년 9월 4일.

주37) “동포상공인의 힘, 지금 조국으로” 『조선상공신문』 1989년 3월 1일

주38) “통일적 지도, 장악의 기능” 『조선시보』 1988년 12월 22일

신설되고, 채희정 노동행정부장을 새롭게 합영공업부장에 임명했다.³⁹⁾ 이 합영공업부의 신설에 따라 이제까지 조·조합영사업의 창구역할을 맡아온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의 관계와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합영의 실리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북한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합영공업부는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하나의 부서로 두게 된다. 그 업무는 종래와 어떤 변화도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를 더욱 늘려서 사업을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또 합영부문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독립했다는 것은 이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직접담당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부터 재일조선상공인의 투자는 국가의 책임하에 그 안정성은 더욱 확고히 보장된다. 또 합영공업부가 외국과의 합영도 동시에 관장하게 되어 재일조선상공인의 합영사업을 보다 국제적이고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즉 재일조선상공인은 북한과 함께 외국과도 합영할 수가 있어 합작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외국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합영공업부가 알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합영공업부가 합영을 종합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합영의 추진과정에서 과거에 제기되었던 일련의 문제도 국가기관으로서의 합영공업부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금후의 합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보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이제부터 북한은 투자액의 대소에 관계하지 않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합영이라면 대·중·소 규모를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합영공업부의 신설에 따라 금후 합영사업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번 조치의 효과성은 실제의 사업속에서 나타날 것이다.⁴⁰⁾

주39) “합영공업부를 신설” 『조선시보』 1988년 12월 1일.

주40) “통일적 지도, 장악의 기능” 『조선시보』 1988년 12월 22일.

표 1 재일조선인 합영기업 일람

설립 또는 조업시기	합 영 기 업 명	사 업 내 용	소 재 지	
1	1986	창광합영청량음료점	청량음료	평양시
2	86	대동강합영식당	요리, 주류	평양시
3	86	이영삼평양물엿연구소	밥	평안남도 성천군
4	86	2월6일합영회사	짚가공	평양시
5	1987	동해관유한책임회사	요리, 주류	강원도 원산시
6	87	평양골프장합영회사	골프장 경영	남포시
7	87	창광합영회사	식당, 상점	평양시
8	87	모란봉합영회사	기성복	"
9	87	낙원·성화피복합영회사	부인양복	"
10	87	월명산합영회사	장석광업	"
11	87	서산합영회사	밀봉(꿀)	"
12	87	원산애국편물유한회사	편직물	강원도 원산시
13	87	홍덕합영회사	다이아몬드	함경남도 함흥시
14	87	남산합영회사	전기·전자제품	평양시
15	87	능라합영회사	양복점, 상점	"
16	87	낙원금융합영회사	금융	"
17	87	너와나 미용연구회	인삼크림	신의주시
18	1988	평양실크합영회사	견직물	평양시
19	88	칠보산수산물합영회사	수산물	함경북도 청진시
20	88	선봉합영회사	소형변압기	평양시
21	88	만장합영회사	약초류	"
22	88	평양양어합영회사	뱀장어 양어	"
23	88	청천강합영회사	견사	자강도 희천시
24	88	천유합영회사	TV·타이프라이타부속품	평양시
25	88	관광대동합영회사	관광운수업	"
26	88	유경합영회사	식당	"
27	88	평운합영회사	식당	"
28	88	고려합영회사	무역업무	"
29	88	와우도합영회사	냉동화물선운영	"
30	1989	덕산건설기기합영회사	불도우저, 크레인등의 수리	"

설립 또는 조업시기	합 영 기 업 명	사 업 내 용	소 재 지	
31	1989	평양포장재합영회사	골판지	평양시
32	89	평양피아노합영회사	피아노	"
33	89	명전합영회사	의료기구	"
34	89	광포합영회사	깃털	함경남도 정평군
35	89	신흥합영회사	자전거, 전기제품	평양시
36	89	조선합영회사	은행업무	"
37	89	진달래합영회사	부인양복	"
38	89	만풍합영회사	다다미	"
39	89	조선은동합영회사	기념메달	"
40	89	도라지합영회사	상점	"
41	89	대동강자동차수리합영회사	엔진재생	"
42	90.9.11	평양합영골프연습장	골프연습	"
43	90.4.12	밀림·유니합영회사	일용품	함흥시
44	91.4. 8	국제화학합영회사	레아메탈	"
45	91.4. 8	대성6월4일합영회사	일용품	함성남도?
46	91.7.22	조선금성합영회사	금속건재	
47	92.2.26	평양피복합영회사	의류	
48	92.2.26	광운합영회사	승용차, 버스서비스	
49	92.6. 3	명해고급기성복공장	의류	
50	92.4. 9	전진합영회사	피복, 셔츠	
51		지성금산합영회사	광업	
52		평양세라믹합영회사	압전자기 박막	
53		흑룡합영회사	화강암 가공	
54		마천전용합영회사	마그네사이트 가공	
55		금강원동기합영회사	소형엔진	
56	90.10. 5	대덕산합영회사	수산물	
57	92. 2.12	조선삼방연합합영회사	"	
58	88. 8.26	운단생산합작회사	"	
59		지성흑연합영회사	흑연	
60		나진목림가공합작회사	목재가공	

설립 또는 조업시기	합 영 기 업 명	사 업 내 용	소 재 지
61	동흥산합영회사	염화비닐수지제품	사리원시
62	만경대우산합영회사	우산	
63	만경대제화합작회사	신발	
64	봉선화합영회사	의류	
65	91.4.29 진흥합영회사	수예품	
66	88.8.30 대풍합영회사	신발	
67	91.4. 8 대성철재가공무역회사	일용품	
68	92.5.21 개성(개선?)피복합작회사	피복	

- 주1. 1~41까지는 “재일조선인에 의한 합영사업의 현황과 과제(상)” 『월간조선자료』, 1990년 5월호. 52페이지에서 인용. 단 일부 한자로 고친 기업명도 있다.
2. 42이하의 필자가 『조선시보』 『조선신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해 둔다.
3. 91년 6월 24일 현재 합영계약 87건, 51기업이 조업, 투자총액 189억엔, 7.5%의 합영기업이 북한의 경제과학 기술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5년간의 축적을 토대로, 기간산업, 경공업 부문에 더욱 힘을” 『조선상공신문』 91년 7월 2일). 91년에는 15건의 계약이 교환되어 11사가 조업을 개시했다. 누계계약건수는 106건, 조업건수는 62건이 되고 있다(“합영사업을 잘하여 조국건설과 인민생활에 크게 기여하자” 『조선신보』 91년 12월 9일).

이처럼 장점이 많았던 합영공업부도 90년 5월에 ‘투자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불과 1년만에 폐지되고⁴¹⁾ 현재는 대외경제사업부의 합영공업총국(김성환 총국장)이 합영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조·조합영사업의 전개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89년 4월 20일에 개업한 조선합영은행 (Korea Joint Venture Bank)으로,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5대5의 출자비율(자본금 20억엔중 불입 자본금 6억엔)로 설립되었다. 그때까지 북한에서 합영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융분야에서 현지에서의 자본금 조달처의 확보, 자본금등의 관리, 내외결제의 확충등이 신속히 해결을 요하는 과제로서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합영기업을 대상으로

주41) 『한국일보』 1990년 10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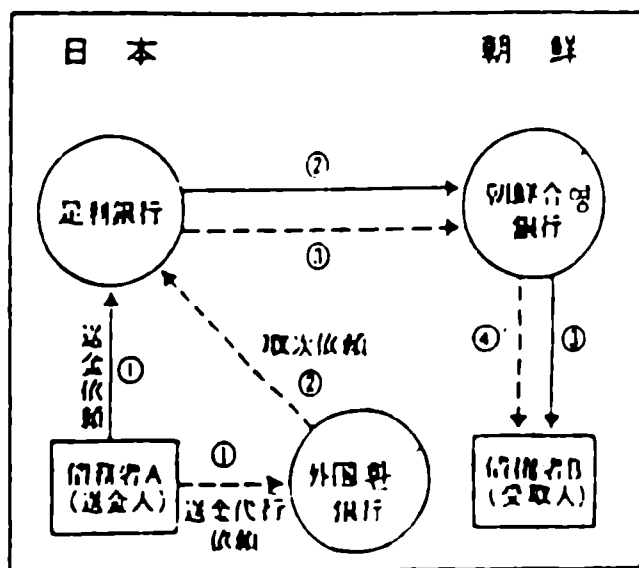
하는 내외결재와 용자를 주로하는 동행의 설립에 따라, 금융면에서의 투자 환경이 정비되고, 재일조선인의 합영사업에의 참가를 쉽게 하였다.

동행은 경영방침으로 ①합영기업의 좋은 파트너로서 합영기업에 밀착하여, 마음이 통하는 경영을 통해 공화국의 합영사업에 공헌할 것, ②'봉사와 신용'을 방침으로 내외의 폭넓은 고객에 대해 충실한 금융서비스로 봉사하고, 정확한 사무처리와 경영의 안정에 기초를 둔 신용제일주의를 관철한다. ③해외은행과의 제휴를 깊게하여 북한의 국제적 위신을 높일 것등을 게재하고, 더욱 이와같은 경영방침을 실현하기위해 향후 3년간에 ①자금량의 증대와 해외 코레스*망의 확충등을 내용으로하는 영업기반을 확립, ②금융서비스를 충실하게 하여 안정된 경영 체질을 확립한다. ③이들의 시책을 수행할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대외 코레스망에 대해서 동행은 족리(足利)은행, 남양산업은행(홍콩), 중국은행 런던지점(중국) 등과 코레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월 1일부터 해외 송금 업무의 취급을 시작했다. 한편, 조선합영은행의 외국환에 관련한 업무는 족리은행이 대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재일조선인은 북한의 친족에게 송금, 수입물품 대금, 합영투자금, 해외자금등의 수용체제가 정비되어 있고 그리고 조선합영은행에 송금하는 경우, 족리은행 이외의 창구에서도 동행을 경유함에 따라 일본국내의 모든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송금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그림 3 참조)

* 코레스-은행간의 환거래 계약.

그림3 족리(足利)은행에서 북한합영은행으로의 송금



(출처) 『조선상공신문』 1989년 9월 26일

합영은행의 설립에 따라서 해외로부터 송금업무와 국제결제업무가 원활하게 실시되어, 재일조선인으로부터 북한에 있는 친척(귀국한 공민세대)에게 송금건수와 금액도 늘고 있고, 91년 5월 15일에 함흥지점에 이어, 사리원(1월 31일), 평양(3월 4일), 청진(3월)에 출장소를 개설했다. 이와같은 영업지역의 확대와 함께 91년도에는 흑자결산을 행하고 배당도 가능하게 되어 외국의 거래은행도 현재는 14개 은행이나, 92년중에는 30개 은행에 이를 추세에 있다고 한다.⁴³⁾

주42) “재일동포의 선전을 꾀하는 전문 금융기관, 새롭게 스타트” 『조선상공신문』 1989년 9월 26일. 이외에 합영금융기관으로서의 북한의 오산덕총국(鰲山德총국, OGTC)과 홍콩의 루비·홀리데인(紅寶石)과의 사이에 조선통일 발전은행(UDB)이 설립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출자비율은 루비가 51%, OGTC가 40%, 합영은행의 설립에 관여한 북한당국은 루비에 과반수의 주식취득을 인정하여 ①92년 1월부터 3년간 모든 자금을 면제한다. ②외화업무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③북한내에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④북한내에서의 UDB에 대한 용자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무조건 보증한다. 등의 우대조치를 주고 있다(『일본경제신문』 1991년 11월 19일). 상세한 것은 中村芳生·室岡鐵夫, “화교자본가의 대북한 투자” 『중국경제』 제313(1992년 1월), 6~7페이지 참조.)

주43) “조선합영은행, 사리원, 신의주등에 새로이 출장소를 개설” 『조선상공신문』 1992년 3월 10일.

5. IV기(89년 10월~91년 4월)

합영법이 제정되고 나서 5년째인 1989년 10월 3일에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 제5차 이사회 확대회의가 열렸다. 김연식 회장은 그때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살려서 총련 15차 전대회의 결정에 따라 합영사업의 발전을 호소하여 70건의 합영계약, 35건의 합의서 교환이 실현되고, 총투자액은 120여억엔, 40건의 기업이 조업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합영계약과 조업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산업의 비율이 높았던 초기에 비해 경공업, 광업, 기계, 화학, 전자공업등의 생산분야가 증가하는 한편,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금후에는 북한의 기간산업에의 합영투자를 행할 것과 함께, 총련의 각조직이 빠짐없이 모여 힘쓸 것을 결정했다.⁴⁴⁾

이 시기는 합영법 제정으로부터 5년째라는 점과 함께, 김일성의 「2.28교시」 5년째에 해당하는 91년 4월에 평양에서 합영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조총련은 유망한 합영공장의 소개를 현저하게 하는 등 새로운 합영사업이 전개된 시기이며, 조·조합영사업 제품의 일본 수출도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조총련과 북한의 합영회사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레아아스틀 생산하는 국제합영회사이다.⁴⁵⁾ 이 회사는 국제트레딩(여영백사장, 본사 동경, 여사장의 부친은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 부회장 겸 산구현 조선인상공회 회장인 여성근씨)과 북한의 용악산무역총회사와의 합영으로 88년에 합영계약이 교환되었고, 출자금은 2,000만달러이고, 출자비율은 재일측이 50.4%이고 북한측이 49.6

주44) “기간산업에 합영투자를” 『조선상공신문』 1989년 10월 17일.

주45) 레아아스는 주기율 제3종에 속하는 원자번호 57번인 란타(La)에서71번인 루테튬(Lu)까지의 란타족 15원소에 21번의 스칸디움(Sc)와 39번의 잇도튬(Y)의 2원소를 더한 17원소의 총칭이다. 철·동·알루미늄과 같이 일반적으로 친속하지 않은 원소이지만, 금속·전자공업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원소로서 그 부가가치도 높다. 특히 70년대에 있어서 고온 초전도 물질의 발견이 하이테크분야에서의 초전도용 재료로서 레아아스(잇도튬·란타늄)의 용도개발에 커다란 임팩트를 주었다(91년 과학기술보고회, “공화국에서 창설된 레아아스생산기기” 『조선상공신문』 1991년 7월 23일.)

%이다. 여성근씨는 86년 2월에 평양에서 김일성의 「2.28교시」를 받은 후 합영공장의 설립을 결심하여 아들과 협의하던 차에 “한다면 제1차산업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주목하여 레아아스 생산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 하고, 「화학공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트레이딩을 설립하여 아들을 사장에 임명했다.⁴⁶⁾

레아아스는 하이테크회사에 있어서 필수품으로 고온 초전도 물질에서 유리화 브라운관등에서 사용되는 형광물질, 레이저와 리니어모터카의 개발에 불가결한 강력자석에 사용된다. 이 레아아스는 일본에는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고 세계의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다.⁴⁷⁾ 따라서 레아아스의 용매 생산기술의 선진국은 중국으로, 이번에 함흥공장을 순조롭게 운영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의한 가운데 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89년에 중국의 공장에 반년간 다수의 사람들을 파견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는 증거이다.⁴⁸⁾ 또 당연한 것은 함흥공장의 건설에 동반되는 설비기기의 절반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공장에 납품한 기기류의 양은 열차로 148량분에 이른다.

89년 7월에 공장의 건설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후에 빠르게 완성한 공장은 부지 10만㎡·건평 3만㎡에 15개동의 각종 공정공장이 나란히 서있고, 원광석 처리, 중간원료 정제, 레아아스의 생산 및 분류까지 일괄생산이 가능하고, 연간 1,000톤의 광석을 처리하여 350톤의 레아아스를 생산할 예정이라 한다. 원료는 철산광산(평안북도)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철산의 레아아스 매장량은 50만톤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500년간은 원료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91년 4월 8일에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함흥화학합영공장의 조업식을 가졌다. 식에는 박성철 부주석,

주46) “시대의 필요에 따른 큰 산업의 형성을 지향한다” 『미래』(반·바브리시티 1991년 8월호), 59페이지. 『조일신문』 1991년 1월 25일 등도 참조.

주47) 자원에너지 청감수, 『레아메탈 88하이테크회사에서 떠받치는 회소자료』통산자료조사, 1988년등 참조.

주48) 주 46과 같음

김달현 부총리를 비롯하여 북한정부 관계자 및 기술자와 중국공산당 상해시위의 왕력평 비서장,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참사관등 중국인이 참가한 것이 주목된다.⁴⁹⁾

이 공장의 조업식은 일본 TV에도 소개되었지만, 20대의 젊은 500명의 노동자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이 합영에 거는 열의는 남다른 데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합영 상대가 조총련의 거물 상공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 싼 가격, 중국보다 높은 품질, 안정된 공급 체계를 목표로 하여 이 회사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따른 자국의 금속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절대적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레아아스공장과 함께, 하이레벨의 우수한 합영사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평양피아노합영회사이다. 92년 4월 10일부터 일본에서 이 합영회사에서 제조된 고급 어프라이트형 피아노 '그레이스파코'가 아상주식회사⁵⁰⁾ (중춘차량대표, 본사 동경도 부중시)로부터 판매되었다. 그레이스는 높이 130cm의 피아노 4종류와 160센치의 피아노 1종류로 되어 있고, 아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동연주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호텔과 패션쇼등 리조트 시설방면에 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무튼 30종류 이상의 도·배색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피아노 생산국은 세계에서 한국,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불과하여 판매는 초에 300대, 2~3년후에는 연간 500대 이상의 판매를 전망하고 있고, 가격이 92만엔~182만엔으로 일본제인 동일제품에 비해 1~2할 싼데다가 음질등도 일본세에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피아노이므로 일본의 판매에도 자신을 보이고 있다.⁵¹⁾

주49) "공업도시 함흥에 회도류합영공장탄생, 일관생산공장은 중국에 이어서 두번째" 「조선상공신문」 1991년 4월 23일. 홍콩 승송상사의 감츄만사장 등의 인물도 참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1991년 4월 9일.

주50) 아상은 조미하여 구운 고기국 '장' 을 판매하는 종합기업 사쿠라그룹의 해외사업부이다. 「일본경제신문」 1989년 4월 10일.

평양피아노합영회사는 조선대학교(동경도 소평시 소재)를 졸업한 재일조선인 인 동창생 4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유한회사 PACO와 북한의 조선악기총회사와의 합영회사이고, 87년에 계약을 체결하여 89년 11월 16일에 조업식을 행했다. 이날의 조업식에는 연형묵총리, 강희원부총리를 비롯하여 문화예술부의 장철부장, 교포사업총국의 김영수부장, 합영공업부의 김성환부부장, 게다가 북한에 체재 중인 총련중앙회 전연식 부의장(상공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제7차 총련합영경제 대표단 및 PACO관계자등 500인이 참석하는등 이 합영사업에 있어서 북한측의 기대와 열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평양피아노합영회사는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접착제와 피아노선등 부품의 70%가 일본제품이지만 피아노음의 심장부이라 할 수 있는 ‘향판’은 자강도 임산업총국을 통하여 조달한 백두산의 송림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조·조합영사업에서 최대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모란봉합영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소개되고 있다.⁵²⁾ 단 동사에서 생산된 신사복이 92년 가을부터 대환백화점의 직영 5점포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 주목된다.⁵³⁾ 대환이 취급하는 슈우트는 1만5천엔~3만9천엔 대가 중심으로 통상의 백화점 상품의 반액 이하가 되고 있고, 가장 염가인 슈우트는 1벌

주51) “합영으로 격조높은 피아노 생산을 2세 상공인의 정열을 묶는다” 『조선상공신문』 1989년 12월 5일.

주52) “조·일 합영사업의 북측회사인 모란봉 불고기 회사가 양복메이커로 변신”, 『주간조일』 1988년 9월 2일, 『조일신문』 1990년 2월 10일, 석간, 『일본경제신문』 1990년 9월 27일등. 또 궁총리웅, 「북한의 합영사업과 경제특구」 앞에 게재, 126~127페이지도 참조.

주53) “북한으로부터의 신사복, 이번 가을부터 본격판매” 『일본경제신문』 1992년 4월 25일. 모란봉합영회사의 피복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사 슈우트·브랜드인 달포 90년 가을·겨울 신작 컬렉션 전시회가 2월 26일, 27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동브랜드는 동경·부중시에 본사를 두고 아상(주)이 판매를 맡고 있다. 작년은 슈우트 15만벌, 브라우스 17만벌등 불루진 10만벌의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다. (『조선시보』 1991년 3월 11일) 작년은 세비로 15만벌, 브라우스 7만벌, 잠바 6만벌을 제조하여 사꾸라그룹을 통하여 일본에서 판매되었다. 이탈리아 북지의 세비로는 1벌에 20만엔. 양산품도 5, 6만엔으로 점포 앞에 진열됨(『요미우리신문』 1991년 9월 12일). “팝니다 북한신사복” 『동양경제일보』 (1992년 7월 24일)도 참조.

에 1만5천엔을 설정하여 이번 회기에 1만5천~2만벌의 판매를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91년 4월 13일부터 27일(15, 16일은 휴일)까지 평양의 문수거리에 있는 청년극장에서 총연합제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김일성의 「2.28교시」 5주년과 김일성의 생일 축하를 겸한 것으로 개막식에는 연형묵총리, 박성철 부주석, 윤기복서기, 김달현부총리 등의 수뇌급이, 총련측으로부터는 한덕수의장, 전연식 부의장, 최일수 상공련 이사장등이 참석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은 69사(표2 참조)이며 제품은 223종, 2,143점(중공업 118종·802점, 경공업 82종·992점, 농수산 20종·325점, 서비스 3종·24점)으로 총련에서 파견된 직원 8인이 4개소로 나누어 설명했다.⁵⁴⁾

표2. 총연합제품 전시회에 출품한 회사와 그 제품

회 사	제 품
경공업부문(24개회사)	
모란봉합영회사	고급양복
만경대우산합영회사	우산
낙원성화피복합영회사	여성피복
청천강합영회사	생사
평양배금합영회사	생사
평양피아노합영회사	피아노
평양피아노합영회사	포장용지
너와나미용연구회	인삼화장품
밀림·유니합영회사	나무젓가락
평양피복합작회사	고급양복

주54) “총연합제품 전시회를 보고 (상) - 다채로운 내용으로 대성황, 동포상공인의 조국에 대한 사랑” 『조선시보』 1991년 5월 13일. 또 Foreign Tra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6(1991) 참조

회 사	제 품
금성합영회사	수도꼭지
나진목재가공공장	빠레트
만경대신발합영회사	가족신 생산
전진합영회사	기성복
애국모란(牡丹)피복공장	고급양복
무지개합영회사	이발기계
문평합영회사	편물
대상철재가공무역합영회사	양식품
대성옥석합작회사	옥석연마
여명합영회사	피복
대복합영회사	지갑
운봉합작회사	방직
봉선화합영회사	피복
모란봉피복공장	피복가공
중공업·광업 및 약전부분(16개회사)	
국제화학합영회사	희토류
금강원동기합영회사	원동기
동홍산합영회사	염화비닐 콤파운드
지성흑연합영회사	흑연
마천크링카합영회사	熔融크링카
남산합영회사	전자·약전
선봉합영회사	스위치 변압기
흑룡합영회사	석재가공
덕산건설기계합영회사	건설차량 수리판매
조선대성광명합영회사	금속연마
금산합영회사	텅스텐
6.14합영사업	전자로보트 생산
진흥합영회사	석재가공
평양세라믹합영회사	입전소다
운산금광합영회사	금광개발
홍덕합영회사	타이어

회 사	제 품
<p>농수산물부문(13개 회사)</p> <p>이영삼평양물엿연구소</p> <p>만풍합영회사</p> <p>광포합영회사</p> <p>운단생산합작회사</p> <p>대덕산합영회사</p> <p>평양양어합영회사</p> <p>삼방연합합영회사</p> <p>만장대합영회사</p> <p>낙원생물합영회사</p> <p>해금합영회사</p> <p>송광합영회사</p> <p>사문합영회사</p> <p>2.6합영회사</p>	<p>평양물엿</p> <p>다다미</p> <p>오리털·고기</p> <p>운단생산</p> <p>수산물</p> <p>양어</p> <p>수산물가공</p> <p>약초</p> <p>수산물가공</p> <p>수산업</p> <p>향료</p> <p>약초</p> <p>짚가공</p>
<p>서비스부문(16개 회사)</p> <p>조선합영은행</p> <p>동해봉사관</p> <p>백각합작회사</p> <p>변운합작회사</p> <p>승전합영회사</p> <p>창광합영회사</p> <p>낙원금융합영회사</p> <p>고려합영회사</p> <p>칠성합영회사</p> <p>고려다방</p> <p>만경·아사히합영주식회사</p> <p>금만합영회사</p> <p>능운합영회사</p>	<p>은행</p> <p>서비스</p> <p>화학식간</p> <p>식당</p> <p>식당</p> <p>식당</p> <p>금융</p> <p>금융</p> <p>골프연습장</p> <p>청량음료</p> <p>백화점</p> <p>인쇄합영</p> <p>봉사망</p>

회 사	제 품
황세합영회사	수송
도라지합영회사	상점
주식회사 백가상회	상점

(출처) 『조선신보』 1991년 4월 22일

주1. 원문은 한글문자로 되어 있고, 한자명으로 되어있지 않은 회사도 있다.

2. 합영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합영회사와 합작회사이다.

제품의 설명을 한 후 북한 최초의 패션쇼가 진행되어 음악에 맞춰 4개의 합영 회사가 생산한 봄옷 ‘합영피복’ 29점을 입은 영화·무대배우 13명의 모델들이 차례차례 무대에 등장하여 관객의 뜨거운 시선과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기간중에 전시회장에는 당과 군 및 각 기관의 간부를 비롯하여 공장·기업소, 합영기업의 노동자등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4월 19일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전시장을 시찰하였다.⁵⁵⁾ 김일성은 합영제품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금후에도 합영사업의 성과를 발전시켜 그 위력을 발휘하도록 기대를 표명했다.

이 전시회는 “이 5년간에 걸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정당성을 내외에 높이 자랑함과 동시에 조국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쓰려고 하는 동포상공인의 애국지성에서 만들어진 합영사업의 성과와 그 전망을 질이 좋고 다양한 제품등을 통해 실증했다.”⁵⁶⁾는 것으로 총련 관계자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단,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또 하이테크를 구사한 첨단 제품은 적었다. 이것은 조·조합영사업이 아직껏 북한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양」의 확보 수준인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질」의 분

주55) “위대한 수령님이 총련합영제품 전시장을 시찰하심” 『조선상공신문』 1991년 4월 30일.

주56) “합영, 합작사업발전의 새로운 계기에” 『조선신보』 1991년 4월 22일.

야에 합영사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 재일조선인의 합영사업, 소위 조·조합영사업은 북한측에 따르면 김달현 부총리가 전시회의 개막식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합영에서 달성된 모든 성과는 같은 부분의 활동가와 근로자, 총련 동포상공인의 당과 수령님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과 애국심이 나타나 있다.”⁵⁷⁾ 재일조선인측에서 보면 “사회주의조국의 육성 번영에 공헌하는 일념으로 합영사업을 행해왔다”⁵⁸⁾(허종만 총련부의장의 개막식에서의 인사)는 것이고 쌍방의 자세는 금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조·조합영사업의 이점도 되지만, 금후 합영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자세는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화교 자본이 만만치 않음을 크게 참고로 해야 한다.

이외에 91년, 북한은 경제특구의 구상과 함께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의 협력을 얻어 11개분야·83건에 걸쳐 해외에서 ‘합영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북한이 희망하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품목중에 재일조선인의 자금과 기술이 더해지면 굳이 제3국으로부터의 유치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91년의 「2.28교시」 5주년과 92년의 「2월·4월의 명절」이라는 기념적인 목표도 끝나고, 금후 북한 당국과 조총련이 어떠한 전망과 목표하에 새로운 조·조합영사업을 전개해 갈 것인가를 주목하고 싶다.

주57) 58) “합영제품전이 오픈” 『조선신보』 1991년 4월 22일.

주59) 이것에 대해서는 宮塚利雄, 「북한의 합영사업과 경제특구」 신개 141~143페이지 참조

6. 결 론

이상 1984년의 합영법 제정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조합영사업의 전개를 약술해 왔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문제점으로는 ① 북한에 있어서 석유와 전력등 기간에너지 공급의 불안정, ② 합영사업에 필요한 관련부품·원자재의 공급난, ③ 북한측의 강력한 통제에 따른 기업경영의 강직성, ④ 결정적으로 낮은 북한의 대외신용도, ⑤ 합영관련법규의 미정비등에 더하여, ⑥ 북한에 대한 이상할 정도의 충성심의 발로와 그 강제등이 합영사업의 전개에 있어서 커다란 애로가 되고 있다.

조·조합영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8년(86년 2월의 김일성의 교시를 기준으로하면 6년째가 되지만)이 경과했지만 모란봉합영회사의 배광수출등 수많은 성공사례가 선전되고 있을 뿐이다. 유망업종이라고 하는 피아노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 전자 오르겐의 보급에 따라 피아노의 퇴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일본시장에 새롭게 참여한 북한제 피아노가 이 경향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예측을 불허한다. 조·조합영기업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레아아스공장에 대해서도 일본시장에 있어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등과의 경합이 부득이 하게 될 것이다.⁶⁰⁾

조·조합영사업이 금후에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전술한 문제점의 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더욱이 일본으로의 수출이 합영사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과 아무튼 조국애와 전수, 규모에 구애되지 않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아 시장성이 있는 업종을 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상으로 일본의 관련기업들과 정보교환 및 제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NIEs제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각국에서 일본자본과 합영·합작에 따라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주60) “레아메탈, 중국 수출가격 인상, 싼값의 비판을 회피” 『일본경제신문』 1992년 5월 15일.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합영사업설도 나돌고 있어 여기에서 생산된 상품이 일본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예상된다.

일본을 둘러싼 무역전쟁은 금후 더욱더 극에 달하여 조·조합영사업도 불림없이 이 전쟁에 휘말려 갈 것이고, 북한이 설치물 결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외국기업의 진출은 타국의 경제특구와의 치열한 경쟁에 이겨나가는 것이 조건이 되지만, 과연 북한이 그러한 이점·특징을 완비하고 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북한은 합영사업을 지금과 같은 재일조선인과의 조·조합영사업 의존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은 그 준비단계로서 한국과의 합영사업의 실현이 요망된다.

한국과의 합영사업에 있어서 희망적 자료도 있다. 그것은 7월 19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던 북한의 김달현부총리와 한국정부와의 사이에서 북한내에서의 남북합영사업이 토의되고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합영사업 조사단의 파견을 인정하고 서둘러 북한내의 합영사업 후보지로서 남포를 비롯한 6개소를 선정하고 있지만, 그중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장단이 유력지라고 지적하고 있다.⁹¹⁾

합영사업은 자본과 기술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기술자)도 사상도 움직인다. 북한은 정경분리의 방침에서 합영사업에 몰두하게 될 것이지만, 한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에 북한측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금후의 방향이 주목된다.

주61) “북한의 합영조사” 『일본경제신문』 1992년 7월 26일

주62) “남북합영공업단지, 장단이 최고로 유력한가” 『통일일보』 1992년 7월 30일.